



2023.10.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전망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

Economic Outlook for 2024 and the Medium-Term II

[생산 부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Ⅱ

- 생산 부문 -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

- 생산 부문 -

총괄 | 진 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예 승 우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김 상 우 산업자원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이 동 엽 경제분석관
권 일 경제분석관
김 민 혁 경제분석관

작성 | 권 일 경제분석관
김 윤 희 경제분석관
조 은 영 경제분석관
김 용 균 경제분석관

지원 | 김 남 희 행정실무원
유 기 환 자료분석연구원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GDP성장률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02) 6788-3781 | nabo3781@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Ⅱ

- 생산 부문 -

2023.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3. 9. 2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2024년 우리 경제는 최근의 경기둔화 흐름에서 점차 벗어나 올해보다 높은 성장이 기대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세계 경제 분절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의 개선 흐름을 제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도 세입 여건 악화로 인한 재정 여력 하락과 총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추가적인 하방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하여 국회의 예산안·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총 4권으로 구성된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제Ⅱ권 「생산부문」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 주요 산업의 부가가치를 전망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경로를 산업 부문별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총부가가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2.0% 성장할 전망입니다. 산업 부문별로는 제조업에서 세계 교역량 증가, 반도체의 수요 회복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며 2.2%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비스업은 고금리 지속에 따라 소비와 투자 여력이 감소하며 올해보다 낮은 2.0% 성장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건설업은 SOC 예산(안)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저조한 건설경기로 인해 성장이 제한적이고,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기저효과에 더해 산업생산 개선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로 소폭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경제정책 마련과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NABO 2024년 및 중기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실질 국내총생산(RGDP)	2.6	1.1	2.0	3.0	2.6	2.3
총 부가가치	3.1	1.4	2.0	3.1	2.6	2.3
제조업	1.5	-0.5	2.2	3.2	2.6	2.3
서비스업	4.2	2.3	2.0	3.2	2.8	2.4
건설업	0.7	1.1	1.5	1.6	1.5	1.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9	-0.8	0.7	2.2	2.1	1.9
순생산물세	-2.2	-3.0	2.6	1.7	2.1	1.6

주 1.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광업은 제외

2.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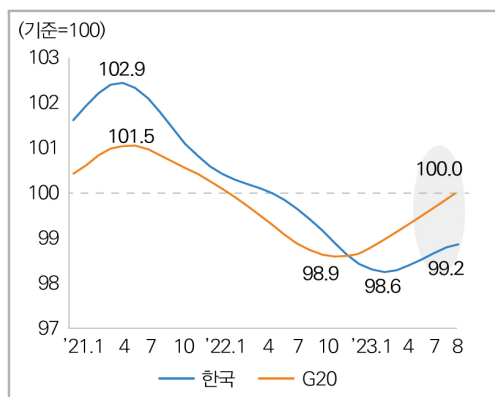
I. 동향

1. 경제 동향

□ 2023년 세계 경제는 저점 통과와 동력 부족으로 더딘 회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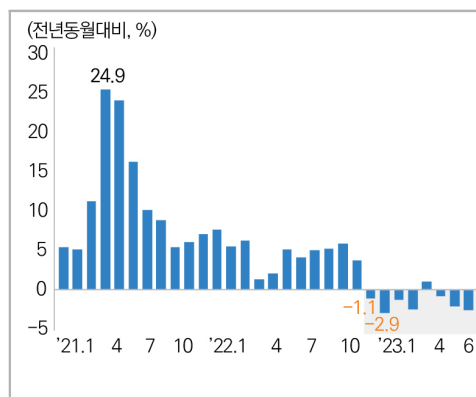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 안정 및 긴축정책 기조 완화로 불확실성은 감소했으나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경기둔화가 초래
- 주요 국제기구는 2022년→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 IMF(3.5% → 3.0%), 세계은행(3.1% → 2.1%), OECD(3.3% → 2.7%)
-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OECD 경기선행지수(CLI)를 살펴보면, 세계 교역량 축소 등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이후 경기하락세를 보임
 - 우리나라도 2022년 5월 최고점(102.9)을 나타낸 뒤 지속적으로 하락세
- 세계 무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2022년 10월까지 평균 7~8%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감소 전환 뒤 감소세 지속
 -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교역 증가량이 2023년에는 1.7%, 2024년에는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

OECD 경기선행지수



주: 100p 이상 경기상승세, 이하 경기하락세 예상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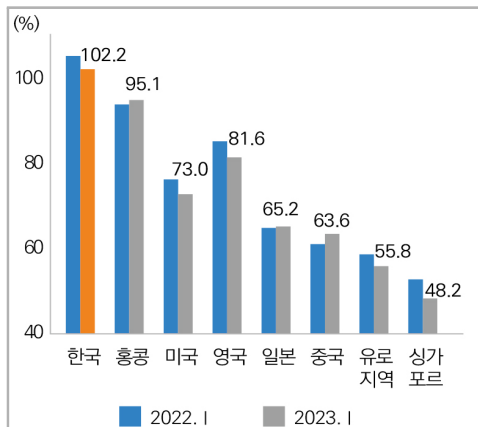
세계 교역량



자료: CPB WORLD TRAD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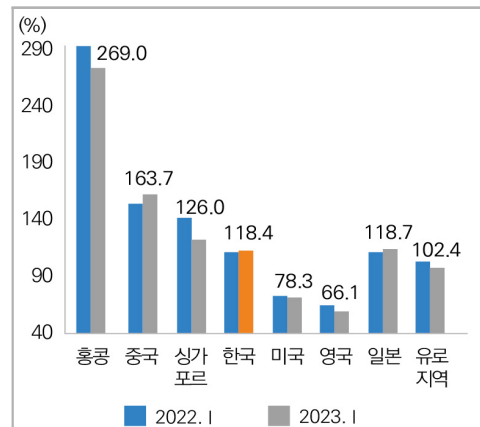
- 물가상승률은 2022년에 비해 상승압력이 2023년에 다소 낮으나 2021년에 비해 아직 높음
 - IMF는 2023년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022년에 비해 1.7%p 낮은 7.0% 예상, OECD는 2022년 9.4%에서 2023년 6.6%로 하락할 것을 전망
- 금리상승 추세와 폭이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황을 어렵게 하고, 특히 저소득국가 및 신흥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와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 비교 시, 한국의 가계 부채비율이 102.2%로 조사대상 35개국 중에 2년 가까이 가장 높은 수준 유지
 - 국내총생산 대비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은 2023년 1분기 기준 118.4%로, 홍콩(269.0%), 중국(163.7%), 싱가포르(126.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음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GDP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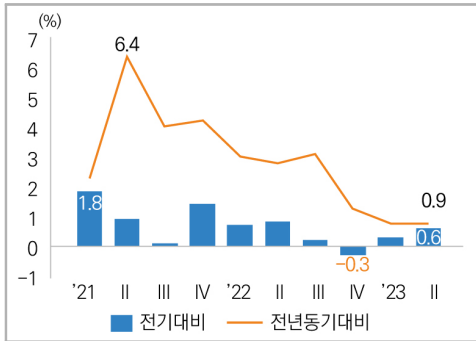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 2023년 국내 경제는 수출이 부진하고 제조업이 위축된 가운데 소비가 성장을 견인

- 상반기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개선과 서비스업 호조에도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둔화 흐름 지속
 - 실질GDP 성장률은 2022년 상반기엔 전년동기대비 3.0%를 나타냈으나 2023년 상반기에는 0.9%로 나타남
 - 경기지표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최근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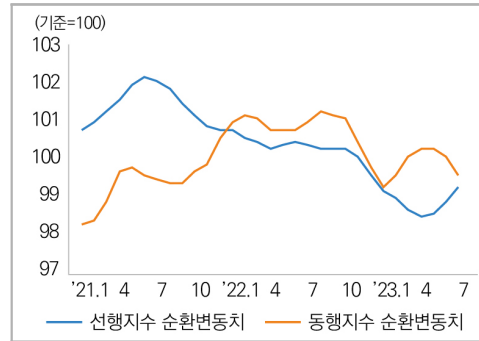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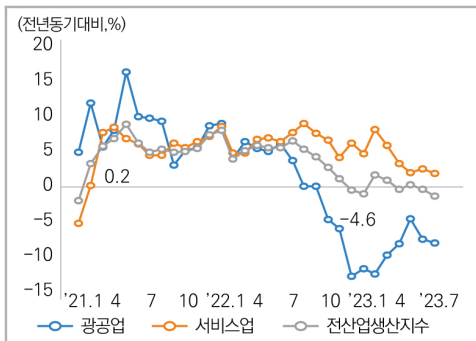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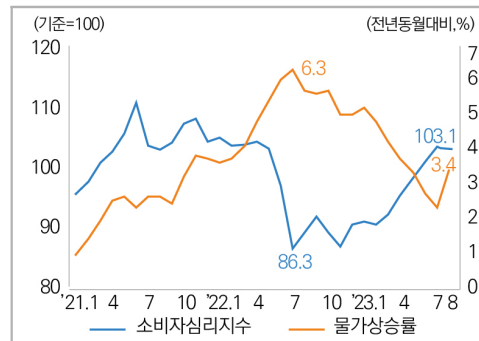
- 수출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불황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입도 같은 기간 중 증가율이 하향
 - 무역수지 적자 폭은 감소하였고 최근 3개월 연속 수입 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수입 감소 22.8%, 수출 감소 8.4%)를 나타냄
- 생산부분에 있어서 전산업생산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광공업 생산의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의 견인으로 하락폭이 완화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상반기에는 하향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 8월에는 다시 3.4%로 반등
 - 소비자심리지수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상승 전환하여 2023년 6월에는 기준선인 100을 회복, 2023년 8월에는 103.1을 나타냄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및 소비자심리지수



주: 소비자심리지수가 1000상이면 낙관적, 1000이하면 비관적
자료: 통계청

2. 산업 동향

가. 글로벌 통상환경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전 세계적 불확실성의 확산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무역과 국가안보가 연계 되는 추세가 대두
- 기존 공급망은 지경학적 분열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진행되고 있으며, 분열된 공급망은 정치경제적 우호국 간 동맹을 중심으로 재편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반도체와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EU의 「핵심원자재법 (CRMA)」, 「탄소중립산업법 (NZIA)」 등 자국 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제고를 우선시하는 산업정책들로 실체화

□ 안정적 공급망 및 시장 확보가 당면 과제

- 우리나라 선도기업들의 비교우위 수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전제조건
 - 세계 주요 시장의 규제조건에 부합하는 공급처 확보 필요
- 생산한 제품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안정적 시장 개발 필요
 - 기체결된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검토 필요

나. 원자재 수급 동향

□ 원자재 가격이 2022년 하반기 이후 등락을 보이며 하락세

- 원자재 가격은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전환,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 세계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 등으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202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
 - 다만 중국 정부가 2022년 말 위드코로나 정책을 전환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2023년 1분기 원자재 가격은 다소 상승
- 2023년 2분기 이후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부진이 심화되고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
 - 곡물가격도 인도의 수출금지로 상승세를 보이는 쌀을 제외하고 하향 안정세



□ 향후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고환율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원유가격이 OPEC+의 감산 지속으로 다소 상승하면서 최근 유가 전망치가 상향되었으나 대부분의 원자재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최근 원자재 가격이 2022년 2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원달러 환율이 2023년 1~7월 동안 1,300원대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국내 원자재 수입 가격과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다. 주요국의 그린전환 정책

□ 친환경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 2023년 2월에 발표된 유럽의 「그린딜 산업계획」은 2019년 제안된 그린딜의 일환으로, 2050년 넷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보조금 규제 완화, EU 차원의 공동 기금 조성 등을 포함
 - 기후중립 전환과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대체연료인프라규정」 등을 제정, 「역외보조금규정」의 운영계획을 발표
 - 그린전환 관련하여 EU는 역외거래에도 2023년 10월부터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적용
- 그린전환 관련해서 미국의 관련 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법)」이 있음
 - IRA는 미국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기술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발표한 산업정책 중 하나
 - 친환경 관련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투자 지원 정책, 공급망 전반에 걸친 재생에너지 촉진과 기후변화 대응책이 포함
- 주요국의 탄소무역장벽 도입은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기업들의 부담 가중
 -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이 영향을 받음
 -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분야의 국내기업 부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
 - 2024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자원안보 핵심자원' 관련 투자는 확대, 그린전환 관련 핵심산업 R&D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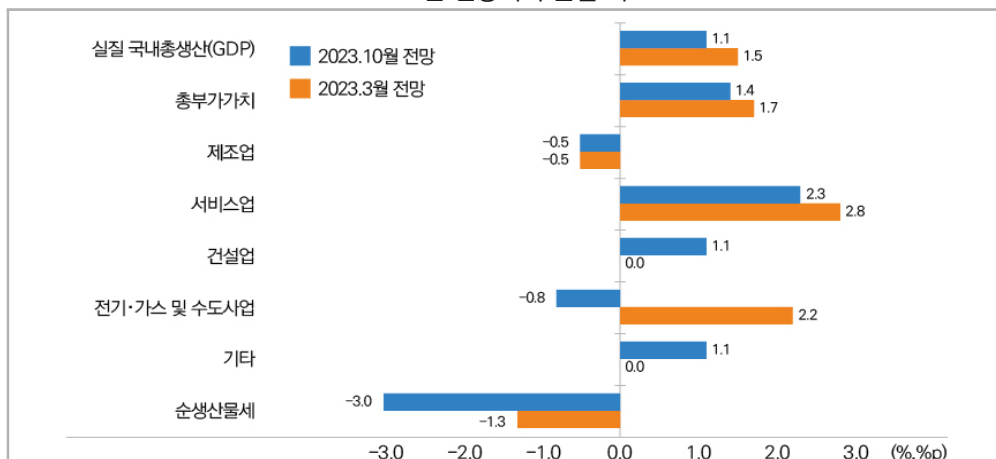
II. 생산 부문별 전망

1. 경제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2023년 총부가가치(1.4%)는 지난 3월 전망치(1.7%)대비 0.3%p 하향 전망

- 제조업(-0.5%)은 상반기 제조업 부가가치 실적치가 3월 전망 대비 0.3%p 높게 나타났으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와 수요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반도체 수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3월 전망(-0.5%) 수준을 유지
- 서비스업(2.3%)은 2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큰 폭(-3.9%)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계부채(GDP의 102.2% 수준)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하락하여 소비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3월 전망치(2.8%)보다 0.5%p 하향 조정
- 건설업(1.1%)은 상반기 부가가치 실적치(5.2%)의 예상 밖 호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 등이 감소하고, 하반기 중 공공투자도 부진해 3월 전망치(0.0%) 대비 1.1%p 상향 조정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0.8%)은 상반기 중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생산활동 부진으로 부가가치 실적치(-5.6%)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중 수요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3월 전망치(2.2%) 대비 3.0%p 하향 조정

2023년 전망의 부문별 비교





2. 제조업

□ 2024년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대비 증가로 전환될 전망

- 2023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대비 0.5% 감소할 전망
 - 2023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2.0%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수출이 차츰 개선되며 1.0% 증가할 전망
 - 고물가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와 반도체 등 IT산업 관련 수출 감소, 내수 및 수출 출하의 동시 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 등 하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경제 개선 효과, 부동산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 회복 지연
- 2024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는 2023년의 기저효과에 더해 세계 교역량 증가,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 회복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며 2023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
 -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대,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IT산업의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회복 전망 등은 상방 요인
 - 그러나 중국경제의 부동산발 불확실성 확대로 대중국 수출 회복 지연, 금융 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부진의 지속 가능성 증대, 자원의 무기화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에 따른 원자재가격과 국제유가 불안, 미·중 중심으로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해외생산 확대 등 하방요인이 상대적으로 우세해 제조업 생산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
- 2023~2027년 기간 중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2.0% 증가할 전망
 - 지난 5년(2018~2022)간은 2019년의 낮은 성장과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성장이 발생하여 연평균 2.3% 증가
 - 향후 5년(2023~2027)은 지난 5년보다 0.3%p 낮은 증가율이 전망되는데, 2023년에서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대중국 수출 개선세 약화로 저성장하고, 2024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차츰 회복되며 2025년 정점을 기록한 후, 우리 산업의 성숙화로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며 2% 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3. 서비스업

□ 2024년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보다 증가세 둔화 전망

- 2023년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9%p 감소한 2.3%에 이를 전망
 -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로 소비와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물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의 증가 등에 기인
- 2024년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년대비 0.3%p 낮은 2.0% 증가할 전망
 - 다만, 올해부터 허용된 중국인 단체관광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외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운수업, 숙박업 등에서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3~2027년 기간 중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연평균 2.6% 증가할 전망
 - 이는 지난 5년(2018~2022)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0.3%p 감소한 전망치로 서비스 수요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데 기인

4. 건설업

□ 2024년 건설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5% 증가할 전망

- 2023년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1% 증가할 전망
 - 2023년 상반기 중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이 증가하여 5.2%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중 민간 건축투자 위축 및 정부 SOC의 부진으로 2.3% 감소할 전망
 - 상반기 중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분양물량 조정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요 회복의 징후가 포착되나, 하반기 중에도 일부 건설자재(시멘트, 레미콘)의 가격이 여전히 높고, 고금리와 PF 대출 등 건설시장의 자금 경색, 미분양 사업장 증가 등 복합적인 하방압력이 작용할 전망
- 2024년 건설업의 실질부가가치는 2023년(1.1%)에 비하여 0.4%p 증가한 1.5% 증가할 전망
 - 2023년 대비 증액된 SOC 예산과 2024년 하반기 이후 건설시장 자금경색이 완화될 것을 고려하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의 건설경기 전반의 저조한 지표들은 성장이 제한적일 것을 시사
 - 2024년 우리경제 전반의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 또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23~2027년 건설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연평균 1.4% 증가 전망
 - 지난 5년(2018~2022년)의 평균 증가율인 -1.6%보다 3.0%p 높은 수준
 - 지난 5년은 코로나19의 영향과 전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하여 역성장하였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와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1%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2024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부가가치는 0.7% 증가할 전망

- 2023년 상반기에는 에너지 요금 상승분 반영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부진한 성장률(-5.6%)을 보임
 - 2023년 전기요금은 1분기에 13.1원/kWh로 전분기 가격 인상폭(7.4원/kWh)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 2분기에도 8원/kWh를 추가로 인상
 - 경기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산업용 전력수요가 둔화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전력 소비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24년 전기·가스 수도사업 실질부가가치는 2023년 대비 0.7% 증가 전망
 - 2023년 상반기(-5.6%)에 대한 기저효과와 제조업 생산 회복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며, 2023년 대비 0.7% 증가할 전망
 - 그러나 IT 업종의 회복 등으로 국내기업의 수출 및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냉방수요 및 겨울철 기온하락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와 추가적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또 다른 상방 요인이 될 수 있음
- 2023~2027년 기간 중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연평균 1.2%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인 2.2%보다 1.0%p 낮은 수준
 - 2023년 이후에는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변동성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부가가치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



[제 I 부 동향]

제1장 경제 동향	3
제2장 산업 동향	13

[제 II 부 2024년 및 중기 전망]

제1장 경제전망의 수정 요인	41
제2장 제조업	45
제3장 서비스업	62
제4장 건설업	75
제5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81



BOX 차례

[BOX 1]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성장기여율 분석	11
[BOX 2] 정부 제출 2024년 환경분야 예산	34
[BOX 3] 탄소중립 관련 철강분야 R&D 지원 현황	36



[제 I 부]

[표 I-1] 주요 기관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4
[표 I-2] 국가별 시장성 지표	16
[표 I-3] 에너지 가격 동향	18
[표 I-4] 비철금속가격 동향	20
[표 I-5] 농산물가격 동향	22
[표 I-6] IRA 에너지 및 기후변화 목표 및 프로그램	32
[표 I-7] 환경분야 프로그램 단위 예산	34
[표 I-8] 철광 탄소중립 R&D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36
[표 I-9] 주요국 탄소중립 지원 정책	36

[제 II 부]

[표 II-1] 2023년 생산국민소득 전망 차이 비교	43
[표 II-2] 2023년 생산국민소득 전망(구성비) 비교	44
[표 II-3] 가공단계별 수출, 증감률 및 비중	50
[표 II-4]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54

[제 I 부]

[그림 I -1] OECD 경기선행지수	4
[그림 I -2] 세계 교역량	5
[그림 I -3]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5
[그림 I -4]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6
[그림 I -5]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7
[그림 I -6] GDP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	7
[그림 I -7] 실질 GDP 성장률 추이	8
[그림 I -8] 경기종합지수	8
[그림 I -9] 우리나라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	9
[그림 I -10]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10
[그림 I -11] 소비자물가 및 소비자심리지수	10
[그림 I -12]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분석	12
[그림 I -13]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 분석	12
[그림 I -14] 외국인직접투자의 분열화	14
[그림 I -15]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14
[그림 I -16]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국 수입 의존도	15
[그림 I -17] 역내 경제 안보 협의체	16
[그림 I -18] 에너지 가격 추이	18
[그림 I -19] 비철금속가격지수 추이	20
[그림 I -20] 농산물지수 추이	22
[그림 I -21] 가공단계별 수입 추이	23
[그림 I -22] 원유 수입 추이	23
[그림 I -23] 천연가스 수입 추이	24
[그림 I -24] 석탄 수입 추이	24
[그림 I -25] 알루미늄 수입 추이	24
[그림 I -26] 구리 수입 추이	24
[그림 I -27] 철광석 수입 추이	24



[그림 I -28] 니켈 수입 추이	24
[그림 I -29] 옥수수 수입 추이	25
[그림 I -30] 대두 수입 추이	25
[그림 I -31] 소맥 수입 추이	25
[그림 I -32] 쌀 수입 추이	25
[그림 I -33] 상품 및 서비스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26
[그림 I -34] 공산품 상품별 생산자물가상승률 추이	26
[그림 I -35] EU 「배터리법」 주요 내용	29
[그림 I -36] EU 'Fit for 55'의 12개 입법안	30
[그림 I -37]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31
[그림 I -38] 미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책	31
[그림 I -39] 대 주요국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33
[그림 I -40] 주요국의 GDP대비 제조업 비중	33

[제 II 부]

[그림 II-1] 2023년 전망의 부문별 비교	43
[그림 II-2] 2023년 3월 전망과 9월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44
[그림 II-3] 월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47
[그림 II-4] 제조업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증감률 추이	48
[그림 II-5] 대미·대중국 수출액 및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추이	49
[그림 II-6] 분기별 제조업 생산	51
[그림 II-7] 월별 제조업 생산	51
[그림 II-8] 분기별 출하 및 재고	51
[그림 II-9] 월별 출하 및 재고	51
[그림 II-10] 분기별 내수 및 수출 출하	52
[그림 II-11] 월별 내수 및 수출 출하	52
[그림 II-12] 제조업 재고율 및 증감률	53

[그림 II-13] 분기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53
[그림 II-14] 월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53
[그림 II-15]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55
[그림 II-16] 중기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60
[그림 II-17] 제조업 실질부가가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61
[그림 II-18]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예측치	61
[그림 II-19]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추이	63
[그림 II-20] 서비스업 업종별 부가가치 증감 현황(2023년 상반기)	64
[그림 II-21] 도소매업 산업생산지수 추이	64
[그림 II-22] 도소매 재고액지수 추이	64
[그림 II-23] 숙박음식업 산업생산지수 추이	65
[그림 II-24] 관광객 추이	65
[그림 II-25] 운수업 산업생산지수 추이	65
[그림 II-26] 유가와 원달러 환율 추이	65
[그림 II-27] 금융보험업 산업생산지수 추이	66
[그림 II-28] 생명보험 상품 판매 추이	66
[그림 II-29]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산업생산지수 추이	67
[그림 II-30] 공연티켓판매액 추이	67
[그림 II-31]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68
[그림 II-32]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추이	69
[그림 II-33] 주요 면세점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69
[그림 II-34] 세계 전기차 판매량 전망	70
[그림 II-35] 전기승용차 예산 및 지원대수 추이	70
[그림 II-36] 은행기관과 비은행기관의 대출잔액 추이	71
[그림 II-37] 은행 대출잔액 증감 추이	71
[그림 II-38]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71
[그림 II-39] 서비스 업종별 생산자물가상승률 추이	71
[그림 II-40] 중기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72



[그림 II-41]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73
[그림 II-42]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예측치	74
[그림 II-43] 부문별 실적지수	76
[그림 II-44] 건설용 원재료 국내 공급물가지수	77
[그림 II-45] 용도별 건축착공 현황	77
[그림 II-46] 건설 종합전망지수	77
[그림 II-47]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77
[그림 II-48]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78
[그림 II-49] 중기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79
[그림 II-50] 건설업 실질부가가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80
[그림 II-51]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예측치	80
[그림 II-52]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2022년 기준)	82
[그림 II-53] 업종별 산업생산 지수 추이	83
[그림 II-54] 석유제품 수입가격 추이	83
[그림 II-55] 용도별 판매전력량	83
[그림 II-56] 전기요금 인상 추이	83
[그림 II-5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84
[그림 II-58] 부문별 에너지 최종소비 추이	85
[그림 II-59] 에너지 원별 최종소비 추이	85
[그림 II-60] 난방도일(18℃) 추이	85
[그림 II-61] 냉방도일(24℃) 추이	85
[그림 II-62] 중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86
[그림 II-6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부가가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87
[그림 II-6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부가가치 예측치	87

I 동향

제1장 경제 동향

제2장 산업 동향



경제 동향

제1절 대외 동향

- **2023년 세계 경제**는 저점 통과와 동력 부족으로 더딘 회복 예상
 - 인플레이션 안정 및 긴축정책 기조 완화로 불확실성은 감소
 - 고금리와 경기침체 국면이 연장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

2023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경기둔화가 초래되었고 금융권 위기, 기술패권 관련 무역 갈등 및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제 회복세가 지연되거나 일부 제한적인 성장세가 유지되었다. 우리나라 경제도 수요 감소 및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이 감소하며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요 국제기구의 최근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비교하면 2022년보다 저조한 수치를 보여준다. IMF는 2023년 3.0%로 2022년 3.5%에 비하여 0.5%p 낮아질 것으로, 세계은행은 3.1%에서 2.1%로 1.0%p 낮아질 것으로, OECD는 3.3%에서 2.7%로 0.6%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는 2023년에 선진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4.6%)과 경기위축(2022년 2.7%→2023년 1.5%)이 예상되지만, 상반기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 은행권의 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관련 당국의 조치로 부정적 리스크가 완화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서 긴축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기에 내수가 다시 회복력을 보일 수 있다고 보았다.¹⁾ 신흥국은 개방에 따른 중국경제 재개 및 그로 인한 경기회복의 영향과 신흥국과 개도국의 부채 문제, 지리 경제적 파편화에

김윤희 경제분석관(yunhee.kim@assembly.go.kr, 6788-4679)

권 일 경제분석관(kwonil@assembly.go.kr, 6788-4677)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5, 2023.

따른 무역 제한 강화 가능성 등이 혼재하는 가운데 향후 경제의 전망은 유지(2022년 4.0%→2023년 4.0%)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세계은행은 다른 기관들보다 세계 경제의 경기위축 폭(2022년 3.1%→ 2023년 2.1%)이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신흥국의 경기회복(+0.3%p) 기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큰 경기위축 폭(-1.9%p)에 기인한다.²⁾ OECD는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긴축 과정에서의 금융시장·신흥국 불안, 에너지 위기 재점화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2023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2.7%로 둔화(2022년, 3.3%)되고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경제정책으로 인해 2.7%로 유지될 것을 전망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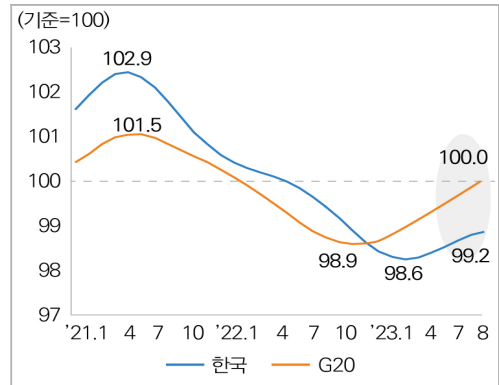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OECD 경기선행지수를 살펴보면, 세계 교역량 축소, 중국회복세 약화 등의 영향으로 G20 국가의 경우 2021년 하반기 이후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OECD의 G20 국가에 대한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6월 101.5p로 최고점을 나타낸 뒤, 최근까지 100p 미만을 나타내며 경기하락세를 전망하고 있다. 2022년 4월에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뒤 2023년 2월에는 98.6으로 최저점을 나타내었지만, 최근에는 하락폭이 완화된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2년 5월 최고점(102.9)을 나타낸 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준 뒤 더딘 성장세를 나타낸다.

[표 I-1] 주요 기관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주요 기관	2022	2023f	2024f	2025f
IMF(23.7월)	3.5	3.0	3.0	-
(선진국)	2.7	1.5	1.4	-
(신흥국)	4.0	4.0	4.1	-
세계은행(23.6월)	3.1	2.1	2.4	3.0
(선진국)	2.6	0.7	1.2	2.2
(신흥국)	3.7	4.0	3.9	4.0
OECD(23.9월)	3.3	2.7	2.7	-

주: 세계 경제성장률 산출 시 IMF와 OECD는 PPP (Purchasing Power-Parity) 환율, 세계은행은 시장환율 적용
자료: 각 기관

[그림 I-1] OECD 경기선행지수



주: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의 경기흐름을 예측, 지수가 100p를 넘으면 경기상승세, 하회하면 경기하락세 예상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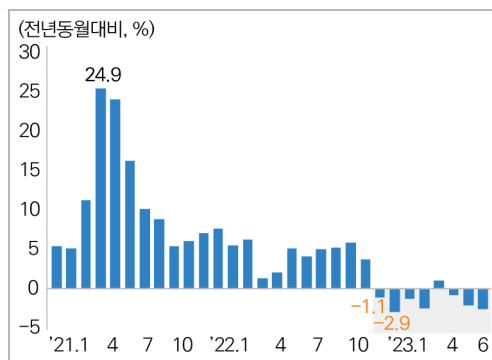
2)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6, 2023.

3)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3: Confronting Inflation and Low Growth*, OECD Publishing, September 19, 2023.

세계 교역량은 2022년 10월까지 평균 7~8%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인한 수입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 11월 -1.1%로 감소 전환되었고 12월에 전년 대비 -2.9%로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소비전환, 중국 회복세 약화 등으로 인해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세계교역이 부진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교역증가량이 2023년에는 1.7%, 2024년에는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⁴⁾ 글로벌 상품교역이 세계 경제 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나, 2023년 지정학적 불안정, 잠재적 식량 위기 및 각국의 긴축정책의 영향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하방 압박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하며 각국이 통상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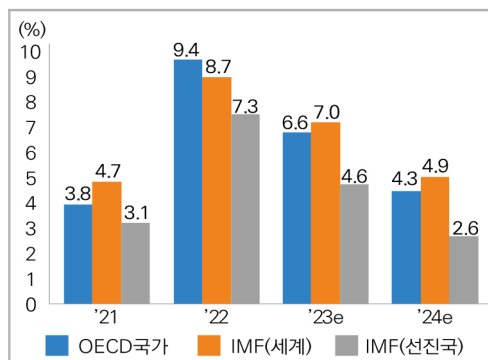
물가상승률의 경우 2022년 크게 확대되었던 상승압력이 2023년에 다소 누그러진 하였으나 2021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23년 7월 전망에서 IMF는 2023년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2년에 비해 1.7%p 낮은 7.0%가 될 것을 예상하였고, 선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2022년 7.3%에서 2023년 4.6%로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OECD는 2023년 6월 전망에서 에너지 가격 하락, 공급망 차질 완화 등으로 OECD 국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2년 9.4%에서 2023년 6.6%로 하락할 것을 전망하였다.⁵⁾ 그러나 세계 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되긴 하였지만 개선 흐름이 여전히 취약한(Fragile) 상태에 있으며 아직 하방 위험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림 I-2] 세계 교역량



자료: CPB WORLD TRADE MONITOR

[그림 I-3]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자료: IMF(2023), OECD(2023)

일반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정책 유지를 지속시

4) WTO,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Switzerland, WTO Publications, April 5,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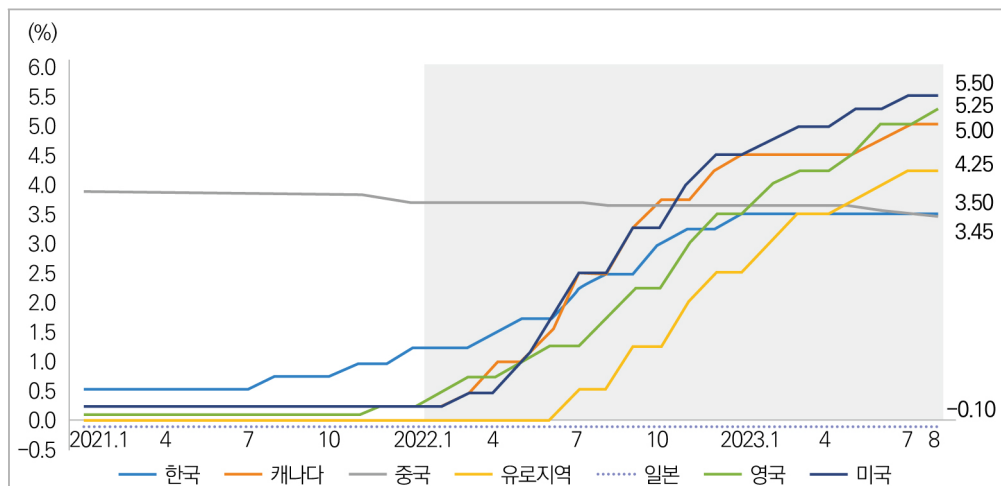
5)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3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June 2023.

키고 통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며, 자본유출 위험을 증대시켜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기에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3년 상반기까지 주요국들은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빠르고 크게 인상하는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특히 2022년에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의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급진적으로 인상하였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2022년 1월(0.25%)부터 2023년 8월까지 11차례 인상되어 현재 5.50%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도 2021년 12월 0.10%이었던 금리를 최근까지 연속적으로 인상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25%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 진화를 더욱 염두에 두고 지난해 7월 0.00%에서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현재 4.25%의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금리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심리를 억제하여 긴축효과가 있지만, 자금조달 비용상승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각국의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각 중앙은행은 향후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를 기존의 물가안정에서 부채와 경기 리스크 완화를 위한 경제 및 금융 안정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4]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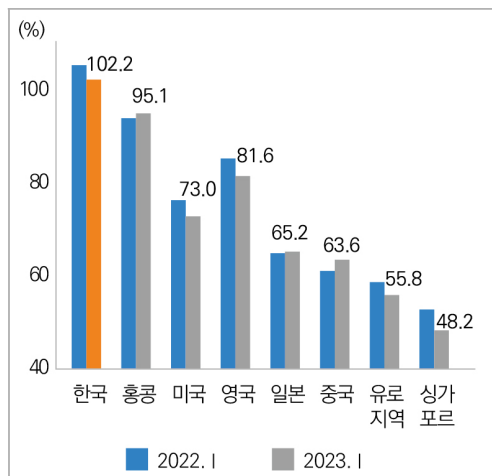
자료: 각국 중앙은행

2022년 1분기 이후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강세로 나타나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이런 금리상승 추세 및 금리상승 폭은 기업, 정부, 가계의 부채 상황을 어렵게 하며 특히 저소득국가 및 신흥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및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을 비교해 보면, 2023년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102.2%로 조사대상 35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에 가장 높았다. 이러한 상황은 2021년 2분기 이후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어 홍콩(95.1%), 미국(73.0%), 영국(81.6%), 일본(65.2%), 중국(63.6%), 유로존(55.8%) 및 싱가포르(48.2%)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국내총생산 규모를 초과한 가계부채를 보유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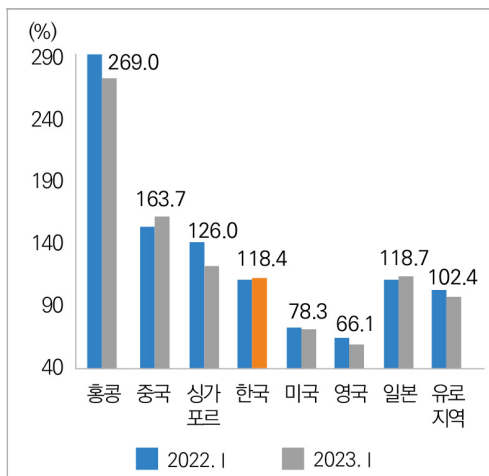
기업의 GDP대비 부채비율도 한국이 상위권이며 국내총생산 규모를 초과한다. 한국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은 2023년 1분기 기준 118.4%로, 홍콩(269.0%), 중국(163.7%), 싱가포르(126.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이는 2022년 1분기 수치(115.3%)와 비교해 3.1%p 증가한 것이다.

[그림 I-5]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그림 I-6] GDP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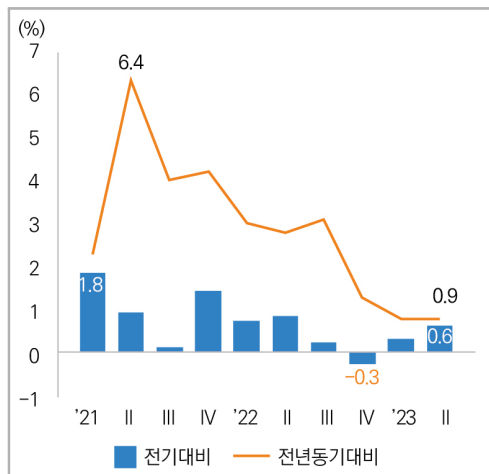
제2절 대내 동향

- **2023년 국내 경제**는 수출이 부진하고 제조업이 위축된 가운데 소비가 성장을 견인
 - 상반기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개선과 서비스업 호조에도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둔화 흐름 지속
 - 하반기에는 IT 경기 개선 등으로 수출 부진이 완화되며 경기 저점 통과

국내 경제의 경우 대외 여건 요인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수출부진이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음에도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나타났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22년 상반기엔 전년동기대비 3.0%를 나타냈으나 하반기 이후 수출부진, 교역조건 악화, 금리인상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2023년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0.9%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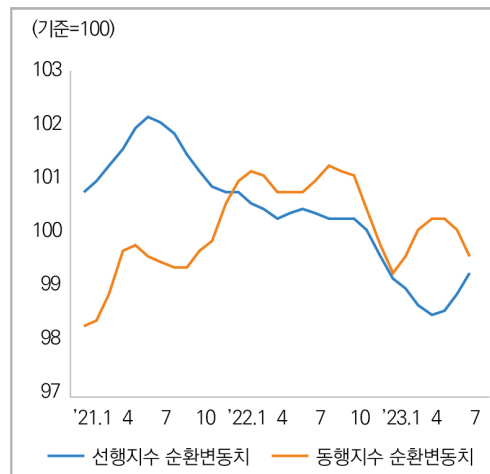
경기지표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인 이후 2023년 1월 99.3을 보이며 상승 전환하였으나 최근 100을 하회하고 있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7]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8] 경기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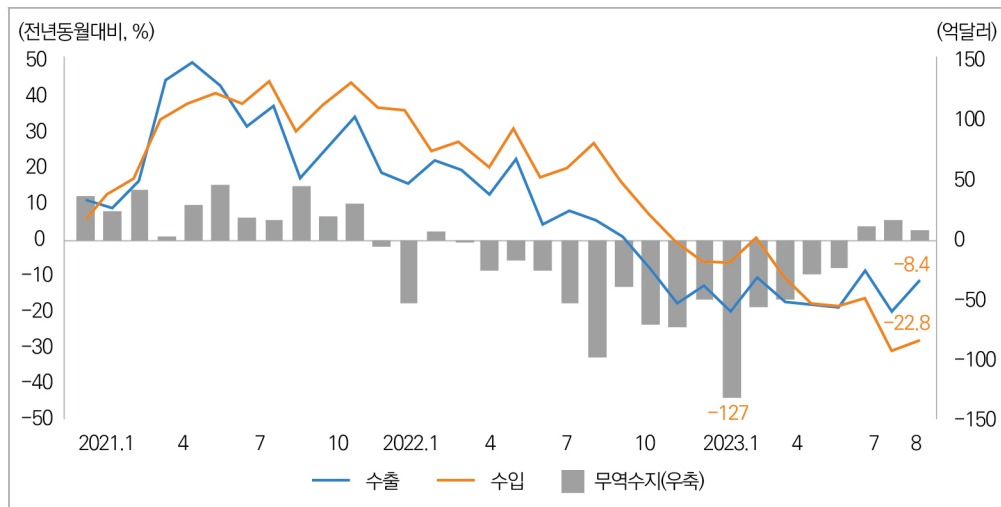


- 주 1.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 주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 어업취업자수

자료: 통계청

국내 경제에 영향이 큰 수출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불황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입도 같은 기간 중 증가율이 하향하였다. 수출은 2022년 중 3월(637.9억 달러)과 5월(615.9억 달러)에 각각 역대 수출 실적 1, 2위를 달성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10월 이후 세계 경기둔화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어 11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2023년 1월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가 127억 달러를 나타냈다. 수입은 같은 기간 에너지 가격과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폭은 감소하였고 최근 3개월 연속 수입 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수입 감소 22.8%, 수출 감소 8.4%)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9] 우리나라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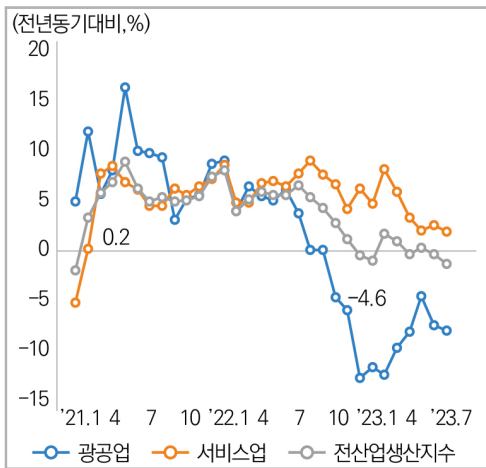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IT수요 회복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어 경제 여건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간소비 위축, 설비·건설투자 감소 등 주요 내수 부문의 부진이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둔화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의 확대로 회복세가 더딜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리스크 확대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대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도 주택경기 침체, SOC예산 감소 등의 하방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부분에 있어서 전산업생산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광공업 생산의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의 견인으로 하락폭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광공업의 경우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영향에도 반도체 등 IT 수요부진과 공급 리 현상으로 인한 세계 경기위축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2022년 10월(-4.6%)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반면 서비스업은 2021년 2월(0.2%) 이후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증가율 추세를 보여주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성장률을 견인하는 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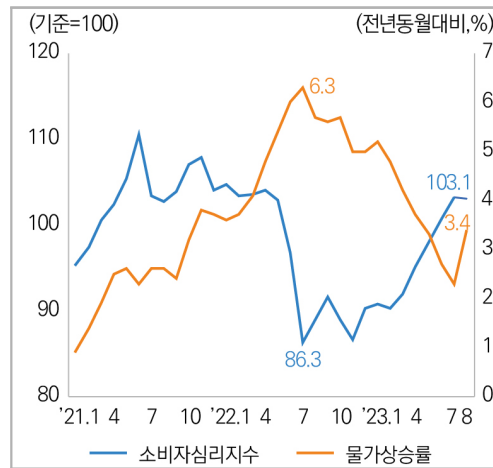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보다 높아지면서 2021년에는 2.5%, 2022년에는 5.1%를 나타내었다. 2023년 상반기에는 하향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 8월에는 다시 3.4%로 반등하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고물가와 경기둔화가 겹치면서 2022년 7월 86.3을 나타내는 등 하반기에는 소비심리가 위축되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상승 전환하여 2023년 6월에는 기준선인 100을 회복하였고 2023년 8월에는 103.1을 보여주었다.

[그림 I-10]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I-11] 소비자물가 및 소비자심리지수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100 이상이면 낙관적 소비심리, 100 이하면 비관적 소비심리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BOX 1]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성장기여율 분석

경제성장률은 시계열자료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간별 비교 시 그 변동이 어떤 요인에 의해 얼마만큼 변동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변동률을 계산하기 위해 성장기여도와 성장기여율을 고려하며, 전체 경제성장률 대비 구성 요소(경제활동,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와 성장기여율을 계산할 수 있다. 성장기여도 및 성장기여율 분석은 생산 측면과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도 가능하다. 지출항목인 소비, 투자, 수출 등을 고려하여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및 기여율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성장기여도는 전년도(기준년) 가격 국내총생산에 대한 경제활동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액의 백분위로 계산한다. 국내총생산은 각 산업부문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국내총생산의 변동률에 대한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 합계는 국내총생산의 변동률과 일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 i 업종의 j 시기의 성장기여도(%p)를 계산하려면, i 업종의 j 기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과 i 업종의 $(j-1)$ 기 명목 부가가치의 곱을 $(j-1)$ 기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누면 된다.

$$i \text{업종 } j \text{기 성장기여도}(\%p) = \frac{\Delta \text{실질 부가가치}_{i,j} \times \text{명목 부가가치}_{i,j-1}}{\text{명목 } GDP_{j-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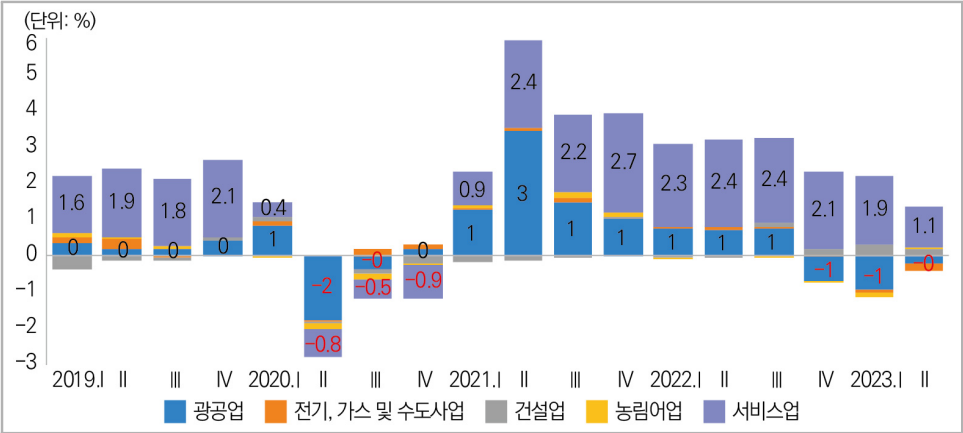
성장기여율은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활동별 기여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액에 대한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각 구성요소 기여율의 합계는 100이 된다. 예를 들어, i 업종의 j 시기의 성장기여율(%)을 계산하려면, i 업종의 j 기 성장기여도를 j 기의 실질GDP 성장률로 나누면 된다.

$$i \text{업종 } j \text{기 성장기여율}(\%) = \frac{\text{성장기여도}_{i,j}}{\text{실질 } GDP \text{성장률}_j} \times 100$$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와 국내총생산 자료를 가지고 성장기여도와 성장기여율을 계산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초기 음(-)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제조업(광공업)이 컸지만, 점차 회복되었으며

2021년 이후엔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최근까지의 양(+)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광공업)의 경우 2022년 4분기 이후 음(-)의 기여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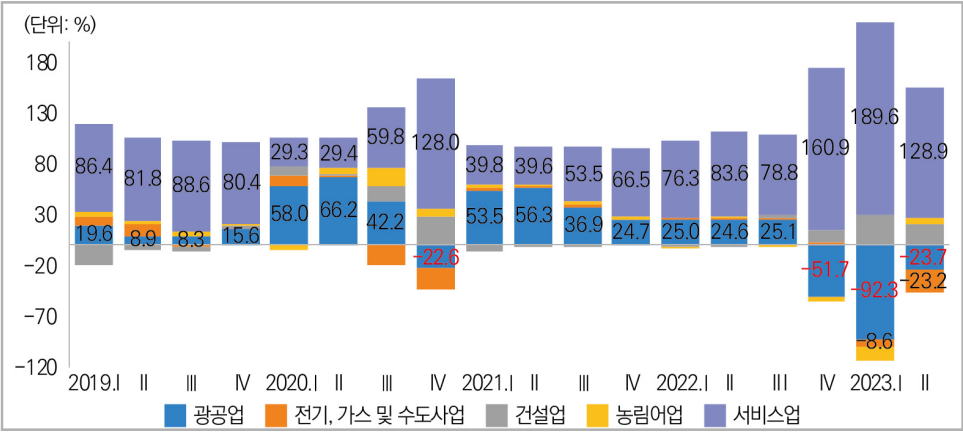
[그림 I-12]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분석



자료: 한국은행

2023년 1, 2분기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을 비교하면 광공업 (-92.3%→-23.7%)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8.6%→-23.2%)이 음(-)의 기여율을, 서비스업(189.6%→128.9%)은 양(+)의 기여율을 보여준다.

[그림 I-13]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 분석



자료: 한국은행

산업 동향

제1절 글로벌 통상 환경

- 2023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기존의 WTO 체제의 질서는 흐트러지며 **지경학적 분열화**가 진행되고 있음
- **공급망과 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당면 과제

미·중 갈등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경제 둔화 등 최근 전 세계적 불확실성의 확산은 자국 우선주의와 국가안보 문제로서 무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대두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구축되었던 기존의 공급망은 지경학적 분열화(Geoeconomic Fragmentation)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렇게 분열된 공급망은 정치경제적 우호국 간 동맹 중심으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와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등 자국 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제고를 우선시 하는 산업정책들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수출의존도와 글로벌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소규모개방경제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의 공급망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분명하지만, 그 이전부터도 세계화의 속도는 자동화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둔화되고 있었다.⁶⁾ 그러나 최근 지정학적 긴장의 상승과 자국 우선의 산업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공급망 재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직전부터 아시아 지역으로의 전략적 투자⁷⁾는 감소하고 있다가 최근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

김용균 경제분석관(kimyk0909@assembly.go.kr, 6788-4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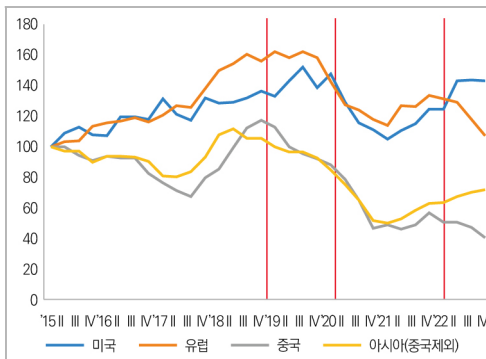
6) Alonso, C., Berg, A., Kothari, S., Papageorgiou, C., and Rehman, S., "Will the AI Revolution Cause a Great Divergenc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27: 18-37, 2022.

7) IMF WEO Online Annex Table 4.1.5.에 명시되어있는 부문으로 기초화학, 가전, 전자, 일반기계 등을 포함한다.

면, 미국과 유럽으로의 최근 전략적 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22년 4/4분기 기준, 유럽으로의 전략적 투자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의 두 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략적 투자처에 대한 의사결정 요인들이 변하였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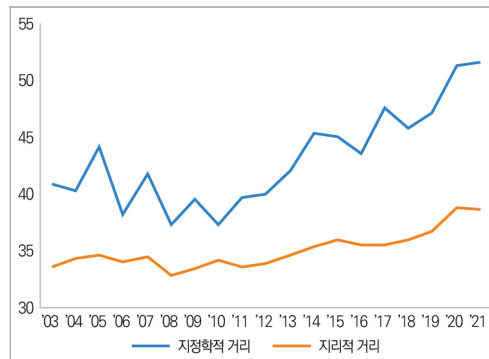
세계 경제의 변화된 흐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분절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공급망이 회복되는 대신 정치경제적 우호국 간의 동맹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국가들보다는 지정학적 거리⁸⁾가 가까운 국가들에 대하여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시되며 빠른 속도로 세계화가 이루어지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는 국가 간 상호연관성이 심화되며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원활한 교역을 위해 갈등을 억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치경제적 도구로 활용되는 위험성이 더 강조되는 세계적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그림 I-14] 외국인직접투자의 분열화



주: 2015년 1/4분기=100
자료: IMF (2023)

[그림 I-15]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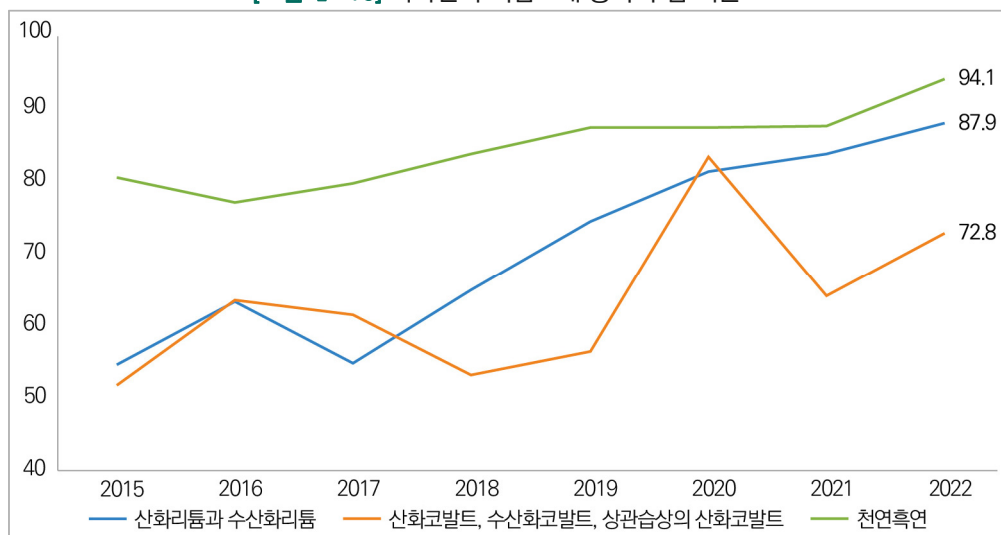
주: 미국과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근접한 국가와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자료: IMF (2023)

WTO 체제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각 국가가 자국의 경제적 안보의 관점에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도기업들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특히,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이 첨단분야의 핵심 제품에 있어 안정적이며, 주요시장의 규제조건에 부합하

8) 지정학적 거리는 2017년의 Bailey, M., Strezhnev, A. and Voeten, E., "Estimating Dynamic State Preferences from United Nations Voting Data,"에서 사용하는 '이상점 거리(ideal point distance)'를 말하며 이는 UN 총회에서 투표성향의 동질성에 기반한다.

는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전제 사안이다. 이차전지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핵심소재의 압도적 비중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천연흑연,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는 각각 94.1%, 87.9%, 72.8%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미국과 EU가 핵심소재의 원산지에 대한 규제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기에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향후 선도기업의 입지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림 I-16]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국 수입 의존도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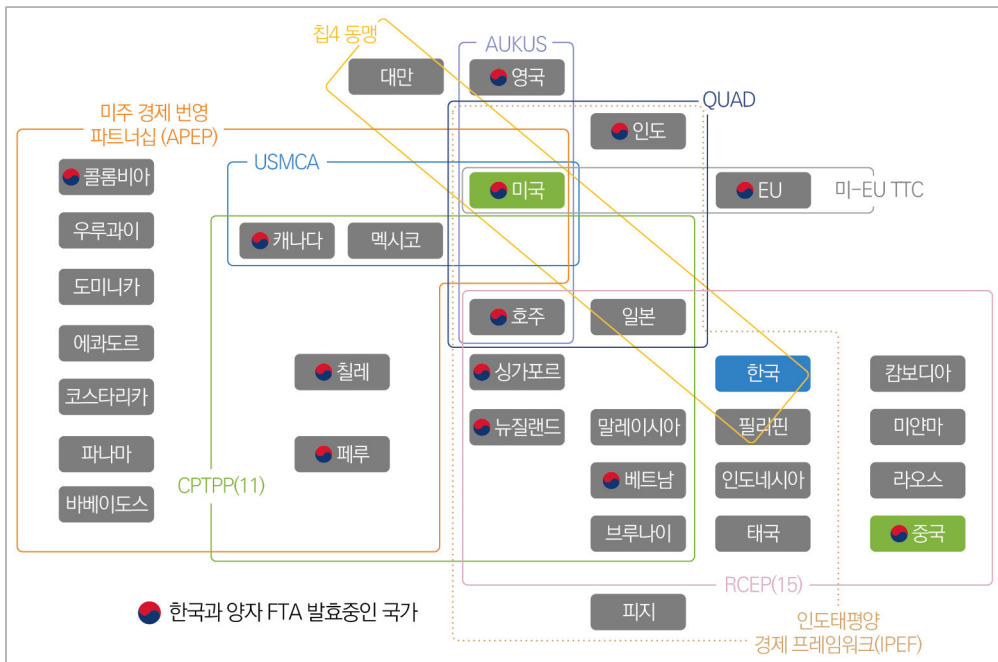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공급망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시장 확보의 문제이다. 미국과 EU는 현재 중국경제에 대한 견제를 명시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국시장으로부터 이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면서 시장의 규모와 해당 시장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시장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 광물, 반도체 등을 전략물자로 인지하고 무역을 안보와 연계하는 현재의 추세에서 이러한 시장의 개발 노력에는 기체결된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향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활발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표 I-2] 국가별 시장성 지표

순위	국가	인구 (백만명)	1인당GDP (달러)	대세계수입 (억 달러)
1	인도	1,445	2,466	4,741
2	중국	1,409	12,970	21,550
3	미국	336	75,180	25,842
4	인도네시아	282	4,691	1,708
5	브라질	218	8,857	1,775
6	멕시코	133	10,948	4,459
7	일본	123	34,358	7,101
8	필리핀	116	3,597	1,083
9	베트남	102	4,163	2,591
10	튀르키예	89	9,961	2,316
11	독일	83	48,398	12,565
12	태국	70	7,631	2,388
13	영국	68	47,318	6,655

주: 인구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에서 27년까지 예상치의 5년 평균값을 사용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17] 역내 경제 안보 협의체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2절 원자재 수급 동향

- **원자재 가격**이 2022년 하반기 이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달러환율의 상승으로 국내 수입가격 하락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OPEC+의 감산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수요 둔화, 주요국의 긴축통화기조 유지, 곡물의 수급안정 등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

원자재 가격은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전환,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 세계 경기둔화에 대한 전망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2022년 하반기에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2022년 말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2023년 1분기 원자재 가격은 다소 상승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부진이 심화되고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2분기에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수출금지로 상승세를 보이는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국내 제품의 생산비용을 하락시켜, 일부 산업의 채산성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달러환율이 2023년 1~7월 동안 약 1,30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절에서는 주요 원자재의 가격 추이와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국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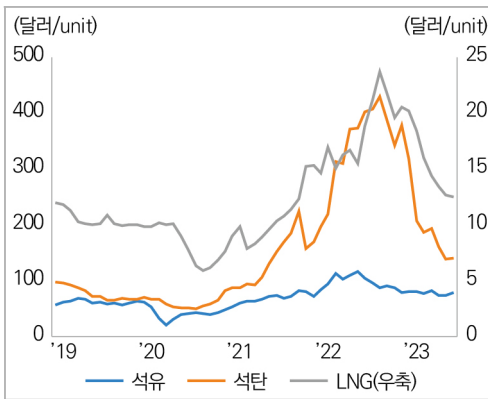
1. 원자재의 가격 추이

2022년 하반기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경기가 둔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2022년 6월 배럴당 116.8달러(Crude oil 평균 기준)에서 2023년 6월 배럴당 73.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다만 최근 들어 세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사우디의 감산이 연장되면서 국제유가는 2023년 7월 배럴당 79.0달러로 다소 인상되었다. 이에 주요 국제 기구들은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유가 전망치를 조정하였는데, IMF(2023년 8월)는 2023년과 2024년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각각 81달러로, 76달러로 상향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인덱스 지수(2010=100)가 2022년 8월

454까지 급등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온화한 겨울 날씨, 높은 가격으로 인한 수요 감소 및 발전원 대체, 중국의 수요부진 등으로 2023년 2분기 84.9까지 감소하였다.⁹⁾ 이에 따라 천연가스 대체재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크게 하락하였다. 석탄가격은 2022년 3분기 미터톤(천kg)당 413달러에서 2023년 2분기에 165달러로 60.1%, LNG 가격은 동기간 MMbtu당 21달러에서 13달러로 36.6% 감소하였다. 향후 석탄과 LNG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유연탄의 경우 2024년 말 톤당 112.2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이다.¹⁰⁾

[그림 I-18]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유가(배럴)는 두바이유, WTI, 브렌트유 평균치, 석탄 (mt)은 호주시장 기준, LNG(MMbtu)는 일본 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표 I-3] 에너지 가격 동향

(단위: 달러/unit, %)

	2022			2023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기 대비 증감률
석유	110	96	85	79	77	-3.1
석탄	352	413	370	238	165	-30.7
LNG	16	21	21	18	13	-25.9

주: 유가(배럴)는 두바이유, WTI, 브렌트유 평균치, 석탄 (mt)은 호주시장 기준, LNG(MMbtu)는 일본 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알루미늄의 경우 생산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중국과 유럽의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가격이 2022년 2분기 톤당 2,879달러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유가의 급락, 유럽지역의 수요 감소, 주요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산업용 금속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 중국의 제로코로나정책 실시 이후 경기부진과 알루미늄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2022년 4분기 2,336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22년 말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가뭄 및 전력배급 문제로 중국 알루미늄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윈난성의 알루미늄 생산이 2022년 4분기부터

9) 황유선,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의 안정세 지속 예상,”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23.5.24.

10)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가격예측, <<https://www.kores.net/komis/price/pricepredict/predicttrend/pricepredict.do>>, 접속 2023.9.7.)

2023년 1분기 동안 1/3 감소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알루미늄 원재료인 보크사이트 수출금지의 지속, 자동차 산업의 반등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2023년 1분기에 2,405달러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알루미늄 가격은 2023년 2분기에 톤당 2,266달러로 5.8% 하락하였다. 다만, 향후 알루미늄 가격은 수요가 다소 회복되면서 2024년 2분기에 2,390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다.¹¹⁾

구리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 및 경제지표 부진,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위축,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구리 가격은 2022년 2분기 톤당 9,985달러에서 3분기에 톤당 7,758달러로 하락하였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2023년 1분기 8,944달러로 상승하였으나 경기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2분기에 8,474달러로 하락하였다. 다만,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국영기업 Codelco의 광산 노후화, 비용 증가 등으로 공급에 차질을 보이면서 구리 가격이 다소 상승할 소지가 있다.¹²⁾

스테인레스 스틸, 전지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니켈은 2022년 2분기 가격급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반면 생산량은 증가하였다.¹³⁾ 이에 따라 니켈 가격이 2022년 2분기 톤당 28,951달러에서 2022년 3분기 22,104달러로 23.7% 하락하였다. 그러나 주요국의 자원확보 경쟁, 러시아산 니켈의 공급 차질¹⁴⁾, 중국의 자동차 배터리 생산 증가¹⁵⁾ 등으로 니켈 가격은 2023년 1분기에 톤당 26,070달러로 다시 상승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니켈 생산이 증가하고¹⁶⁾, 중국 스테인리스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재고가 늘면서 2023년 2분기에 톤당 22,366달러로 14.2% 하락하였다. 향후 니켈 가격은

11) 참고로 알루미늄 생산량 상위 5개국은 중국(57%), 인도(5%), 러시아(5%), 캐나다(5%), 아랍에미리트(4%)로,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남혜주, “인도의 알루미늄 생산과 가격 상승,” · KOTRA 해외시장 뉴스, 2022. 6)

12) 오정석,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국제유가, 중국궤 하방압력으로 방향성 탐색 국면 예상,” Monthly Report, 국제금융센터, 2023.9.

13) 니켈 광산 기업인 러시아 Norilsk사의 생산량이 2021년 상반기에 조금 차질로 부진하였으나 2023년에 26.1%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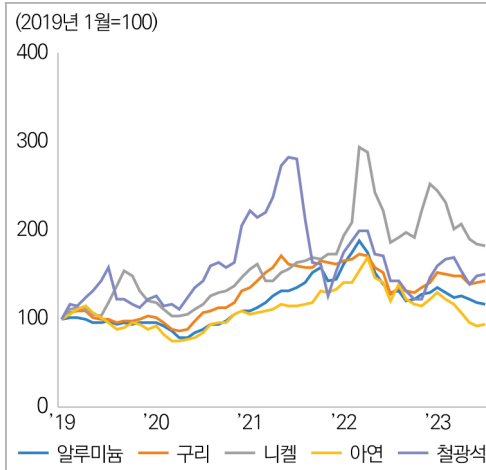
14) 세계 2위의 러시아 니켈 광산 기업인 Norilsk사는 핀란드 국영철도를 이용하여 핀란드에 위치한 니켈정광공장으로 니켈을 수송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송이 중단되었다. 참고로 러시아는 세계 니켈생산량의 5.3%를 차지하며 2020년 기준으로 니켈 수출량의 약 34%는 유럽으로, 5~6%는 미국으로 수출된다. (김희진·오정석, “국제원자재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국제금융센터, 2022.3)

15) 중국 자동차배터리산업연맹(CABIA)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배터리 생산은 2022년 12월에 전년동월 대비 65.9% 증가한 52.47GWh를 기록하였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15.8%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2년 4월 이후 처음 감소에 해당된다.

16) INSG에 따르면 2022년 세계조 니켈 광산생산은 전년대비 16.8% 증가한 약 316만톤을, 세계 정련니켈 생산은 전년대비 16.0% 증가한 약 302만톤을 기록하였다.

2024년 2분기에 톤당 19,081달러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4분기에 톤당 20,899달러로 상승할 전망이다.¹⁷⁾

[그림 I-19] 비철금속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

[표 I-4] 비철금속가격 동향

(단위: 달러/ton, %)

	2022			2023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기 대비 증감률
알루미늄	2,879	2,355	2,336	2,405	2,266	-5.8
구리	9,985	7,758	8,025	8,944	8,474	-5.2
니켈	28,951	22,104	25,514	26,070	22,366	-14.2
아연	3,914	3,273	3,012	3,137	2,540	-19.0
철광석	138	106	99	126	112	-11.2

자료: 세계은행

소맥¹⁸⁾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평원지역의 가뭄, 인도의 수출금지¹⁹⁾ 등에 따른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소맥 가격이 2022년 2분기에 톤당 492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EU와 아르헨티나의 기저효과와 미국 겨울밀의 수확면적과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2023년 2분기에 364달러로 하락하였다. 향후 소맥 가격은 미국 겨울밀 생산량의 증가 등 세계 소맥 공급 확대²⁰⁾가 예상됨에 따라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러시아가 7월 17일

- 17)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가격예측, <<https://www.kores.net/komis/price/pricepredict/predicttrend/pricepredict.do>>, 접속: 2023.9.7.>
- 18) 소맥 생산량은 3개년 평균 기준 7억 8,308만톤이고, 주요 생산국은 중국(17.4%), EU(16.9%), 인도(13.7%), 러시아(11.1%), 미국(5.9%), 호주(4.7%), 캐나다(3.9%), 우크라이나(3.3%)의 순이다. 수출량은 2억 628만톤이고 수출국은 러시아(19.0%), EU(15.7%), 호주(13.1%), 미국(11.2%), 캐나다(10.6%), 우크라이나(8.5%) 등의 순이다. 수입국은 중국(5.5%), EU(4.1%), 브라질(2.9%), 일본(3.8%), 한국(2.2%) 등의 순이다.
- 19) 인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4월 전년동월대비 7.79%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우량 부족으로 밀과 대체제인 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2020년 4월 이후 시행된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식량 지급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인도는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세계 수출량의 1%만 수출된다. 비록 수출량은 작지만, 인도의 밀수출 금지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촉발된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김신주, “인도의 밀과 쌀 수출 규제 조치 배경과 식량 안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1)
- 20) FAO-AMIS는 7월 6일 23/24년 세계 소맥 생산량 전망치를 0.8%, 미 농무부는 밀 생산량 전망치를 4.4% 상향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8, 4쪽)

부터 흑해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항에 대해 공격을 시작하였고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캐나다 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옥수수²¹⁾의 경우 남미 작황의 부진, 농업생산비용 급등, 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2022년 4월 미국 옥수수 재배지역의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파종 지연 등으로 가격이 2022년 2분기에 톤당 343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EU·아르헨티나 등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10.1%, 14.0%, 58.9% 증가하면서 옥수수 가격이 2023년 2분기 톤당 275달러로 19.7% 하락하였다. 향후 옥수수 가격은 미국 옥수수 파종면적의 확대 및 생산량 전망치 상회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콘벨트 지역의 고온건조한 날씨로 생육부진이 우려되면서 가격 하락폭은 당초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²²⁾

대두²³⁾의 경우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 가뭄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감소했던 아르헨티나의 생육 개선, 대두유 가격 약세 등으로 2022년 2분기에 톤당 727달러에서 2023년 2분기 톤당 601달러로 17.4% 하락하였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량은 2023년 9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5.4%, 11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²⁴⁾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활하지 않았던 식물성 유지류 공급이 해소되면서 대두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대두 가격은 남미산 대두 생산량 증가,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나 미국산 대두 생산량 감소와 미국내 산업용 소비증가²⁵⁾에 따른 수출량 급감으로 하락세는 제한될 수 있다.

21) 옥수수 생산량은 3개년 평균 기준 1억 6,391만톤이고, 주요 생산국은 미국(31.2%), 중국(23.2%), 브라질(9.4%), EU(5.5%), 아르헨티나(3.9%)의 순이다. 수출량은 1억 8,186만톤이고 수출국은 미국(31.4%), 브라질(21.6%), 아르헨티나(17.2%), 우크라이나(13.9%) 등의 순이다. 수입국은 중국(12.7%), EU(10.6%), 멕시코(9.4%), 일본(8.3%), 한국(6.4%) 등의 순이다.

22) 6월 30일 발표된 2023/24년 미국의 옥수수 파종면적이 3월 파종의향면적에 비해 9,410만 에이커 넓다. 또한 미 농무부의 세계곡물수급전망(7월 12일)에 따르면 2023/24년 미국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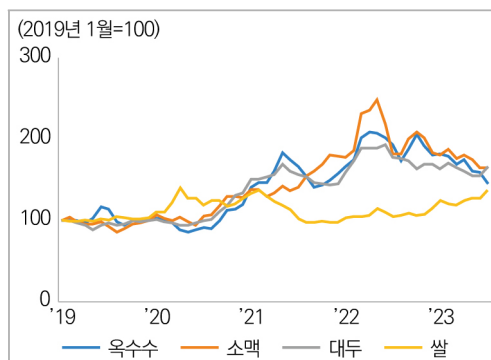
23) 대두 생산량은 3개년 평균 기준 3억 6,266만톤이고, 주요 생산국은 브라질(38.6%), 미국(32.4%), 아르헨티나(10.2%), 중국(5.2%), 인도(3.2%)의 순이다. 수출량은 1억 6,299만톤이고 수출국은 브라질(51.7%)과 미국(35.6%)이다. 수입국은 중국(59.6%), EU(8.7%), 멕시코(3.8%) 등의 순이다.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년 9월호, 28쪽.

25) 2023년 6월 21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량을 2023년 28.2억 갤런에서 2025년 33.5억 갤런으로 19.0% 증가할 계획이다. 이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 교통연료의 탄소 집약도를 최소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쌀²⁶⁾의 경우 인도의 쌀 수출금지, 악천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으로 2022년 3분기에 톤당 414달러에서 2023년 2분기 톤당 490달러로 18.4% 상승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안 곡물로 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쌀 수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인도에서 강우량 부족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높은 물가상승률까지 더해지면서 2022년 10월 이후 자국 내 쌀 가격이 30% 이상 상승하였다. 이에 인도 정부는 2022년 9월부터 설페(싸라기쌀)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였고 다른 품종에 대해서는 20%의 수출세가 부과하였다. 이에 더하여 인도 정부는 올해 7월 20일부터 인디카 백미에 대해서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²⁷⁾ 이로 인해 8월 국제 쌀 가격은 전월대비 약 14.0%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로 세계 쌀 생산에 차질을 보이고 있다. EU 내에서 최대 쌀 생산국인 이탈리아에서 고온과 가뭄으로 올해 7월 쌀 생산량이 전월 대비 7.7%(12만톤) 감소하였다. 8월에는 중국의 홍수로 중국 쌀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네이멍구 자치구,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쌀 수입물량이 8.7% 증가할 전망이다.²⁸⁾ 이런 여건 하에서 쌀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20] 농산물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

[표 I-5] 농산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ton, %)

	2022			2023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기 대비 증감률
옥수수	343	308	322	294	275	-6.5
소맥	492	395	416	382	364	-4.7
대두	727	671	640	635	601	-5.5
쌀	426	414	425	472	490	4.0

자료: 세계은행

26) 세계 쌀 생산량은 3개 평년 기준으로 약 5억 1,404만톤이고 무역량은 약 5,600만톤이며 인도의 수출량은 2,200만톤에 이른다. 무역량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디카 백미가 500만톤이고 인도가 인디카 백미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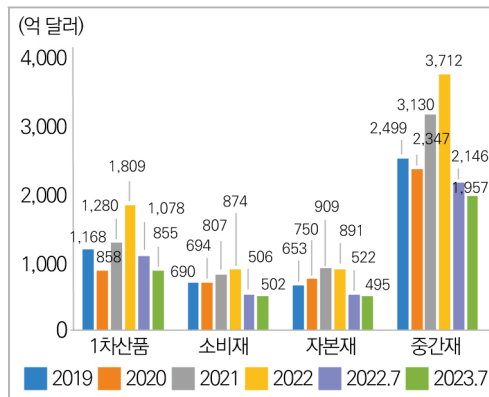
27) 윤시윤, "세계 쌀가격 12년 만에 최고치..."식품 인플레이션 심화", "연합인포맥스", 2023.8.10.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6970>, 접속: 2023.9.7.>

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년 9월호, 30쪽.

2. 국내 원자재 수입 및 생산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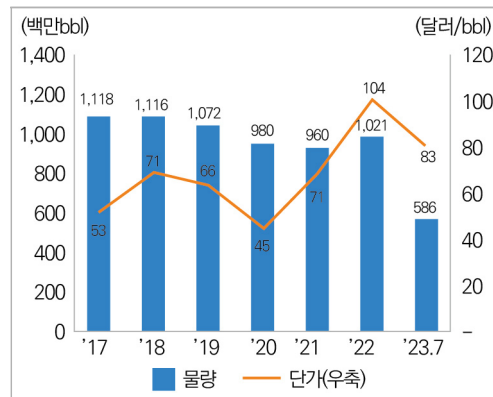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1차 산품을 중심으로 수입액이 감소하였다. 2023년 7월 기준 수입액(누계)은 3,82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하였는데, 1차 산품의 경우 20.7%로 감소폭이 컸다. 이 중 원유 수입량은 2023년 7월 기준 586백만 배럴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유 수입단가가 2022년 배럴당 103.7달러에서 2023년 7월로 82.9달러로 20.0% 하락하면서 수입액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21] 가공단계별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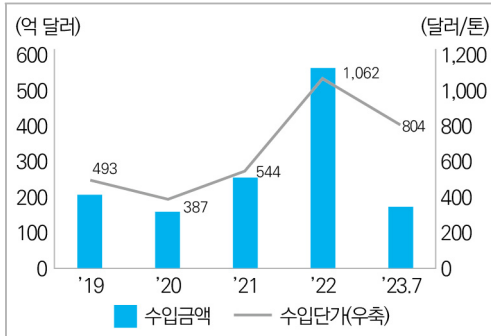
[그림 I-22] 원유 수입 추이



자료: 석유공사,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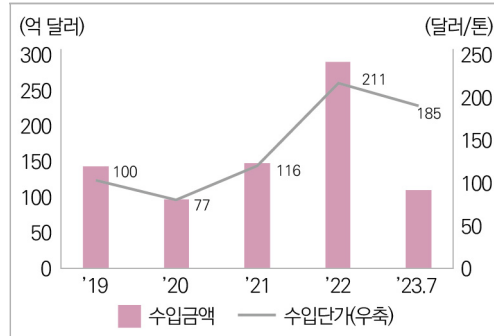
천연가스의 수입액은 2023년 7월 누계 약 235억 달러(전체 수입액의 6.1%)로 전년동기대비 유사한 수준이다. 천연가스 수입량은 2,572만톤으로 전년대비 약 1.2% 감소하였고 수입단가도 전년동기대비 12.0% 하락하였다. 석탄의 수입액은 2023년 7월 누계 107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를 차지한다. 석탄 수입량은 5,772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21.3% 감소하였고 수입단가도 톤당 185달러로 전년대비 23.8% 하락하였다.

[그림 I-23] 천연가스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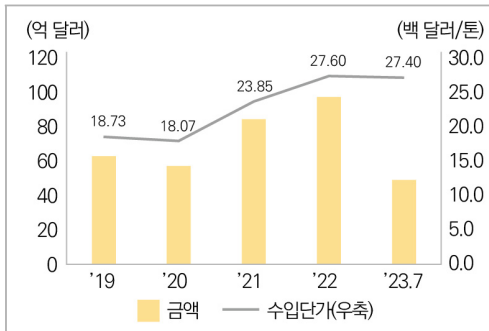
[그림 I-24] 석탄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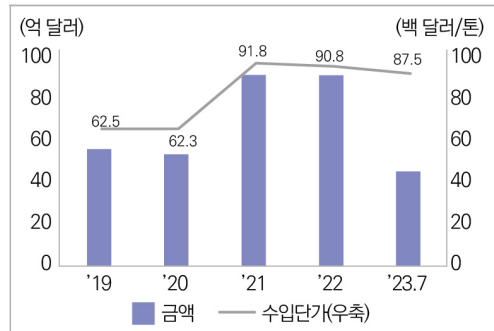
비철금속 수입액은 니켈을 제외하고 수입단가가 전년동기대비 하락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참고로 알루미늄, 구리, 철광석의 수입단가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각각 4.7%, 11.0%, 14.9% 하락한 반면, 니켈은 16.4% 상승하였다.

[그림 I-25] 알루미늄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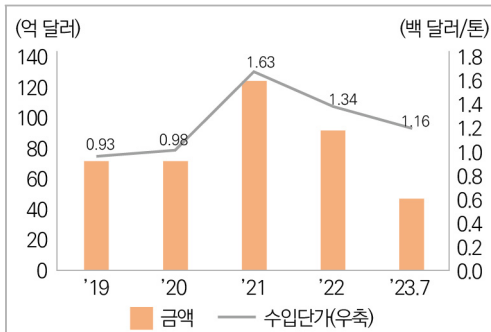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26] 구리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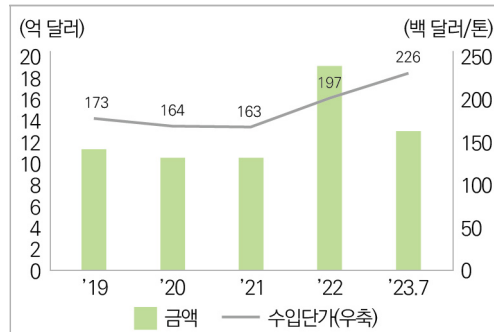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27] 철광석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28] 니켈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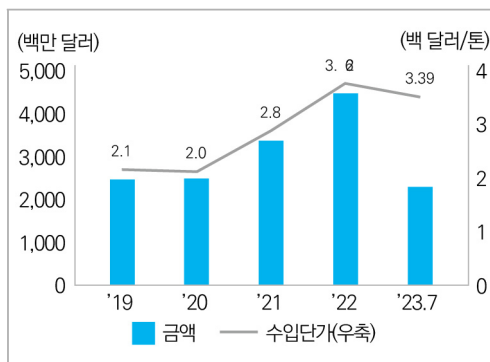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곡물 수입액은 대두를 제외하고 수입량의 감소로 줄어들었다. 대두의 2023년 7월 누계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8.4%, 수입단가는 6.9% 상승하였다. 소맥, 쌀의 수입단가도 2023년 7월 기준으로 각각 1.6%, 0.3% 상승한 반면,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5.0%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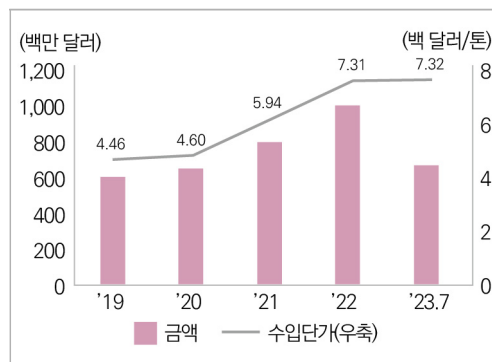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폭에 비해 수입단가의 하락폭이 낮은 것은 선물가격의 변화가 수입가격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고²⁹⁾ 원달러환율의 상승으로 그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글로벌 달러강세, 안전자산 선호,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2021년 6월 달러당 1,277.4원에서 2022년 10월 1,426.7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2023년 1월 1,247.3원까지 하락하였으나 2023년 8월 1,318.5원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림 I-29] 옥수수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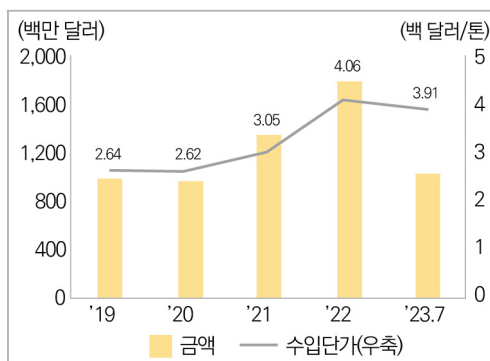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30] 대두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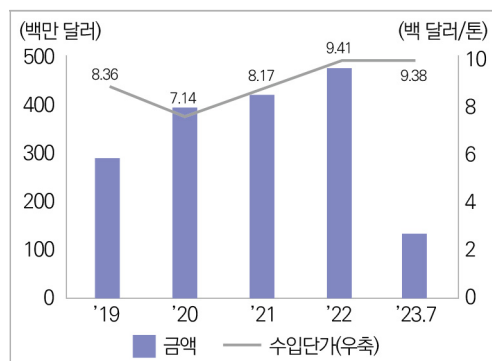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31] 소맥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32] 쌀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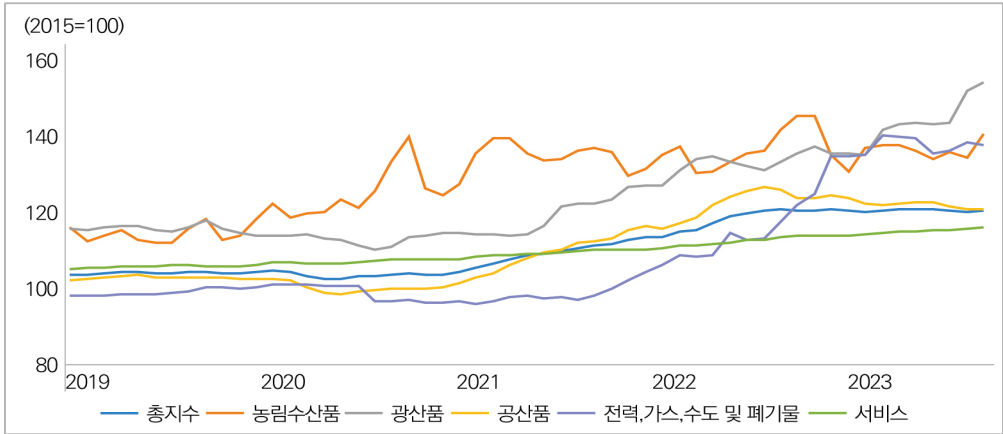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29) 김성훈·김배성, “국제 원료 농산물 가격과 국내 가공식품 가격의 연관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1.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10월 124.2에서 2023년 7월 120.1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공산품과 농림수산품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2%, 1.0% 하락하였다. 반면, 천일염에 대한 수요급증과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으로 광산품은 16.1%, 전기·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17.5%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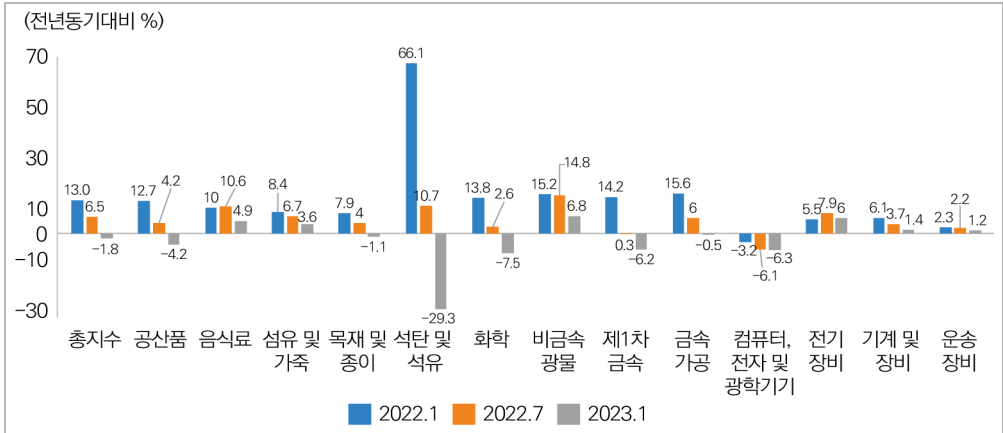
[그림 I-33] 상품 및 서비스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공산품의 상품별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2023년 7월 기준 석탄 및 석유제품(-29.3%), 화학제품(-7.5%),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6.3%), 제1차 금속제품(-6.2%)의 순으로 생산자물가상승률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34] 공산품 상품별 생산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제3절 주요국의 그린전환 정책

● 친환경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 EU는 탄소누출을 통상이슈로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도입
-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도입
- 한국은 자원안보 핵심자원 관련 투자는 확충, 그린전환 관련 핵심산업 R&D 투자는 감소

산업 여건의 다른 큰 변화는 친환경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무역체계 구축을 명분으로 EU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글로벌 통상이슈로 제기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 분야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 통상의 그린전환이 2023년 이후에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그린전환 관련 탄소무역장벽 도입은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 EU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는 2019년 12월 출범과 더불어 새 향후 EU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했다. 유럽 그린딜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모든 정책 분야에서 기회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EU경제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로드맵이다. 유럽 그린딜은 온실가스 배출,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을 수반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낙오되지 않는, 근대적이고 자원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 체제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EU의 정치·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하지만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EU의 기후·환경·노동 규제를 외국 및 외국 기업에 적용해 보호무역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EU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EU의 실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³⁰⁾

김윤희 경제분석관(yunhee.kim@assembly.go.kr, 6788-4679)

30) 정명규, 「EU의 신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세계는 지금, Vol 359, 한국개발연구원, 2020.10.

2023년 2월에 발표된 「그린딜 산업계획」은 2019년 제안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별 보조금 규제 완화, EU 차원의 공동 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의 「그린성장전략」³¹⁾ 등 주요국의 친환경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유럽의 친환경 산업전략이며 무역 상대국의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시장왜곡 및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³²⁾ 「그린딜 산업계획」은 기후중립 전환과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³³⁾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³⁴⁾ 등을 제정하여 친환경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고, 공정환경경쟁과 무역개방 원칙에 따라 친환경 전환에 대한 ‘핵심광물 클럽’, ‘넷제로 산업 파트너십’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보조금규정」³⁵⁾의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EU에 대한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23년 3월 16일 발표된 「핵심원자재법」은 핵심 원자재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이 EU 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규정이다. 주요 목표로는 2030년까지 EU내 전략원자재 34개(4년마다 업데이트)³⁶⁾의 채굴 역량을 연간 소비량의 10%, 가공 역량을 40%, 재활용 역량을 15% 이상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며 특정 국가에 대한 개별 전략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연간 소비량의 65%를 넘지 않고 다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는 이런 전략원자재의 역내 조달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원자재 공급 안보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역내외 프로젝트를 선별해 허가를 간소화하고 자금조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³⁷⁾

31)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린성장전략에서 14대 중점분야를 ‘육성산업’으로 지목, 각 산업의 4단계별 실행계획을 책정하고 단계별 맞춤형 정부지원책(그린이노베이션기금을 포함한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 및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2020.12.

32) 일부 정부는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① 규제환경 개선, ② 금융지원 확충, ③ 숙련인력 육성, ④ 국제협력 증대 등의 네 가지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33) 「탄소중립산업법」은 친환경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며 2023년 3월 16일 EU 집행위원회에서 초안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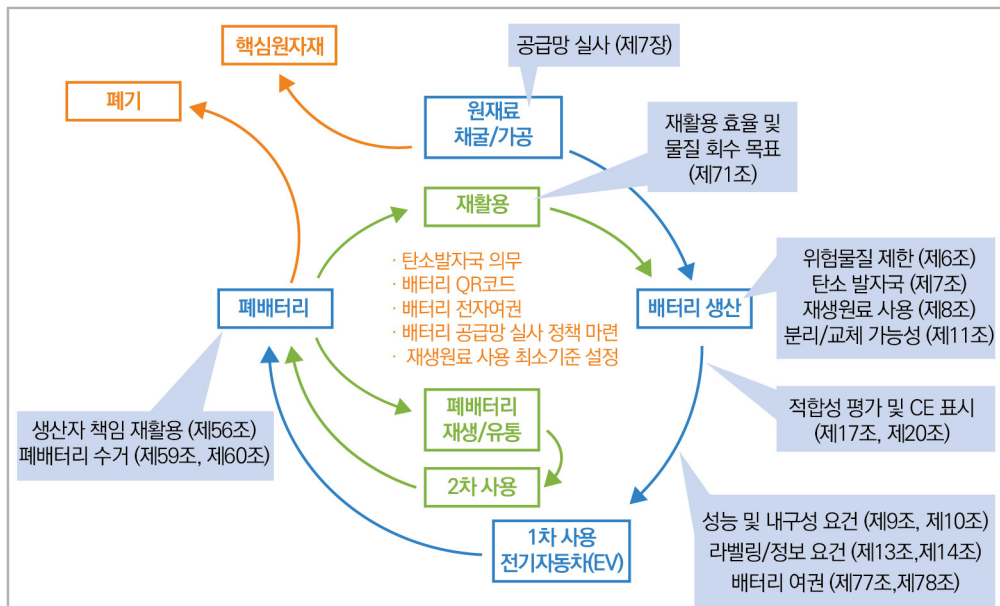
34) AFIR은 유럽의 주요 운송네트워크에서 전기차 충전 및 수소 주유소의 대폭적인 증가를 요구하는 법안, 2025년까지 유럽 횡단 운송네트워크에 따라 60킬로마다 급속충전소 배치, 100킬로마다 중장비 차량 전용 충전소 설치를 위한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200킬로마다 수소연료 보급 인프라 구축을 규정한다.

35) EU가 아닌 국가의 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M&A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36) 핵심원자재 중 탄소중립, 디지털경제, 국방, 우주 산업 기술과 밀접한 16개 원자재를 전략원자재로 지정한다.

EU는 또한 국내 2차 원자재 생산 확대를 위해 회원국별 재활용 제도를 개선, 핵심원자재 회수율을 고려한 재활용 시스템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안이 「배터리법」 및 ‘공급망 실사지침’이다. 「배터리법」의 경우 EU 법령³⁸⁾ 중 규정(Regulation) 형식으로 입법되며 원재료 채굴 및 가공, 배터리생산, 유통 및 폐배터리 재활용 등 배터리 전 생애 주기(Entire Life-Cycle)가 규율 대상이며 이는 공급망에 대한 실사도 포함하고 있다. 배터리에 포함된 원자재에 대해 지속가능성 요건 및 구체적 규제를 수립한다는 점에서, 향후 탄소발자국 선언서를 통해 원자재의 환경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핵심원자재법」 등과 법적으로 연관성이 크다.

[그림 I-35] EU 「배터리법」 주요 내용



주: CE(Conformite Europeenne, 유럽적합성)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7) EU는 전략원자재의 국내 조달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국내외 프로젝트를 선별해 허가 간소화 및 자금조달 등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원자재법에 의하면 회원국별 관할 당국은 해당 전략 프로젝트가 원자재 공급망 단계 중 채굴을 포함하면 2년 내 가공 또는 재활용 부분의 프로젝트는 1년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허가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회원국은 간이 분쟁해결 절차 등을 도입해 분쟁을 긴급하게 처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자금 지원의 경우 전략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시 핵심원자재 위원회를 통해 유럽 투자은행 등 자체적인 상품이나 국가보조금 또는 EU 공동기금을 통한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8) EU 법령은 4종류가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순이다.

그린전환 관련하여 EU는 역외거래에도 2023년 10월부터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한다.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제도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와 동일한 탄소배출 규제를 적용하고 그 차이를 수입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다. CBAM은 그린딜 정책의 후속 조치로서 2021년 7월 발표된 ‘Fit for 55’³⁹⁾의 12개 입법안 중 탄소가격 관련안이다.⁴⁰⁾

[그림 I-36] EU ‘Fit for 55’의 12개 입법안

탄소가격 결정	감축목표 강화	환경규제 강화
• 배출권거래제 강화(항공) • 배출권거래제 확대(해운, 육상, 운송, 건물) • 에너지세제 개정 • 탄소국경조정제도	• 배출 감축 노력 분담규정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도 임업 규정 •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 에너지효율 지침 개정	• 승용·승합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 • 대체연료 인프라 신규 배치 •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기준 마련 • 청정한 선박연료 기준 마련
자원 : 사회기후기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CBA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시범 운영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제 축소와 연계하여 CBAM 인증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온실가스 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인증서를 요구한다.⁴¹⁾ 이는 약 2.7%의 관세가 추가 부과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⁴²⁾ CBAM 관련 인증서 발행비용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이익감소 및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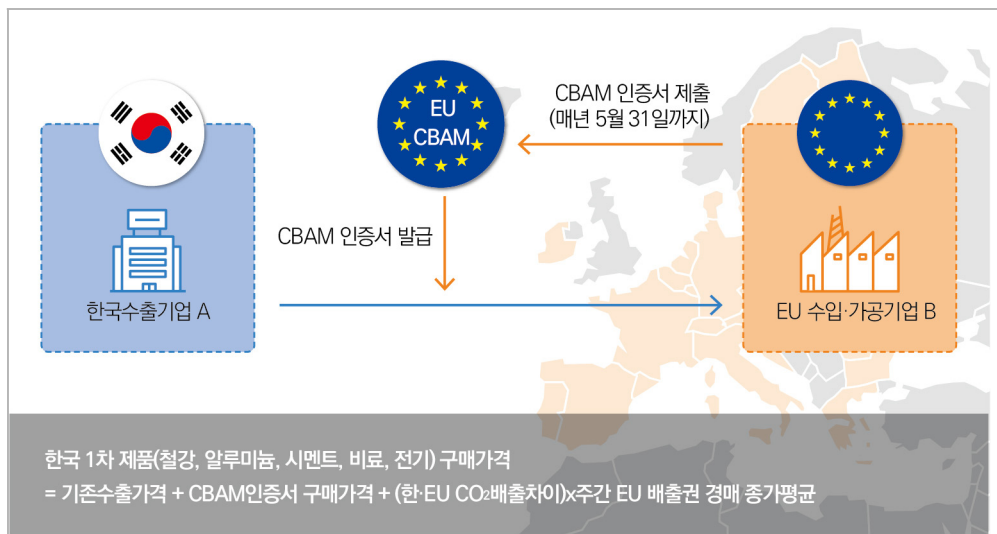
39) EU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계획이며 입법안 12개와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신설안을 포함한다.

40) 6월 13일(화)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배출량 보고 항목, 절차 및 배출량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41) 예를 들어, EU 수입가공기업 B가 X라는 물건을 제조하기 위해 n개의 수입 원자재가 필요할 때, 그중 한 개를 수출하는 한국기업 A는 수출 시 CBAM인증서를 제출하고 B기업은 매년 5월 31일까지 EU에 직전년도 n개 원자재에 대한 CBAM 인증서를 제출한다.

42) 문진영 외,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정책연구브리핑」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12.30.

[그림 I-37]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미국

그린전환 관련해서 미국의 관련 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법)」이 있다. IRA는 미국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기술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발표한 산업정책 중 하나이다.

[그림 I-38] 미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반도체 과학법」(22.8.9.) 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22.8.16.) IRA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반도체 미국 내 제조 지원(\$527억), 무선공급망 혁신(\$15억), 시설 및 장비 투자 세액공제(\$240억), 반도체 R&D, 경쟁, 혁신 지원(\$1,669억) - 초당적인 지지 아래 통과, 반도체 이외 분야에도 유사 정책 도입 가능성	-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험 강화, 건강보험 등에 \$4,700억 지출 - 핵심은 총 \$3,690억을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에 투자 - 전기차 세액공제의 핵심은 미국산 우대를 골자로 완성차, 배터리 제조 원산지 비중별 차등지원
국가 생명과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22.9.)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행정명령 서명 (22.9.) 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총 \$20억 규모 예산 : 바이오 생산 기반 구축 목표(5년간 \$10억) - 화학 및 원료 의약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 탈피, 바이오 제조 역량 열위 극복 목적	- 외국인투자심의회(CFIUS) 투자 심사 시 국가안보 위험 검토 기준 강화 - 생명공학 및 바이오,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희귀자원 등 분야, 공급망 회복과 기술 리더십 유지 목적

자료: KOTR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현지 동향, 2023. 4. 6.

IRA는 총 7,7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하여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법이다. 이 IRA 법의 핵심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중고차와 신차에 각각 최대 4,000달러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며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법안의 목표는 크게 아래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표 I-6] IRA 에너지 및 기후변화 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 및 프로그램
1	에너지 비용 절감 노력(Lowers energy costs for Americans)
2	미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노력(Increases American energy security)
3	경제 전반에 걸친 탈탄소화(Decarbonizing all sectors of the economy)
4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Investments into disadvantaged communities)
5	농촌과 산림, 지역사회의 기후 대응 투자 지원(Resilient rural communities)

자료: 미국의회 민주당 상원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IRA 법안에는 친환경 관련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투자 지원 정책, 공급망전반에 걸친 재생에너지 촉진과 기후변화 대응책이 포함되어 앞으로도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전반에 걸쳐 친환경 정책에 탄력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⁴³⁾ 이를 통해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신형 청정 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⁴⁴⁾ 특히 미국은 유럽이 직면한 문제를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규정하며 자국 에너지 밸류체인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로는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로 예상되며, 세액공제 혜택 연장과 추가 세액공제조항으로 기존 및 신규 프로젝트 추진과 추가 투자 자금이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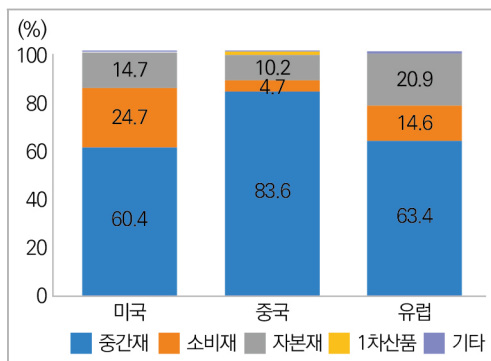
43) KOTRA,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2-040, 2023.12.

44)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REPEAT) 등 현지 주요 연구기관 및 컨설팅기관은 이번 IRA 법안 통과로 친환경 에너지 및 탈탄소 정책이 탄력을 받아 2005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Zero Lab, *Preliminary Report: The Climate and Energy Impact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Princeton University, August 2022.

다. 한국

주요국의 탄소무역장벽 도입은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특히 미국, 유럽 등으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이 영향을 받으면서 기업들의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은 중간재 수출을 중심으로 저비용·고효율성이 극대화된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성장하였기에 미국과 유럽 중심의 그린전환 관련 탄소무역장벽 도입은 큰 부담이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분야의 국내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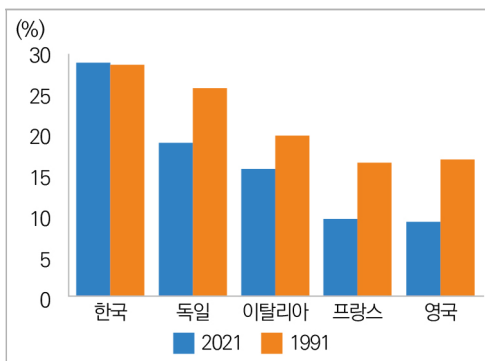
[그림 I-39] 대 주요국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주: 2022년 기준

자료: 무역협회

[그림 I-40] 주요국의 GDP대비 제조업 비중



자료: OECD

주요국의 수출 통제로 에너지·자원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고 국내 공공부문의 핵심광물 비축분이 줄어들며, 해외 수입 의존도도 80%에 달하는 등 자원안보가 취약하기에 우리나라 정부는 관련 대응 정책을 최초 발표하였다.⁴⁵⁾ 2024년 예산안에서 핵심자원 공공비축, 국내 생산설비 확충, 공급선 다변화, 국산화 R&D 등 공급망 안정화 투자를 2.4조원에서 3.7조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⁴⁶⁾ 석유 등의 공공비축을 확대(1.0→1.3조원)하고, 국내외자원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로 공급선을 다변화(0.08→0.10조원)하며, 외국인투자·국내유턴기업 지원 강화로 국내 생산설비를 확충(0.1→0.3조원)하는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린전환 관련 핵심산업 품목에 대한 국산화 R&D를 강화하는 예산(2.3

4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3. 8. 29.

46) 갈륨·코발트·흑연·이리듐·네오디뮴·테르븀·디스프로슘·리튬·니켈·백금·마그네슘·탄화규소·프라세오디뮴

→2.1조원)은 감소되었다.⁴⁷⁾ 부문별 예산 비교시에도 환경분야 예산안에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린전환 관련 정부의 지원책은 미미하다.⁴⁸⁾

[BOX 2] 정부 제출 2024년 환경분야 예산

2023년 8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총예산은 656.9조원이다. 이중 환경분야 예산은 12.6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9%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5% 증가한 규모이다.⁴⁹⁾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관련해서 녹색기업 창업⁵⁰⁾과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발굴-해외실증-수출금융⁵¹⁾ 등을 통해 전주기 수출 지원체계 구축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예를 들어, EU CBAM 등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신규로 24억원 등을 배정했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유럽의 그린딜 관련 산업정책('Fit for 55' 등)과 미국의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정책들(The Build America, Buy America, BABA)과 비교 시 관련 대응 정책 및 예산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⁵²⁾

[표 I-7] 환경분야 프로그램 단위 예산

(단위:억 원)

구분	2023년	2024년 안	비고
물환경	44,048	47,889	하수관로 설치(9,531→12,512억 원)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4,605	14,484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2,789→3,79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646→1,572억 원)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45,230	45,314	무공해차 보급사업(25,652→23,988억 원)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환경부)(104→236억 원)
자연환경	10,181	8,908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2,864→2,115억 원)
환경일반	5,015	5,512	재해대책비(500억 원, 신규)
해양환경	3,409	3,434	해양폐기물정화사업(363→481억 원)
합계	122,487	125,541	전년대비 +2.5%

자료: 기획재정부

47) 소재·부품·장비(119개 품목), 주력 제조업(자동차·조선·철강 등), 첨단산업(반도체 등)의 대외의존도 개선을 위해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48) 프랑스의 녹색예산은 2021년 전체 예산의 9.2%이며, 독일은 탄소중립 관련 2022년 예산 50조 원을 편성하였다.

49) 환경분야 예산 집행의 목적은 크게 ① 기후위기에 따른 국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②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③ 환경 취약계층 복지 강화, 쾌적한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공이다.

50) 기존 창업지원 확대 및 청년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특화 지원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51)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5년간 총 4,000억 원)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52) 김주태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산업전략 평가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23.

장기적으로 그린전환 관련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⁵³⁾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2020년 11월)한 이후로 국가 산업 부문 정책의 저탄소 정책화는 선제조건이 되었다.⁵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독립적 탄소중립 기술개발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을 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EU에서 시행하는 CBAM 관련해서는 국내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의 국내기업, 미국의 IRA 관련해서는 국내 자동차, 2차전지 등 산업 분야의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R&D 예산마저도 관행적 R&D라 규정하고 성과창출형 도전적 R&D 전환을 목표로 전년대비 5.2조원 삭감된 안(25.9조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⁵⁵⁾ 이는 EU,⁵⁶⁾ 미국,⁵⁷⁾ 일본⁵⁸⁾ 등 세계 주요국의 정부 주도 그린전환 정책지원 추세와 비교 시 대조적인 상황이다.

53) 정부는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023년 3월에 수립하였고, 같은 해 4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며, 5년마다 기술적 여건과 전망,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한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0년을 계획기간(2023~2042)으로 하고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 및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4대 전략 42을 중심으로 82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며, 중장기 감축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제시하였다. 환경부 보도자료,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2023. 3. 21.

54)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산림 등) 및 제거(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이기에 탄소중립을 '넷-제로(Net-Zero)'라고 부른다.

55)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관행적 R&D 지원은 성과창출형 도전적 R&D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간 R&D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했다. 도전과제 대신 나뉘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이 난립했으며 국내 연구진·지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가 나뉘먹기·관행적 지원 사업 등 비효율적인 R&D 구조를 만들었다"고 규정하며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할 것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도 예산안」, P7, 2023. 8. 29.

56) EU는 총 예산 3,000조원의 30%인 853조원을 그린딜 실행에 배정하여,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A Fair, Cost Effective and Competitive) 탄소중립 전환" 추구하고 있다.

57) 미국은 기술패권국 유지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IRA지원금의 84%인 480조 원을 투입하여 그린수소 생산설비 투자금 최대 30%까지 U\$3/kg·H₂ 세액공제, '111' 프로젝트를 추진(10년내 U\$1/kg·H₂ 달성)할 예정이다.

58) 일본은 그린트랜스포메이션 기금 1,500조 원 투자로 일본경제 회복과 성장을 연계, R&D 지원을 위한 그린이노베이션기금 150조원 외 상용설비 투자에도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법안을 마련하였다.

[BOX 3] 탄소중립 관련 철강분야 R&D 지원 현황

2023년 상반기에 시행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국책과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온실가스 다배출⁵⁹⁾ 4개 산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총사업비 9,352억원 중 철강 분야 사업비로 2,098억원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괄 과제 4개 중 3개 과제가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표 I-8] 철강 탄소중립 R&D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중점분야	전략과제	과제별사업비 (억 원)	
		제출(안)	결과
전환 (수소환원 제철 기술)	분광 수소 유동환원 기술개발	175	○ (269)
	수소환원철 전용 신 전기로 공정 설계 기초 기술	100	
	분광 수소 유동환원 공정의 실증사업	5,049	X
	수소환원철 기반의 신 전기로 공정의 EPC 기술개발	2,556	X
	수소환원-신 전기로 연속 신 공정 기술개발	120	X
대체 (고로, 전로 공정 저탄소기술)	Hybrid 연원료형 제철기술 개발	603	○ (399)
	스크랩 고도화를 위한 2차연소 기반 하이퍼 전로 기술	917	○ (917)
	탄소임계형 하이퍼 고로 기술	180	X
저감 (스크랩전기로 공정 저탄소기술)	초고속 하이퍼 전기로 공정기술개발	520	○ (513)
	하이퍼 전기로 저탄소 신 열원재 활용기술개발	130	X
계	10개	10,350	2,098

자료: 한국철강협회

EU 및 해외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삼아 탄소중립 혁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편당지원과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산업전환의 시대에 탄소중립은 기업, 산업,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관련 과제이기에 주요국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국내 정책의 변화가 요구될 여지가 있다.

[표 I-9] 주요국 탄소중립 지원 정책

구분	Salzgitter	A-Mittal	SSAB	(비고) 국책사업
투자내용	SALCOS 프로젝트 190만톤 DRI, 전기로 설비	함부르크 10만톤 DRI 설비	HYBRIT 프로젝트 130만톤 DRI 설비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기술
총규모	3.1조 원	1,500억 원	9,700억 원(추정)	1조 원
정부투자 (비율)	1.4조 원(58%)	750억 원(50%)	1,900억 원(20%)	2,097억 원(20%) *수소환원제철 269억 원
자금 출처	독일 연방/주정부	독일 연방정부	EU 혁신기금	산업부

자료: 한국철강협회

59) 2018년 기준, 철강 104.9, 석유화학 58.3, 시멘트 36.5 정유 30.6, 반도체 17.1, 디스플레이 11.9 백만톤 CO₂



II 2024년 및 중기 전망

제1장 경제전망의 수정 요인

제2장 제조업

제3장 서비스업

제4장 건설업

제5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경제전망의 수정 요인

국민계정에서 생산 GDP는 총부가가치와 순생산물세⁶⁰⁾로 구성되고, 총부가가치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농림어업, 광업으로 구성된다. 단, 농림어업과 광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생산활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아 본 보고서에서는 기타로 통합하여 전망하였다.

이번 전망에서는 2023년 (실질)생산GDP를 지난 3월 전망치⁶¹⁾ 1.5% 대비 0.4%p 하락한 1.1%로 전망하였다. 총부가가치가 3월 전망치(1.7%)보다 0.3%p 낮은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순생산물세는 3월 전망치(-1.3%)보다 1.7%p 낮은 증가율(-3.0%)을 나타낼 전망이다. 순생산물세 전망치가 큰 폭으로 조정된 이유는 3월 전망 대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 하향 조정되는 등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올해 이례적으로 저조한 조세 수입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산업 부문별로 전망 차이의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2023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3월 전망치(-0.5%)를 이번 전망(-0.5%)에서도 유지하였다. 지난 3월 전망에서는 제조업이 2023년 상반기(-2.3%) 중에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인해 부진하다가, 하반기(1.3%) 중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상반기의 부진을 일정 부분 만회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 제조업 부가가치 실적치(-2.0%)가 3월 전망 대비 0.3%p 높게 나타난 점은 전망의 상방요인이나, 중국 내 부동산발 위기로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미미하고, 중국 내 수입 수요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고, 하반기 중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반도체 수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3월의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다.

권 일 경제분석관(kwonil@assembly.go.kr, 6788-4677)

60) 순생산물세는 생산물세에서 생산물보조금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생산물세에는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된다. 즉, 생산물세는 부가가치세, 수입세, 수출세, 기타생산물세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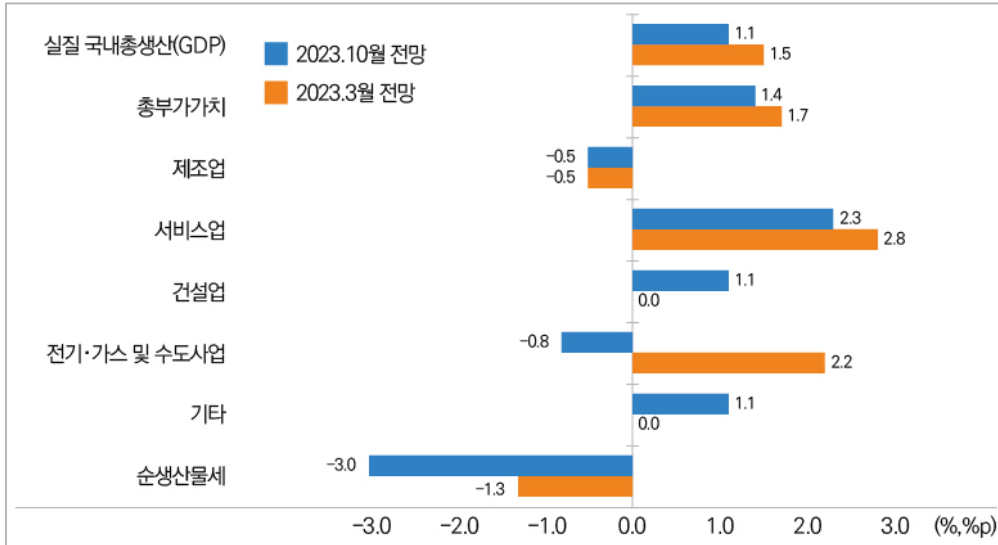
61)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경제전망」, 2023.3.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이번 전망에서 2.3% 성장이 전망되어, 3월 전망치(2.8%) 대비 0.5%p 하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전망은 가계의 소비 여력이 3월 전망보다 낮아져 소비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한다. 올해 2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전년동분기대비 0.8% 감소하면서 8분기 만에 감소로 전환되며,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의 102.2%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금리인상 효과까지 더해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업 세부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의 생산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올해 4월 이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소비가 제약되며 전년동월대비 감소로 전환되었다. 다만, 운수업,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호조를 보이며 하방 요인의 영향력을 상쇄하였다.

건설업 부가가치의 3월 전망치(0.0%)와 이번 전망치(1.1%) 간에는 1.1%p의 전망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2023년 상반기 중 건설업 부가가치 실적치(5.2%)가 3월 전망치(0.1%)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상반기 중 건설투자 실적치(1.8%)가 3월 전망치(-2.4%)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건설기성도 기저효과와 선행지표(건설수주, 건축허가)의 시차효과로 인해 1분기 17.3%, 2분기 11.7%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기성을 제외하면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아파트 분양물량 등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대비 10% 정도 감액된 SOC 예산과 상반기 조기 집행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 이후 공공투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반기 건설업 부가가치 실적치의 예상 밖 호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성장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가가치는 이번 전망에서는 -0.8% 성장이 전망되어 3월 전망치(2.2%) 대비 3.0%p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상반기 부가가치 실적치(-5.6%)가 3월 전망치(1.9%)와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을 고려하였다. 상반기 중 부가가치 실적치의 감소는 전기요금(1분기 13.1원/kWh, 2분기 8.0원/kWh)과 가스요금(MJ당 1.04원)이 인상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도 부진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상반기 부진의 일정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1] 2023년 전망의 부문별 비교



[표 II-1] 2023년 생산국민소득 전망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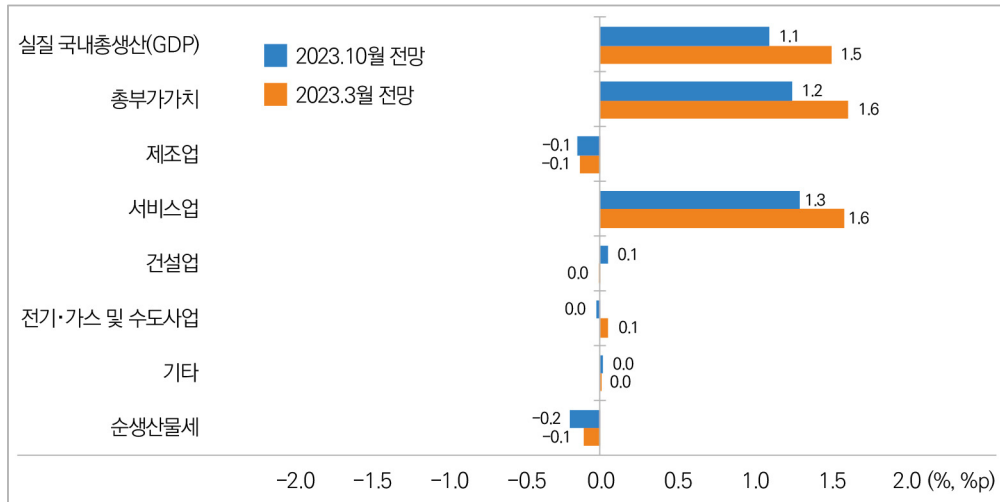
(단위: %, %p)

	23.3월 전망	23.9월 전망	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1.5	1.1	-0.4
총부가가치	1.7	1.4	-0.3
제조업	-0.5	-0.5	0.0
서비스업	2.8	2.3	-0.5
건설업	0.0	1.1	1.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2	-0.8	-3.0
기타	0.0	1.1	1.1
순생산물세	-1.3	-3.0	-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실질GDP 증가율 전망치 1.1%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총부가가치 1.2, 순생산물세 -0.2로 분석된다. 생산 부문별로는 제조업 -0.1, 서비스업 1.3, 건설업 0.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0 등이다.

[그림 II-2] 2023년 3월 전망과 9월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2023년 생산국민소득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부가가치가 92.4%, 순생산물세가 7.6%로 전망된다. 생산 부문별로는 제조업 26.3%, 서비스업 57.6%, 건설업 4.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4% 등으로 예상된다.

[표 II-2] 2023년 생산국민소득 전망(구성비) 비교

(단위: %, %p)

	23.3월 전망	23.9월 전망	차이
총부가가치	92.4	92.4	0.0
제조업	26.1	26.3	0.2
서비스업	57.7	57.6	-0.1
건설업	4.3	4.4	0.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5	2.4	-0.1
기타	1.7	1.8	0.1
순생산물세	7.6	7.6	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조업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2023년(-0.5%)보다 높은 2.2%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1.5	-2.0	1.0	-0.5	2.2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세계경기 개선과 교역량 증가 - 주요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 세계 반도체 시장 업황 개선	- 부동산발 중국경제 부진 우려 확대 및 대중국 수출 회복 지연 -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 지속 가능성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해외 생산 확대

(총평) 2024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기저효과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대, AI 등 IT 산업의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회복 등으로 2023년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대중국 수출 회복 지연,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부진 지속, 원자재가격과 국제유가의 변동 폭 확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증가세는 제약될 전망이다.

1. 동향

가.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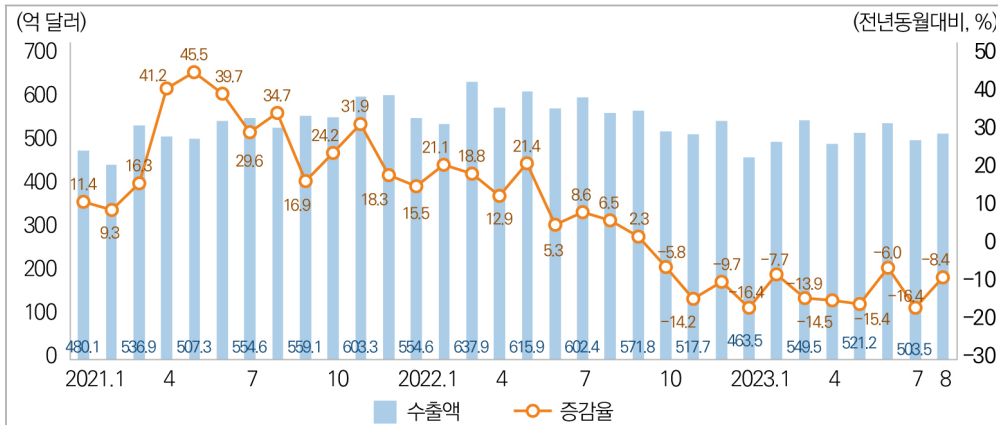
2023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1~8월 기간 중 4,093.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12.4% 감소하였다. 월간 수출은 2022년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며 2023년 8월 현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2023년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활동 재개의 저조한 효과,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2022년 상반기의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북미와 유럽에서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차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6.8%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하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IT 수요 감소로 인해 물량과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며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34.9% 감소하였고, 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등의 수출도 같은 기간 각각 25.6%, 22.1% 감소하였다.

하반기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미국 및 유로존의 고물가·고금리 지속,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따른 경기 위축과 내수 중심의 회복 구조 및 중간재 자급률 상승, 세계 반도체 시장 업황 개선 지연 등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2022년 4분기의 수출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로 감소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분야에서 4분기부터 인공지능(AI) 관련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⁶²⁾ 수요 증가 등으로 업황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까지 수출 호조세를 유지하던 자동차 수출이 글로벌 수요 감소로 하반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개선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62) HBM이란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려 만든 반도체로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보다 높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 대량 연산에 강점이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HBM 시장에서 2022년 기준 SK하이닉스(50%), 삼성전자(40%), 마이크론(10%) 등 순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Ⅱ-3] 월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주: 2023년 8월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속보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을 가격과 물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가와 물량이 동반 감소하는 현상이 최근까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 수출단가는 2022년 10월 25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0.2% 감소로 전환된 후, 2023년 7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하였다.⁶³⁾ 수출물량은 2021년 9월(-2.4%), 2022년 6월(-2.5%)에 각각 한 차례씩 감소한 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 현재까지 2월 한 달만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다. 수출물량은 2021년 9월과 2022년 6월에도 각각 2.4%, 2.5% 감소한 바 있으나, 수출단가가 각각 16.6%, 15.1% 상승함에 따라 월간 수출은 각각 16.9%, 5.3% 증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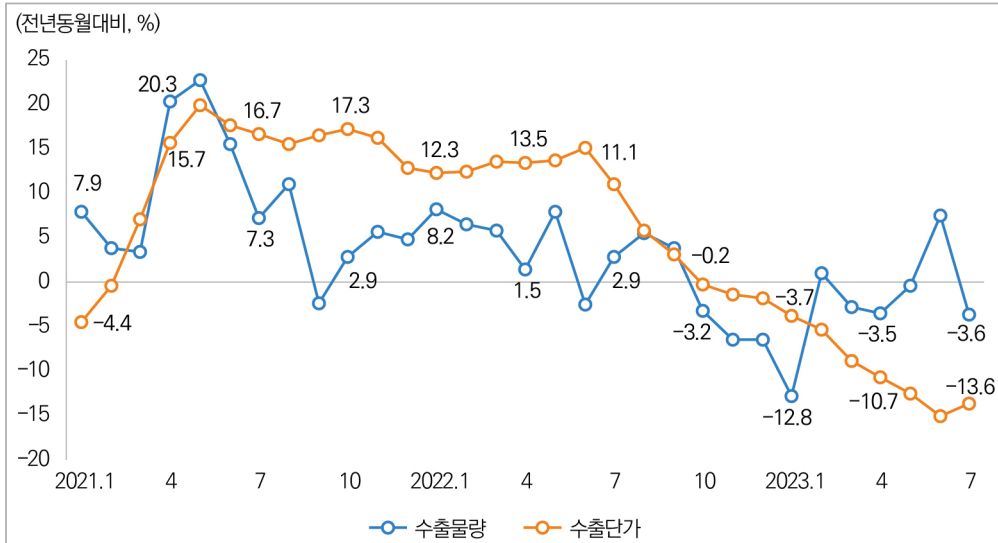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수출물량과 수출단가의 동반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 개선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단가의 하락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으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 등에 기인한다. 다만, 하반기 이후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조치⁶⁴⁾ 3개월 연장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 정제마진(석유 제품 가격에서 운송·운영·원료 등 비용을 뺀 금액)도 상승하고 있어 석유와 화학 등에서 수출단가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에서 재고 소진이 지연되고 있고, D램 가격이 2분기 대비 오히려 5% 정도 하락하였다는 업황 정보⁶⁵⁾를 고려하면 수출단가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63) 총수출금액은 2023년 2월까지 자료가 공표되었으나 수출단가와 수출물량을 나타내는 지표는 1월까지만 공표되었다.

64) OPEC+는 공식적으로 2024년말까지 200만배럴 감산을 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우디와 러시아는 현재 진행중인 자발적인 감산 조치(130만배럴)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65) BARRON'S, "Memory-Chip Prices Are Softening. The Turnaround Could Be Delayed." 2023.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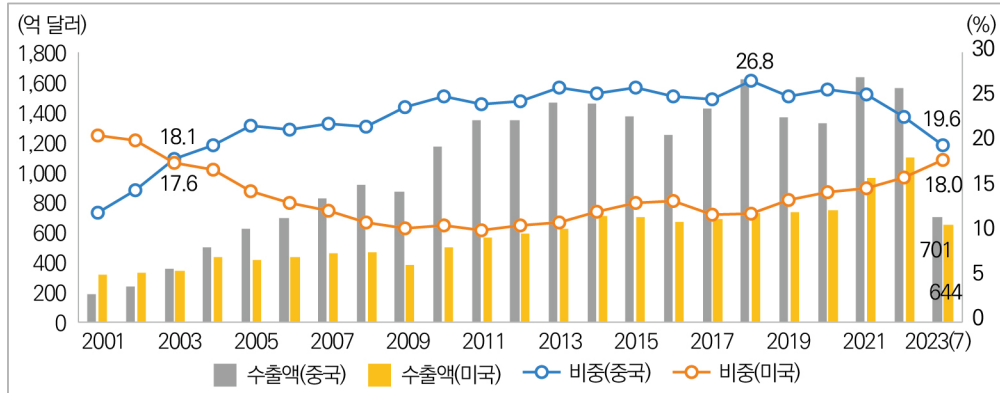
[그림 II-4] 제조업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증감률 추이



주: 수출물량은 한국은행의 수출물량지수, 수출단가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단가지수
 자료: 한국은행,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물량 감소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세계 수요의 감소,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 우리 제품의 중국 내 점유율 하락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액에서 대중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22.8%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미국 16.1%, 베트남 8.9%, 일본 4.5% 순이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3년 18.1%로 처음으로 미국(17.6%)을 넘어선 후 2018년 26.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해 2023년 7월(누적)에는 19.6%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림 II-5] 대미·대중국 수출액 및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추이



주: 2023년 8월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속보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수출 비중의 축소는 수출에서 기존의 한-중 수출의 보완 및 동조화 관계가 경쟁관계로 전환되면서 수출 동조화가 소멸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탄력성이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⁶⁶⁾ 2000~2022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0.2%로 같은 기간 중국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12.9%와 동조화 현상이 매우 뚜렷했다. 2022년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7.1%, 수입은 1.4% 증가를 기록했으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율(-4.4%)은 오히려 하락했다. 2023년 7월(누적) 중국의 수출은 4.8%, 수입은 7.6% 각각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5.9%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최종재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던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를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의 비중은 2022년 74.2%에서 2023년 7월(누적) 68.7%로 5.5%p 급락했다. 반면, 소비재 수출이 상반기(1~6월) 중 49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9% 증가하며, 전체 가공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p 상승하며 16.0%를 차지하였다. 소비재 수출의 선전은 화장품·의약품 등 주력 제품의 균등한 성장이 아닌, 전체 소비재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수출 영향이 컸던 영향이다.⁶⁷⁾ 따라서 하반기 이후 자동차 수출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재 증가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66) 국제금융센터, 「대중국 수출 위축 원인분석」, 2023.2.1.

67) 김꽃별, 「최근 소비재 수출 동향 및 시사점」, 『TRADE BRIEF』 NO.1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3.8.18.

[표 II-3] 가공단계별 수출, 증감률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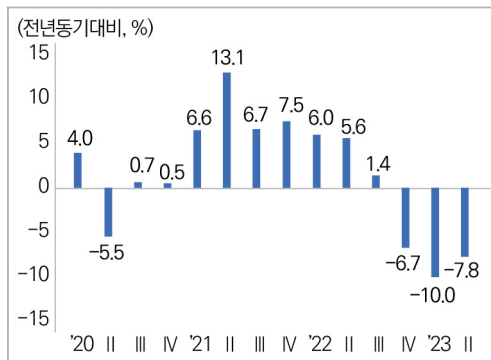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비중	전체	비중	1분기	2분기	7월	누계	비중
총계	6,444.0 (25.7)	-	6,835.8 (6.1)	-	1,513.0	1,558.3	503.5	3,574.8 (-10.4)	-
1차산품	39.4 (58.8)	0.6	44.1 (12.0)	0.6	9.8	11.2	2.5	23.5 (-20.7)	0.7
소비재	781.7 (20.8)	12.1	809.6 (3.6)	11.8	235.3	255.7	80.4	571.4 (-0.7)	16.0
자본재	954.1 (16.3)	14.8	891.4 (-6.6)	13.0	211.0	227.9	71.2	510.2 (-5.2)	14.3
중간재	4,654.0 (28.7)	72.2	5,073.3 (9.0)	74.2	1,051.0	1,059.7	346.5	2,457.2 (-8.8)	68.7
기타	14.8 (-14.9)	0.2	17.5 (18.5)	0.3	5.8	3.7	2.8	12.4 (-7.7)	0.3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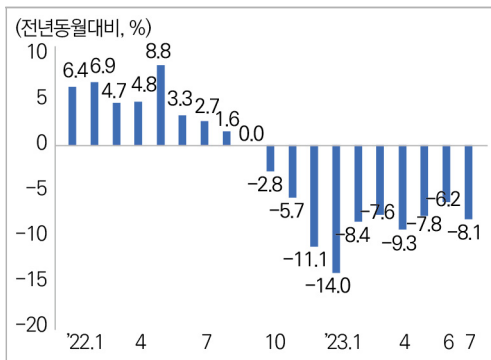
2023년 상반기 중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등은 수출 호조로 인해 생산이 늘었으나, 2022년 상반기의 생산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에 반도체, 전자부품 등 ICT 산업과 화학, 석유, 철강 등 대다수 산업의 생산 부진이 더해지며 2022년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 제조업 생산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와 2분기에는 성장세가 급격히 축소되며 각각 10.0%, 7.8% 감소하였다.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 중에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지난해 대비 안정세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각국의 긴축정책, 중국 경제의 부진에 따라 예상 밖으로 저조하였던 경제활동 재개 효과, ICT 산업에 대한 수요부진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으로 인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며 부진하였다.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ICT 산업에 대한 수요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상반기 중 안정세를 유지하였던 국제유가도 급등하면서 제조업 생산 증가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다. 월별 제조업 생산은 2022년 10월부터 전년동기대비 감소로 전환되어 2023년 7월까지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올해 1월 -14.0%로 최대 폭 감소를 기록한 후 감소 폭이 정체되고 있어, 하반기 중 ICT 산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회복된다면, 상반기의 생산 부진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6] 분기별 제조업 생산



자료: 통계청

[그림 II-7] 월별 제조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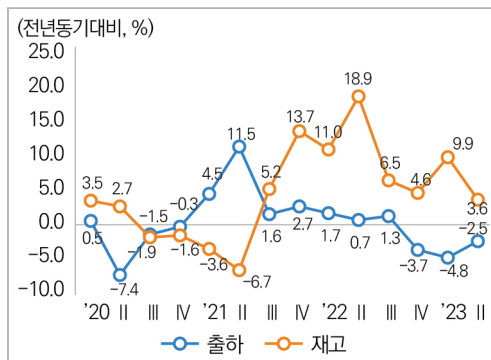


주: 2023년 7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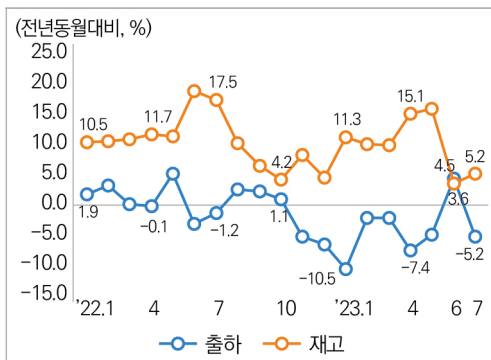
제조업 출하⁶⁸⁾는 2022년 1~3분기 중 낮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나타내다 2022년 4분기(-3.7%) 감소로 전환된 후 2023년 2분기까지 감소세를 유지하였다. 2022년 2분기를 정점으로 축소되던 제조업 재고 증가율이 2023년 1분기 중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3.6%로 증가율이 낮아지며, 제조업 출하도 감소 폭이 1분기 -4.8%에서 2분기 -2.5%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를 월간으로 살펴보면, 7월 중 재고 증가율이 5.2%로 다시 상승하면서 출하도 6월 3.6% 증가에서 7월 -5.2%로 감소로 전환되었다.

[그림 II-8] 분기별 출하 및 재고



자료: 통계청

[그림 II-9] 월별 출하 및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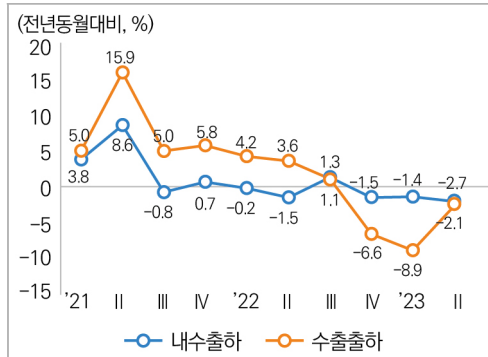
주: 2023년 7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68) 출하는 크게 내수, 수출, 타공장 및 기타 출하로 구분된다. 내수출하는 생산 또는 구입한 제품이 국내 판매업자, 타 사업체, 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출하되었거나, 다른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수출용 제품의 부품으로 출고된 경우를 의미한다. 수출출하는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다른 수출업자를 통해 간접 수출 또는 주한외국관, 면세점으로 납품한 경우를 의미한다. 타공장 및 기타 출하는 동일조사 제품을 생산하는 동일 기업내 타공장으로 출하되었거나, 선물, 견본, 전시용, 제품포장용, 설비보수용 등으로 출하된 경우를 의미한다.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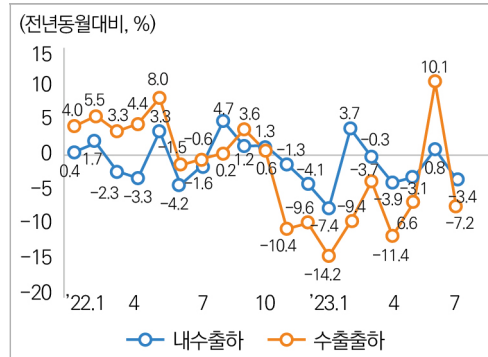
제조업 출하를 내수와 수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내수출하는 2022년 4분기 전년동분기대비 1.5% 감소한 후 2023년 1, 2분기 각각 1.4%, 2.7% 감소하였다, 수출출하는 2022년 4분기 전년동분기대비 6.6%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23년 1분기 8.9% 감소하며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가 2분기 2.1% 감소하였다. 월별 내수출하는 2023년 2, 6월에만 전년동월대비 3.7%, 0.8% 각각 증가하였고, 다른 기간에는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수출출하는 2023년 1~7월 기간 중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6월만 10.1% 큰 폭 증가 전환하였다. 6월 수출출하의 큰 폭 증가는 2023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자동차에 더해 철강, 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증가 전환하였다.

[그림 II-10] 분기별 내수 및 수출 출하



자료: 통계청

[그림 II-11] 월별 내수 및 수출 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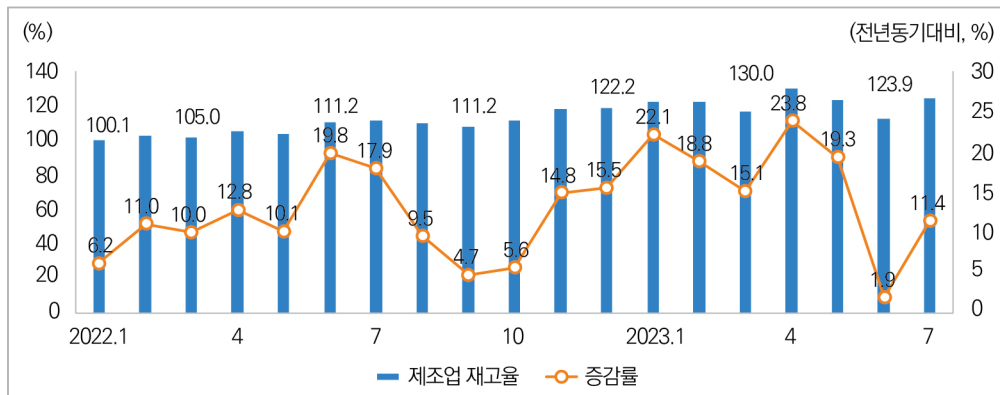
주: 2023년 7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재고율⁶⁹⁾은 2023년 중 1월 122.2%에서 4월 130.0%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2023년 7월 123.9%를 기록하였다. 재고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수출 감소에 더해 국내 소매판매(1분기 -0.4%, 2분기 -0.2%, 7월 -1.7%)가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3년 7월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 승용차 판매 증가로 내구재만 전년동월대비 증가하고,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는 감소했다. 특히 준내구재는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신발·가방 등의 판매가 줄어 6.1% 감소하였고, 비내구재는 화장품, 음식료품 등이 줄어 1.8% 감소하였다.

69)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의 비율(재고/출하 비율)을 의미한다. 재고율은 재고의 적정수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지표로 인식되는데, 재고율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재고가 출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경기가 수축국면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II-12] 제조업 재고율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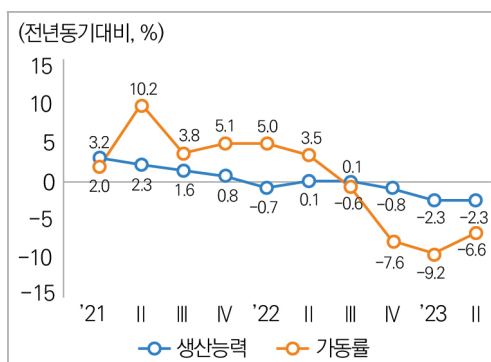


주: 2023년 7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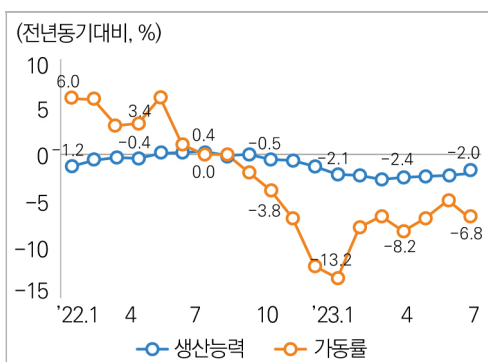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능력⁷⁰⁾은 2022년 4분기 전년동분기대비 0.8% 감소한 후, 2023년 1, 2분기 연속 각각 2.3% 감소하였고, 가동률은 2022년 4분기 전년동분기대비 7.6% 큰 폭 감소한 후, 2023년 1분기 9.2%, 2분기 6.6% 각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월별 생산능력은 2022년 10월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월별 가동률도 2022년 9월 -1.9%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3년 1월 13.2% 감소를 저점으로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다. 최근 제조업 생산감소는 제조업의 생산능력⁷¹⁾과 가동률⁷²⁾이 동시에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림 II-13] 분기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자료: 통계청

[그림 II-14] 월별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 2023년 7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70) ('22.10.) -2.8% → ('22.11.) -5.7% → ('22.12.) -11.1% → ('23.1.) -13.2%

71) 생산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였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의미한다.

72) 생산설비의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의 비율로 산출된다.

2. 전망

중국 경제의 미미한 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부동산발 불확실성까지 대두되면서 중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세계경기의 침체와 반도체 등 IT산업 관련 수출 감소, 내수 및 수출 출하의 동시 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 등 복합적 하방 요인들이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2023년 제조업 부가가치가 전년대비 0.5% 감소하였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2024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는 2023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는 세계 교역량 증가⁷³⁾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2023년 우리 수출을 견인하였던 자동차 수출이 주요국의 물가 및 금리상승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경제성장 정체 및 주요산업의 업황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석유, 화학, 일반기계 등의 수출도 둔화가 예상되어 2024년 제조업 부가가치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4]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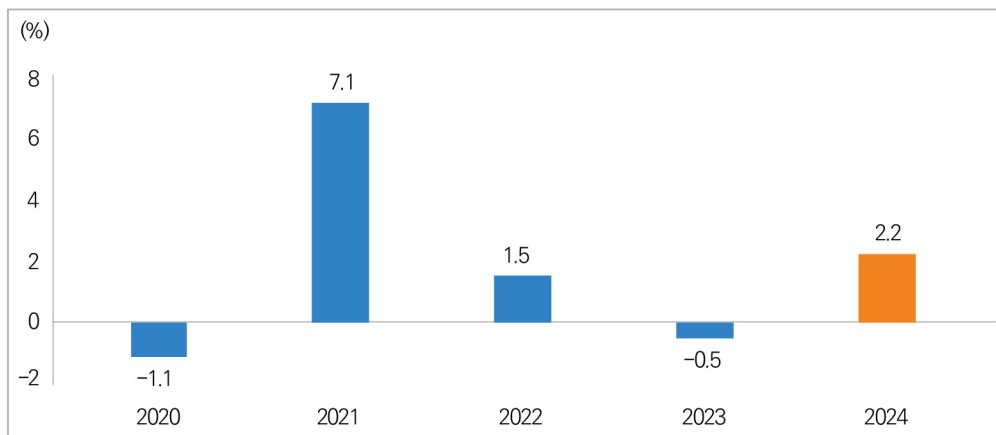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1.5	-2.0	1.0	-0.5	2.2

2023년 초부터 이어져 온 어려운 실물경제 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2024년 경기 흐름과 관련하여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상반기에는 하방 요인, 하반기에는 상방요인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대,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AI 등 IT 산업의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회복 등은 상방 요인이다. 그러나 부동산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대중국 수출 회복 지연,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 지속 가능성, 자원 무기화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에 따른 원자재가격과 국제유가 불안, 미·중 중심으로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생산 확대 등 하방요인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으로 제조업 생산 회복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73) WTO(2023.4.5.)는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에서 세계 교역증가량이 2023년에는 1.7%, 2024년에는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II-15]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상방요인)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대,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 우려 완화, AI 등 IT 산업의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회복 등은 상방 요인이다.

2023년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은 수출의존도가 가장 큰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중국 경제는 경제활동 재개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청년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고용 불안과 부동산발 리스크 확대로 내수회복이 더디고, 수출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중 마찰 등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⁷⁴⁾ 2023년 2분기부터 경제활동 재개의 효과가 경제 전부문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되었고, 수출도 세계수요 부진과 미·중 마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감소(2022년 상반기 13.8% → 2023년 상반기 -2.2%)로 전환되었다. 또한 수입도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2022년 상반기 5.6% → 2023년 상반기 -6.7%) 전환하였다. 하반기 이후에는 내수 확대, 고용안정,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정책지원⁷⁵⁾이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진, 지방정부 부채리스크, 대외적으로는 미·중 마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빠른

74)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23년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2023.8.4.

75)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2023.6.16.)는 거시경제정책 강화, 내수확대, 실물경제 부양, 중요 영역 리스크 예방 등을 강조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더욱 강력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23. 8.4.)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IMF(2023.7.)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98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22년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023년 5.2% 증가하는데 그치고, 2024년에는 5.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⁷⁶⁾⁷⁷⁾ 다만, 중국 정부의 리스크관리 정책 등으로 중국 내 소비심리가 더디지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수출품에서 소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중국 경제의 회복이 우리 수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제약요인이다.

2023년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통화긴축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고용 시장 등을 배경으로 개인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개인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자동차 등 상품소비도 늘어나면서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연율, 실질) 3.8% 증가하며 미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택 및 설비 등 민간투자 부진은 심화되었으나,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은 0.4% 소폭 감소에 그쳤다.

IMF(2023.7.)는 2023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1.8%, 2024년 1.0%로 2023년 성장률을 다른 전망 기관들에 비해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⁷⁸⁾ 다른 전망 기관들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023년 1.0~1.6, 2024년 0.8~1.1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2024년 미국 경제가 2023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는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며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⁷⁹⁾ 2022년부터 지속된 정책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수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하반기 중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연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통화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디스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어 통화긴축 기조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성장의 상하방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하방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⁸⁰⁾ 한편, 6월 FOMC 회의에서 공표된 연준의 경

76)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Near-Term Resilience, Persistent Challenges」, 2023.7.

77) OECD(2023.6.): (2023) 1.6, (2024) 1.0, World Bank (2023.6.): (2023) 1.1, (2024) 0.8, FRB((2023.6.): (2023) 1.0, (2024) 1.1

78)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Near-Term Resilience, Persistent Challenges」, 2023.7.

79)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2023년 미국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주요 이슈 포함)”, 2023.7.7.

80) 최근 뉴욕연준이 공표한 Growth-at-Risk(GaR) 지표를 살펴보면 6월 현재 향후 4분기 이후 성장률이 -1.0%를 하회할 조 건부 확률은 약 22%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성장의 하방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Outlook-at-Risk*,” <https://www.newyorkfed.org/research/policy/outlook-at>)

제전망(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에 나타난 FOMC 위원들이 판단한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2022년 말(22.12월 FOMC) 전망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증가 폭은 둔화되나 증가세는 이어갈 전망으로,⁸¹⁾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 여건도 하반기 이후 소비 및 투자 둔화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초과수요 상황이 완화되면서 호조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시기 노동력 부족을 경험한 기업들이 고용 수준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실업률 상승은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초과수요 완화로 가계의 소득 흐름이 감소하는 가운데, 신용여건도 더욱 긴축적으로 변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어,⁸²⁾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가계에서 팬데믹 기간 중 축적된 초과저축⁸³⁾을 활용해 소비에 나서는 경우 부정적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⁸⁴⁾⁸⁵⁾

(하방요인) 부동산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대중국 수출 회복 지연, 금융 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부진 지속 가능성, 자원 무기화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에 따른 원자재가격과 국제유가 불안, 미·중 중심으로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해외생산 확대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경제성장률(IMF, 2023.7.)이 2022년 3.5%에서 2023년 3.0%, 2024년 3.0% 성장할 전망이고, 세계 교역량(IMF, 2023.7.)은 2022년 5.2%에서 2023년 2.0%로 큰 폭 축소된 후, 2024년 3.7% 증가하며 회복될 전망이다.⁸⁶⁾ 2023년 세계 교역 성장이 2022년에 비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은 수출의존도⁸⁷⁾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⁸⁸⁾ 수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2024년 세계교역량 회복이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81) OECD(2023.6.): (2023) 2.7 (2024) 2.9, IMF(2023.4.): (2023) 3.0 (2024) 3.0

82) 최근 은행위기 이후 신용여건이 더욱 긴축적으로 변하면서 가계부채 수준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계부채 감소는 신용여건 악화로 인한 가계 소비여력 감소 및 이에 따른 소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JP Morgan, "Global Data Watch," 2023.6.9.)

83)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팬데믹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가계 저축액을 초과저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84) 국제금융센터, 「미국 초과저축 소진 평가 및 시사점」, 「Issue Analysis」, 2023. 9. 6.

85) 코로나19 기간 중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지출(2020~2021년 중 약 5조 달러)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제한 등으로 미국 내 저축률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2020~2021년 기간동안 약 2.1조~2.6조 달러로 추정되는 초과저축이 누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86) 자세한 내용은 본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I 권 지출부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87) 수출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88) 2021년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35.60%로 미국 7.63%, 영국 14.69% 일본(2020년) 12.72% 보다 높은 수준이나, 독일 38.6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무역의존도(OECD회원국)」)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강력한 긴축정책과 이에 따른 고금리는 국내외의 수요를 위축시켜, 세계 교역량 축소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 중 미국은 두 번째로 수출 규모가 큰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액은 2013년 기준 대중수출액의 42.6% 수준이었으나, 2023년(7월) 수출액 기준 91.9%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11차례 연속 인상하였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5.25%~5.50%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FRB)는 금리인상과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향후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된다면 미국 가계의 소비를 제약해 우리나라 수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2023년 상반기 중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의 인상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였다. 최근의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어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면,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는 경우 현재 2.0%p 수준인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져 국내 기준금리(현재 3.5%)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상 금리상승의 내수 둔화 효과는 부문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소비 둔화의 영향이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⁸⁹⁾ 소비 형태별로는 내구재와 준내구재가 금리상승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므로,⁹⁰⁾ 향후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제조업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조업은 생산능력과 가동률이 동시에 하락하며 생산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의 재고는 2023년 4월 130.0%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이다. 최근의 높은 재고 수준은 수출 감소와 국내 소매판매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이다. 특히 재고는 반도체 부문의 업황 부진에 크게 기인하는데, 2023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4.5% 감소하였다. 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을 줄이거나, 가격을 낮추어야 하므로, 높은 재고율은 제조업 생산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도체 재고는 2023년 5월 전년동월대비 80.7% 증가율을 기록한 후 7월에는 43.2% 증가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23년 5월

89) 한국은행,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BOK 이슈노트」 제2022-27호, 2022.7.27.

90) 한국은행(2022.7.27.)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25bp 상승할 때 민간소비는 1차연도에 평균적으로 0.04~0.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재고 증가율의 축소는 반도체 감산에 기인한 결과로 판매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2023년 전체 반도체 시장(-10.3%)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35.2%)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4년에는 전체 반도체 시장(11.8%)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43.2%)이 모두 큰 폭 증가로 전환이 전망되고 있다.

최근 중국 GDP의 약 25~30%⁹¹⁾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2021년 이후 장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주요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2023~2024년 기간 중 중국 부동산 관련 산업의 침체가 예상된다. 부동산의 침체는 중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하락시키고, 가계의 소비를 제약해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대중국 수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탄력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⁹²⁾ 2023년 7월(누적)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4.8%, 수입은 7.6% 각각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5.9%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최종재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던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를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 ICT 제품군에 대한 수입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중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ICT 제품의 수출이 제약을 받고 있어 우리 수출의 개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91) Tianlei Huang, "China's looming property crisis threatens economic stabilit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2.1.12.

92) 국제금융센터, 「대중국 수출 위축 원인분석」, 2023.2.1.

제2절 중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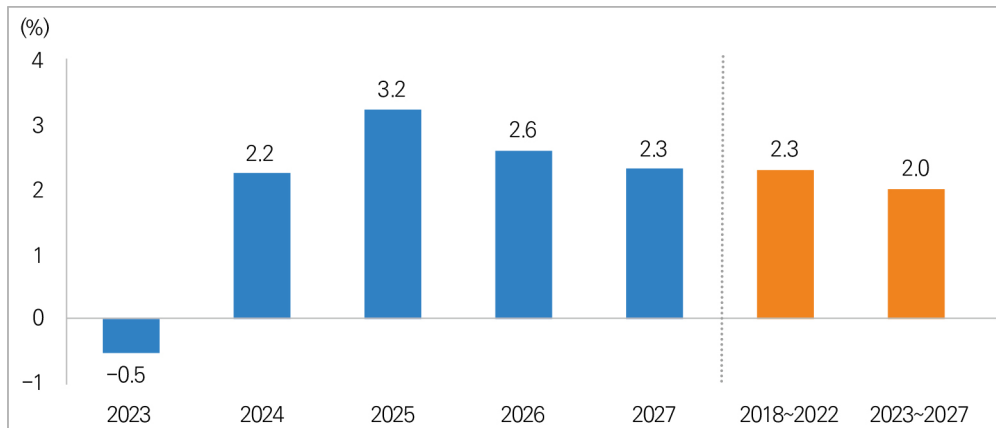
- **2023~2027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2.0% 증가할 전망**
 -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2.2%)에 비해 증가 폭 축소
 - 다만, 2023년의 낮은 성장에 기인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25년을 정점으로 증가세 둔화

(전년대비,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2022	2023~2027
-0.5	2.2	3.2	2.6	2.3	2.3	2.0

2023~2027년 기간 중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2.0%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5년(2018~2022)간은 2019년의 낮은 성장과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성장하면서 연평균 2.3% 증가하였다. 향후 5년(2023~2027)은 지난 5년보다 0.3%p 낮은 증가율이 전망된다. 제조업은 2023년에서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대중국 수출 개선세 약화로 저성장이 전망된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차츰 회복되며, 2025년 정점을 기록한 후 우리 산업의 성숙화로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며 2% 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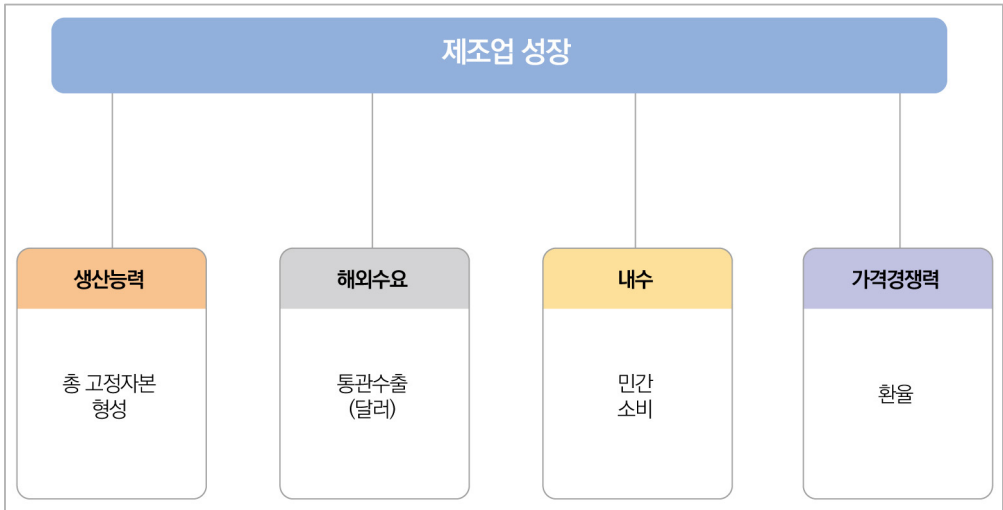
[그림 II-16] 중기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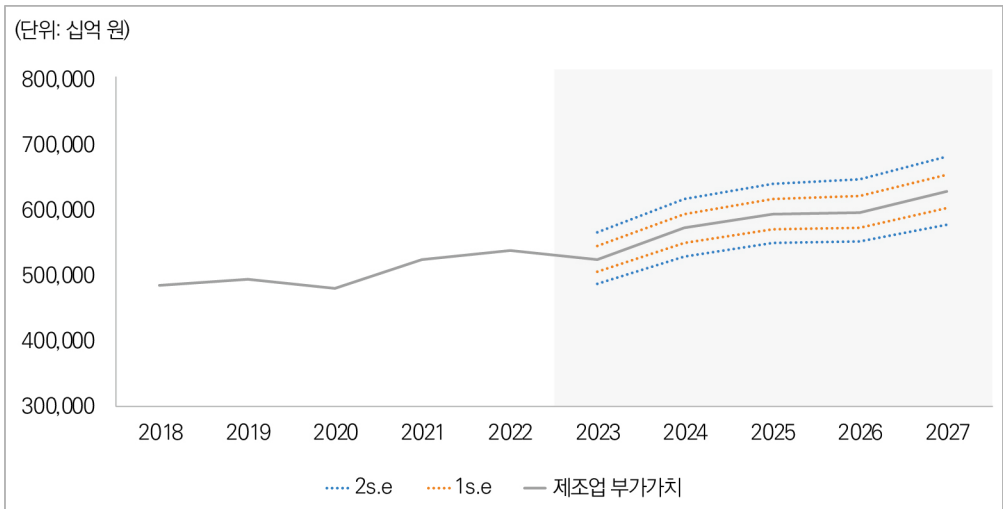
중기적으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음의 몇 가지 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조업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민간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 우리 제조업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고려한 통관수출(달러), 국내 수요의 대용변수로 민간소비, 가격 경쟁력의 대용변수로 환율을 사용하여 전망하였다. 다음 그림은 전망의 전제가 되는 각 요인과 제조업 부가가치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17] 제조업 실질부가가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I-18]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3장

서비스업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전년(2.3%) 보다 0.3%p 낮은 2.0%로 전망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4.2	2.7	1.9	2.3	2.0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대내외 여행 활성화	•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 친환경차 수요 증가	•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일부 서비스업의 수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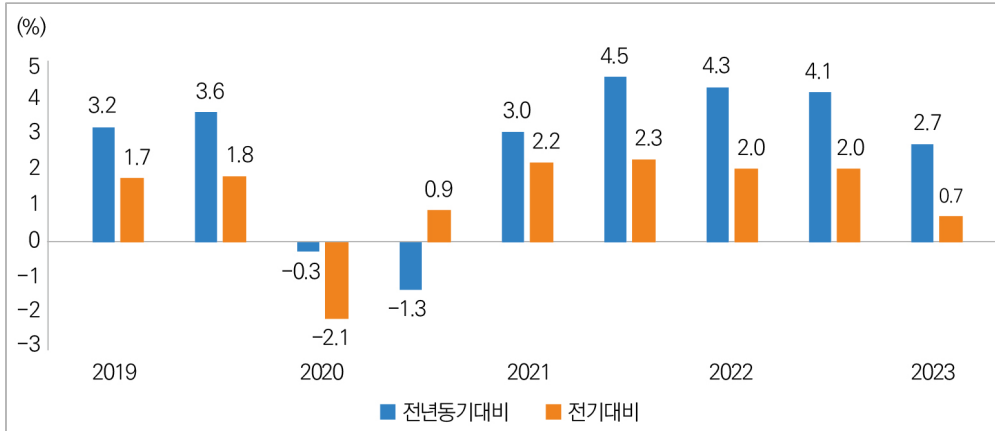
(총평) 2024년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물가와 임금의 상승 등으로 생산 비용도 증가하면서 2023년 대비 증가세가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2024년 물가상승률이 2.4%로 2023년 물가상승률(3.4%)에 비해 낮아짐에 따라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하방압력은 2023년에 비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3년부터 허용된 중국인 단체관광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외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운수업과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전망된다.

가. 동향

2023년 상반기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운수업,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전기대비 0.7% 증가하였다.

[그림 II-19]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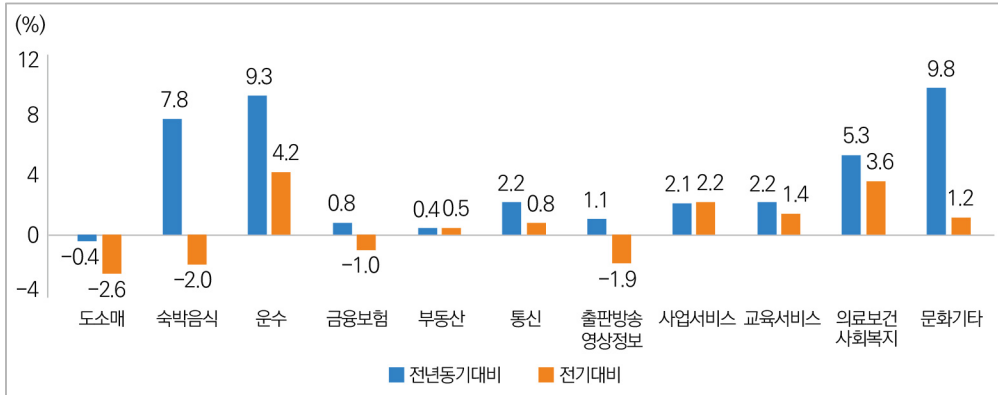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의 경우 실질부가가치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0.4%, 전기대비로 2.6%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로 소비와 투자 여력이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매업 재고지수가 올해 1~2분기에 10% 이상 증가하였는데 기타기계장비와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도매업의 부진 등이 두드러졌다. 다만,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차량용반도체 수급안정, 신차 출시와 더불어 전기차 구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친환경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⁹³⁾ 2023년 6월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7만대로 전년말 대비 1.0%(91.8만대) 증가하였는데, 이 중 친환경자동차가 29.0%인 26.7만대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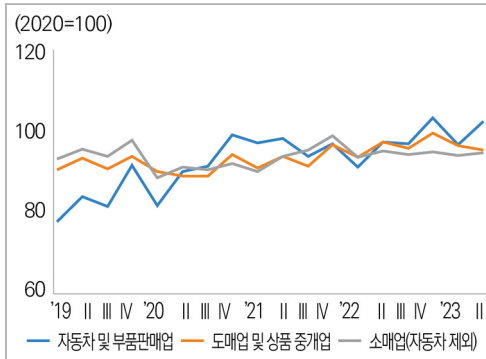
93) 전기승용차 구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은 전년에 비해 31% 증가한 21만대이다.

[그림 II-20] 서비스업 업종별 부가가치 증감 현황(2023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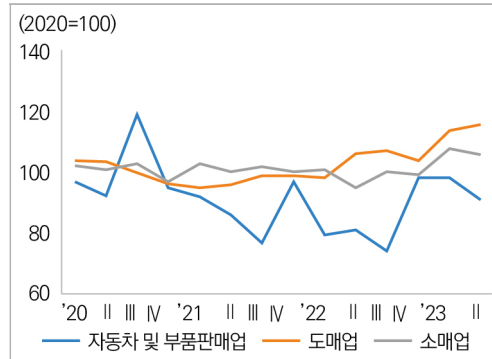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21] 도소매업 산업생산지수 추이



[그림 II-22] 도소매 재고액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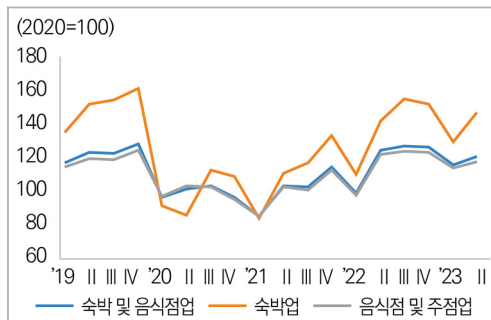


2023년 상반기 숙박음식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하였으나 전기대비 2.0% 감소하였다. 숙박업을 중심으로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8.6%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기저효과와 기상 여건 악화로 0.7% 감소하였다. 숙박업의 경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질부가가치가 2022년 17.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 상반기에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방한 외래관광객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호텔과 리조트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⁹⁴⁾⁹⁵⁾

94) “2023년 상반기 호스피탈리티 데이터&트렌드 리포트,” Report&Data, ONDA blog, 2023.8.29. <<https://corp.onda.me/report/2023-1h-hospitality-data-trend-report>, 접속: 2023. 8. 31>

95) 방한 외래 관광객수는 2023년 상반기에 443만명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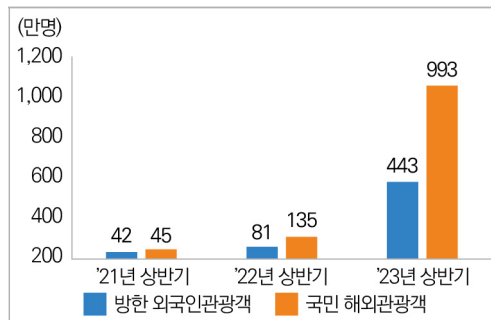
[그림 II-23] 숙박음식업 산업생산지수 추이



주: 불변지수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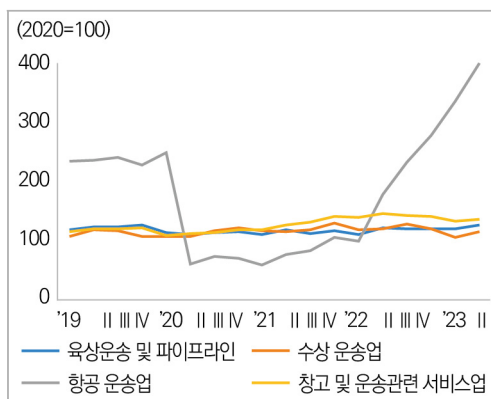
[그림 II-24] 관광객 추이



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

2023년 상반기 운수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육상운송과 항공운송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9.3%, 전기대비 4.2%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국내관광 및 해외 관광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특히 국민 해외관광객이 2022년 상반기 135만명에서 2023년 상반기에 993만명으로 7.4배 증가하였다. 한편 항공 운송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국제 유가가 2022년 6월(116.8달러/bbl)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원 달러 환율도 2022년 10월(1,426.7원/달러) 이후 낮아져 운수업의 실질부가가치 상승세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항공운송서비스의 생산자물가가 2023년 1분기에 1.1% 증가였으나 2분기에는 -17.9%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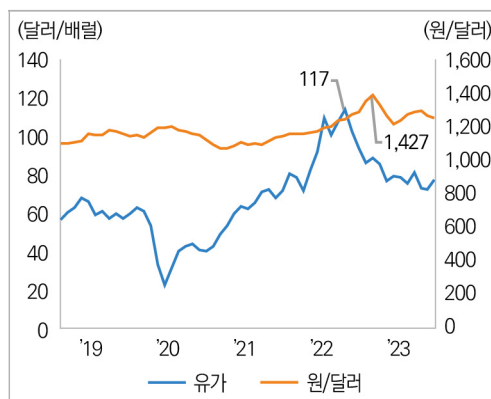
[그림 II-25] 운수업 산업생산지수 추이



주: 불변지수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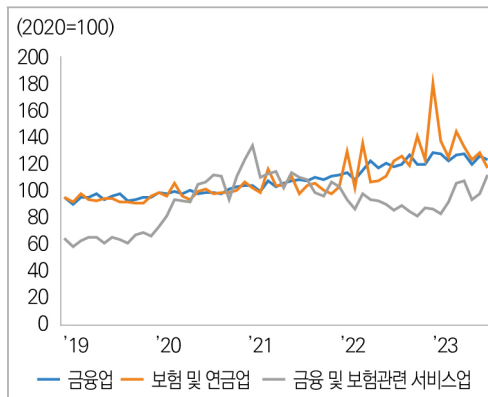
[그림 II-26] 유가와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세계은행,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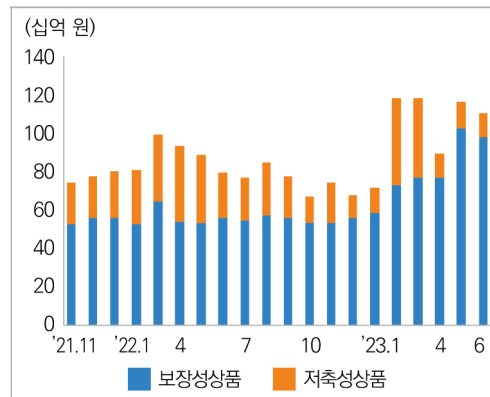
2023년 상반기 금융보험업의 실질부가가치는 금융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한 반면 전기대비 1.0% 감소하였다. 금융업의 경우 대출잔액, 고금리에 따른 이자와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의 증가로 2023년 1분기에는 은행 및 저축기관, 2분기에는 기타금융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 등의 판매 증가, 회계제도 개선⁹⁶⁾, 퇴직연금 상품의 변경⁹⁷⁾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⁹⁸⁾ 생명보험사의 보장성보험 신계약액은 2023년 상반기 동안 4,86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7% 증가하였다. 한편 2023년 2~3월에 저축성보험 신계약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 하반기 예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금리가 낮은 저축성 보험이 많이 해지되고 2023년 출시된 고금리 저축성 보험 판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에 반해 2023년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신계약액은 1,39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8% 감소하였다.

[그림 II-27] 금융보험업 산업생산지수 추이



주: 불변지수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II-28] 생명보험 상품 판매 추이



자료: 생명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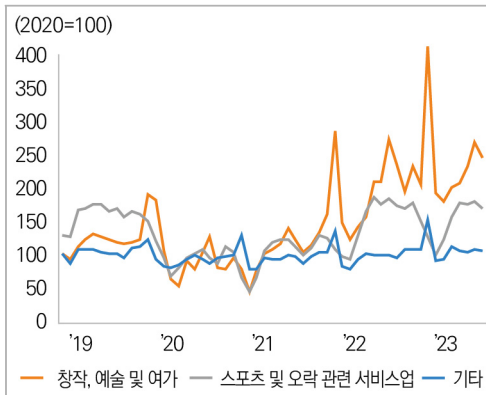
96) IFRS9 도입에 따라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귀속되는 유가증권이 증가하면서 금융상품의 평가이익이 상승하였다. 또한 IFRS17 도입에 따라 신계약비 이연(비용인식) 기간이 7년에서 전체 보험기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기 비용이 감소하였고 보험계약 이자비용이 보험손익에서 투자손익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손익이 증가하고 투자손익은 감소하였다.

97) 2022년 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금리 등을 변경하여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9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금융감독원, 2023.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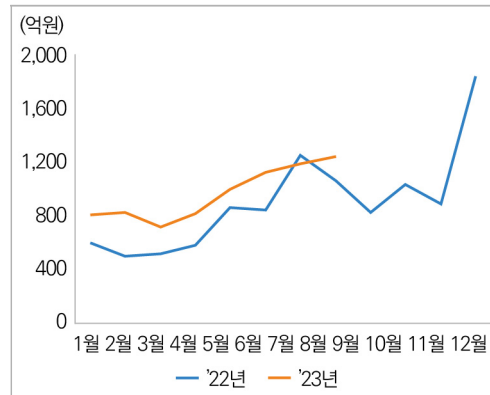
2023년 상반기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창작·예술·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9.8%, 전기대비 1.2%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19 이후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한 예로 공연관람의 경우 2023년 1~8월 공연 티켓판매 건수는 13,33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하였고 입장권 판매액은 7,40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7% 증가하였다.

[그림 II-29]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산업생산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II-30] 공연티켓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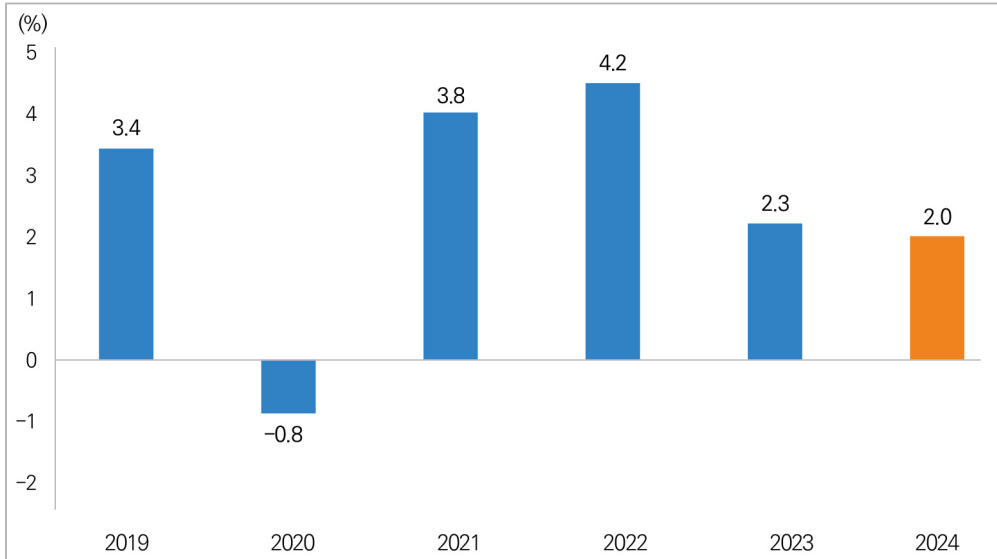


자료: 공연예술전산망

나. 전망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는 2023년 2.3%로 전년대비 1.9%p 감소할 전망이다. 운수업, 숙박음식업, 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2023년 하반기 서비스업 부가가치 상승률이 2023년 상반기(전년 동기대비 2.7%) 보다 낮은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져 2024년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은 2.0%에 그칠 전망이다.

[그림 II-31]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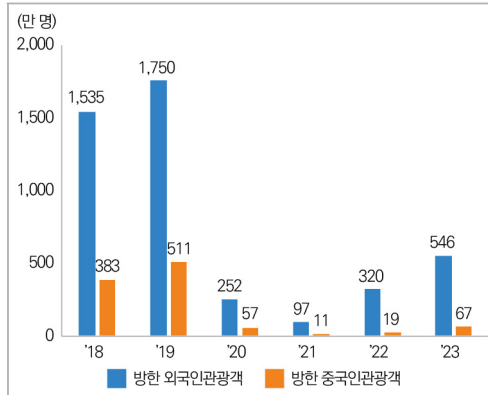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상방요인) 국내외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운수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외국인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한 외국인관광객은 2023년 1~7월까지 546만명으로 작년말 대비 71% 늘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당분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는 8월 10일부로 한국에 대한 중국인 단체관광을 허용하였다.⁹⁹⁾ 중국 정부는 2017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을 금지하였다. 중국인 단체관광이 2017년과 2018년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면 중지되면서 방한 중국인관광객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방한 중국인관광객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항공운수업, 숙박업, 여행업과 면세점 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¹⁰⁰⁾

9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중국 단체관광 재개 계기, 중국 관광객 유치 본격 시,” 문화체육관광부, 2023.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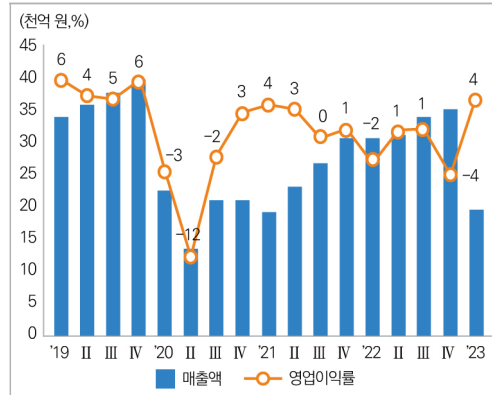
100) 류연주·원종현, “호텔/면세산업 2023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전망: 본격적인 엔데믹 전환에 힘입은 영업 실적 개선, 재무부담 변동은 모니터링 필요,” KIS Issuer Comment, 한국신용평가, 2023.7.6.

[그림 II-32]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추이



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

[그림 II-33] 주요 면세점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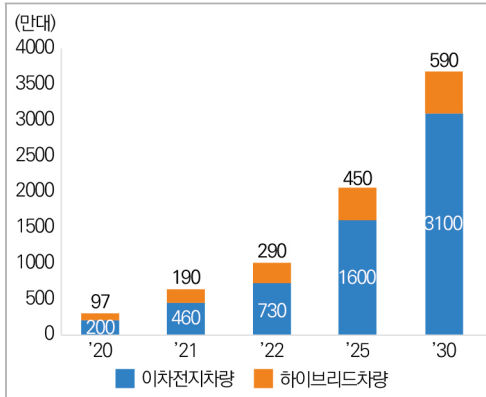
주: 호텔롯데(연결, 면세부문), 호텔신라(연결, 면세부문), 부산롯데호텔(별도, 면세부문), 신세게디에프(별도) 4개사 합계액 기준

자료: 한국신용평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실질부가가치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020만대(신차 판매량의 14%)에서 2023년에 2,050만대(23%), 2030년에 3,690만대(36%)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전기차 가격의 하락, 다양한 모델의 출시, 보조금 정책 및 세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IEA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되면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22년 신차 대비 7.6%에서 2026년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⁰¹⁾ 우리나라 정부도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중대형 전기승용차에 대해 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매년 100만원씩 감액되어 2023년에는 500만원 지원되고 있다. 다만, 지원물량은 21.5만대로 전년(16만대)에 비해 약 31% 증가하였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친환경차량 판매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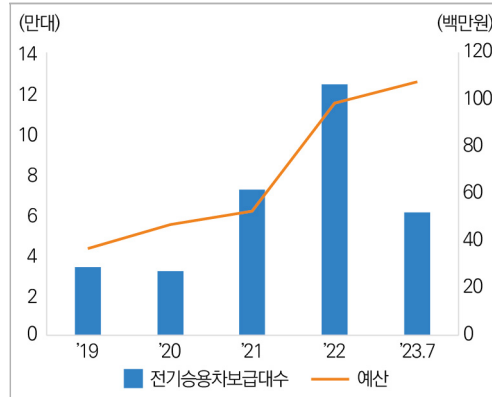
101) 김준희, “글로벌 전기차(EV) 시장 전망과 시사점,” KOTRA 해외시장뉴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7.2.

[그림 II-34] 세계 전기차 판매량 전망



자료: IEA

[그림 II-35] 전기승용차 예산 및 지원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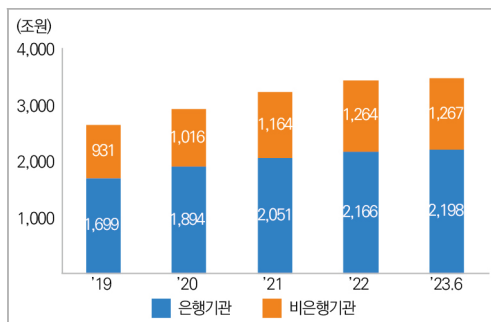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한편 2023년 하반기부터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서비스 생산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22년 5월 102.9에서 7월 86.3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2023년 8월 103.1에 이르렀다. 다만, 9월 들어 수출 부진 우려, 체감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4p 다소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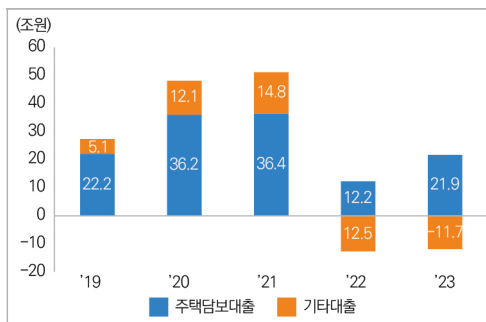
(하방요인)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은행과 비은행의 대출잔액은 3,464조원에 이르고 있다. 비록 대출잔액 증가율이 전년 말에 비해 1.0% 증가로 둔화되었지만 최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7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변동은 10.1조원으로 전년동기(-0.2조원)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과 정부의 대출규제(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로 기타대출이 감소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동기간 21.9조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 비록 가계대출 금리가 2022년 12월 5.64%(신규대출 기준)에서 2023년 6월 기준 4.81%으로 다소 하락하였지만 일부 취약차주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가계대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40.3%에 이르고 있다.

[그림 II-36] 은행기관과 비은행기관의 대출잔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37] 은행 대출잔액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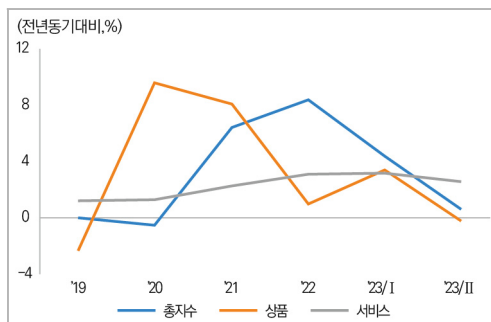


주: 각년도 1~7월 대출잔액 증감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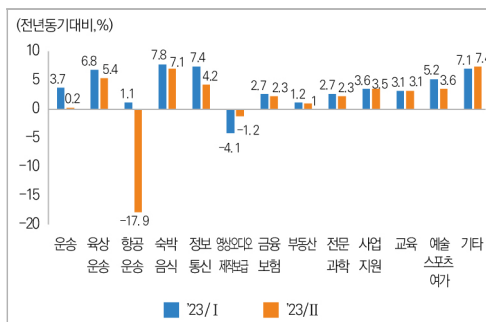
생산자물가 상승이 서비스업의 비용 증가와 서비스 소비 감소로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4%였으나 공산품 생산자물가상승률이 -3.1%로 하락하면서 2분기에 0.6%로 둔화되었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1분기 3.2%, 2분기 2.6% 증가하였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비용에서 식재료와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의 경우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8%, 7.1%의 증가하였다. 기타(자동차소모용품수리 및 개인서비스)업도 7.1%, 7.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도 운송업에서 육상운송이 6.8%, 5.4%로 증가한 반면, 항공운송은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2분기에 17.9%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 높아 소비자물가로 전가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감소될 경우 실질부가가치의 증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38]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39] 서비스 업종별 생산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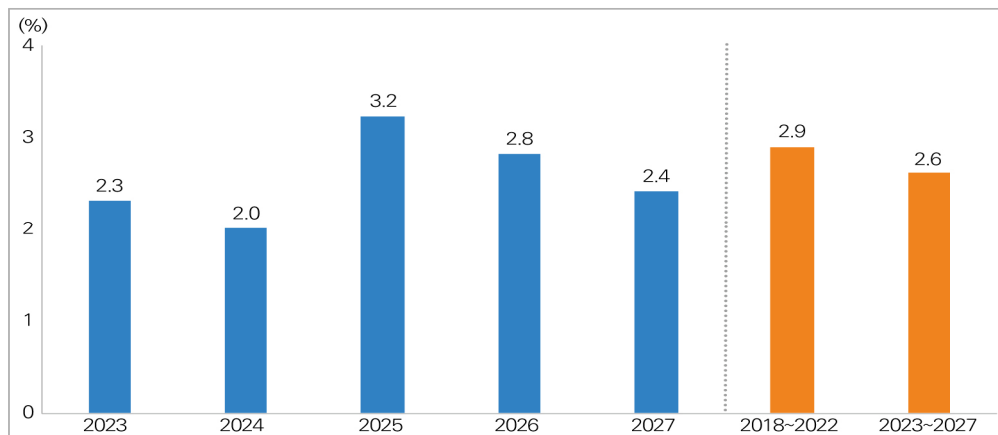
제2절 중기 전망

- **2023~2027년 중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는 연평균 2.6% 증가할 전망
 -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2.9%)에 비해 0.3%p 감소
 - 이는 수출부진, 고금리 유지로 인한 일부 서비스업의 소비 부진에 기인하며 2025년 경기 회복에 따라 다소 회복되었다가 점차 둔화될 전망
- (전년대비,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2022	2023~2027
2.3	2.0	3.2	2.8	2.4	2.9	2.6

2023~2027년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는 연평균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연평균 상승률 2.9%보다 0.3p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가 2025년에 3.2%로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가운데,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다만 이런 추세는 2025년을 정점으로 2027년까지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그림 II-40] 중기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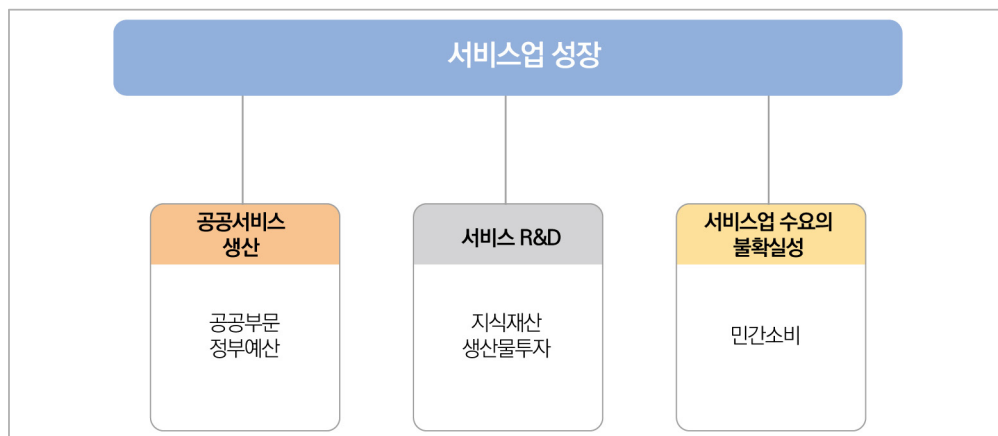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전망모형에서는 민간소비, 지식재산생산물투자(전년도), 공공부문 정부예산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경제성장의 둔화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대내외 충격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될 경우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망모형에서는 민간소비가 대내외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 참고로 2022년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870조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499조원으로 최종소비지출의 39.3%를, 민간소비의 54.4%를 차지한다.

서비스업에 있어서 기술적 진보는 중요한 성장 요소이다. 전망모형에서 기술적 진보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로 전년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사용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오락, 문학 및 예술작품 등 지식재산생산물을 포함한다. 재화가 아닌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서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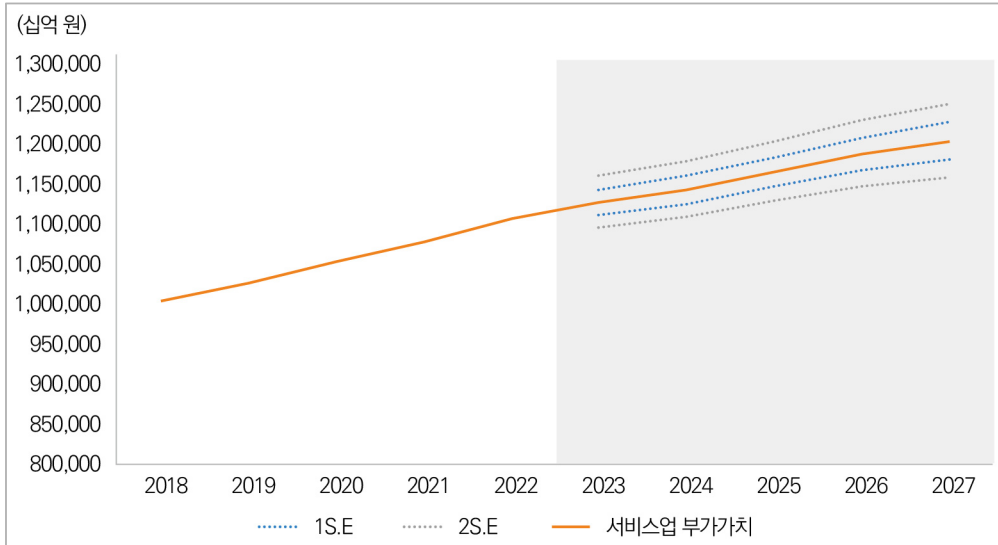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정부 예산이 증가한 만큼 서비스업의 생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 중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국방 등 공공부문의 실질부가가치는 2022년 기준으로 총부가가치의 17.1%를 차지한다. 참고로 2017~2021년 동안 일반정부 총지출 중 사회보호, 보건, 교육, 국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9%, 10.8%, 7.5%, 8.0%였다.

[그림 II-41]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42]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건설업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도(1.1%) 대비 1.5%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0.7	5.2	-2.3	1.1	1.5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금융규제 완화 - 분양물량 조정 - 주택시장 저점 점근 중	- 고금리로 시장 경색 및 자금조달 애로 - 원자재 확보 곤란 - 경기 하방압력 여전

(총평) 2024년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대비 증액된 SOC 예산과 하반기 이후 건설시장 자금경색이 완화될 것을 고려하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3년 건설기성을 제외한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아파트 분양물량 등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어 성장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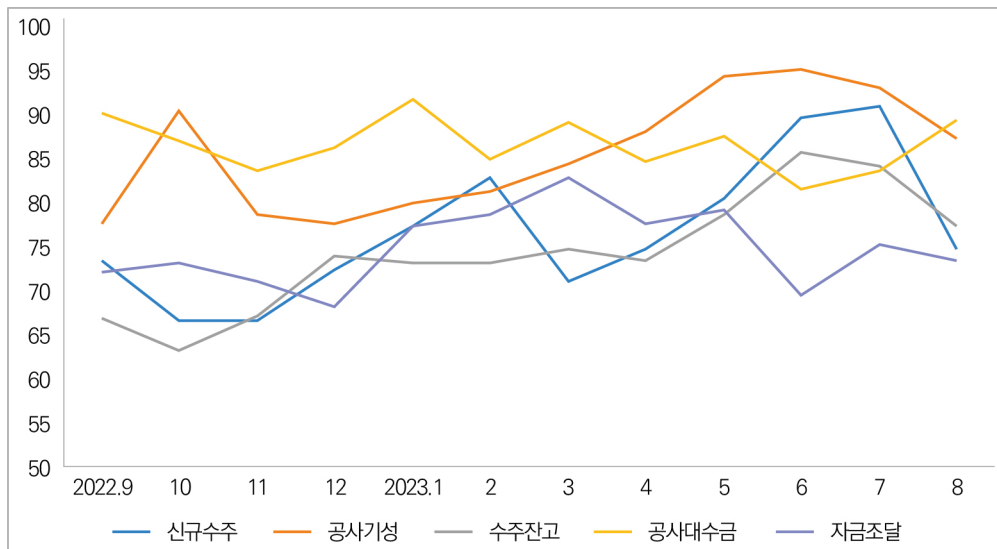
1. 동향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5.2% 상승하여 산업부문의 경제적 성장세를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저효과로 인한 부분이 컸고,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과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제 전

김용균 경제분석관(kimyk0909@assembly.go.kr, 6788-4791)

반에 걸친 하방 압력의 영향으로 2023년 하반기 들어 모든 지표에 걸쳐 건설업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 8월 들어 신규수주가 급격히 줄어 향후 건설경기가 반등하는 모습을 쉽게 보여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43] 부문별 실적지수



주: 지난달 수준을 기준으로 산출하기에 전월대비 증감만 비교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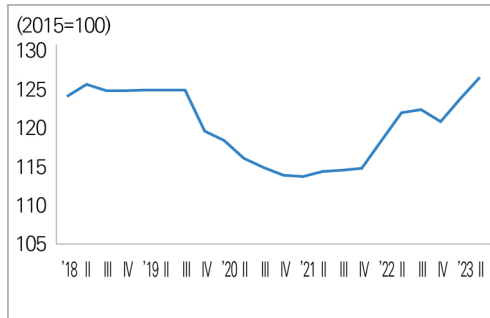
단기간 내 극적인 반등을 보이기 힘든 건설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 건설업 관련 지표들의 부진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여러 경기 불확실성 가운데에도 2024년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면, 건설업 경기 또한 우리 경제와 같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하며 2023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 상반기의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한 호실적에 대비하여 급격한 건설경기 둔화세에 기인한 것이다. 금융규제 완화로 단기적 불안감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PF¹⁰²⁾ 연체율이 증가하며

102)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사업성과 그 사업으로 인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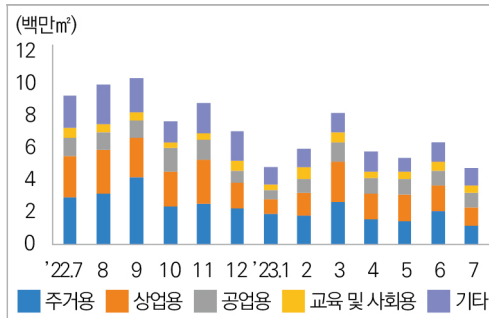
건설업 자금시장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주택 분양물량 조정으로 수요회복으로 이어지는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경제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경기하방압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은 건설 시장 경색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야기하여 건설업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며 노동력 확보 또한 곤란한 상황으로 단시간 내에 복합적인 하방압력이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경기 둔화는 건축착공 면적에 반영되며 최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주거용 및 상업용 모두 착공 면적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건설 종합전망지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의 선행지수인 건축허가 면적 또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허가의 경우 주거용 건축면적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44] 건설업 원재료 국내 공급물가지수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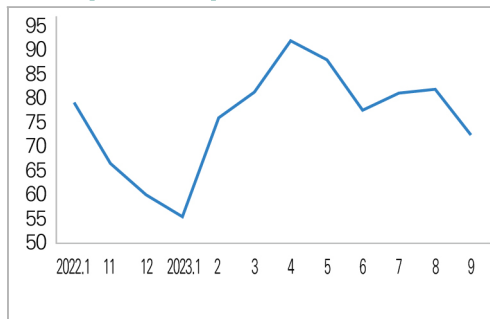
[그림 II-45] 용도별 건축착공 현황



주: 2022년 7월부터 새로운 기준 통계 집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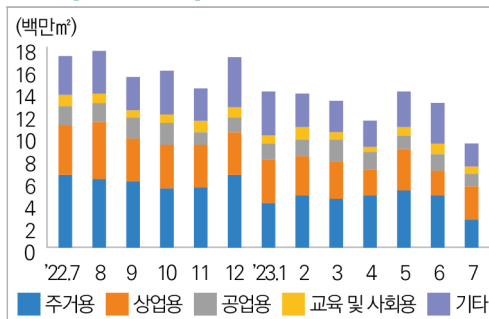
[그림 II-46] 건설 종합전망지수



주: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그림 II-47]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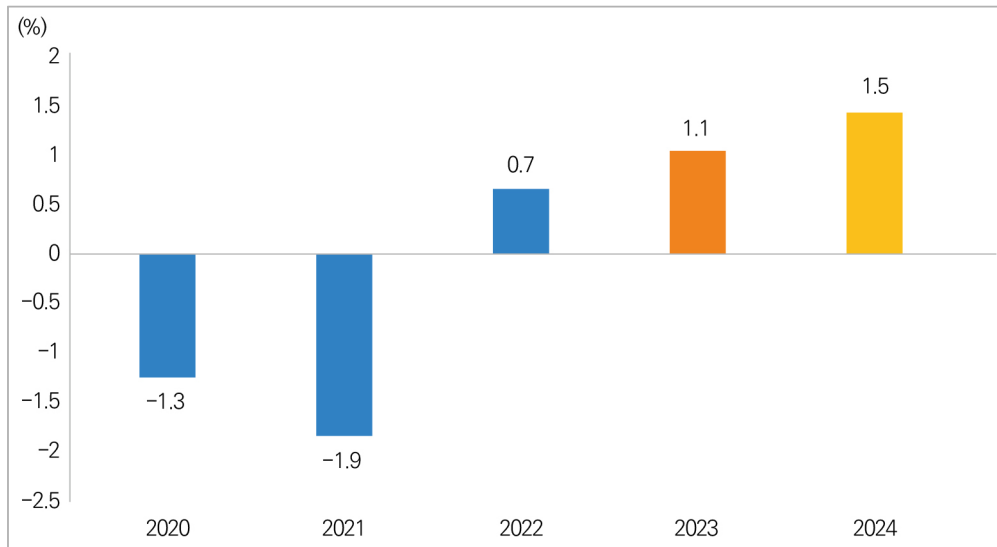


주: 2022년 7월부터 새로운 기준 통계 집계

자료: 통계청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9월 종합전망지수는 전월대비 8.9%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0.0% 감소하였다. 이는 건설업 부문 기업들은 경기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수주, 공사기성, 수주잔고, 공사대수금, 자금조달 모든 부문에 걸쳐 9월 전망이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수주잔고를 제외하고는 전년동월대비로도 모두 감소하였다. 신규수주 공종별로도 모든 토목, 주택 부문은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더욱이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4년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추세를 같이하여 2024년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48]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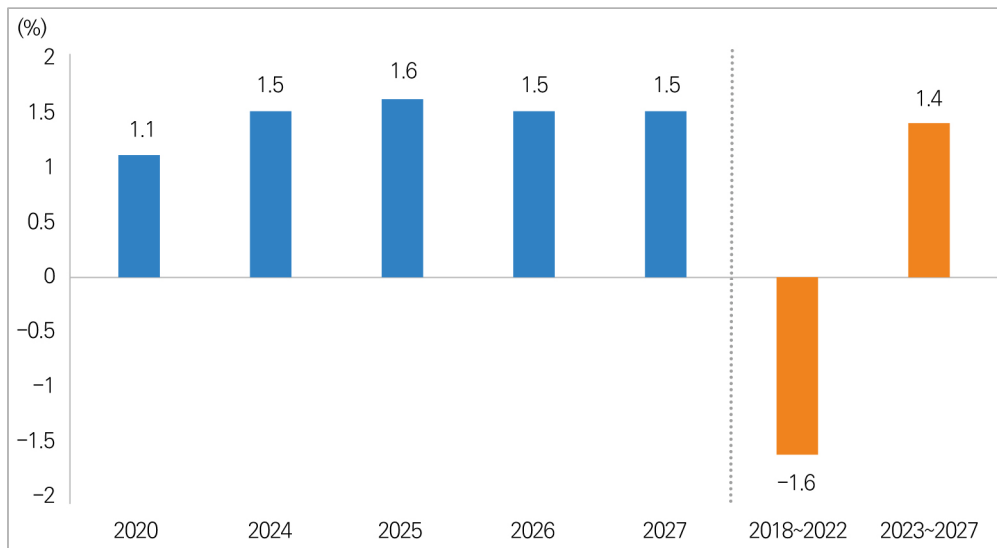
제2절 중기 전망

- 2023~2027년 간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는 연평균 1.5% 증가
 -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1.6%)에 비해 증가폭 확대
 - 2024년 한국경제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건설업 또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
(전년대비,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 ~2022	2023 ~2027
1.1	1.5	1.6	1.5	1.5	-1.6	1.4

2023~2027년 건설업의 실질부가가치는 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인 -1.6%보다 3.0%p 높은 수준이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업은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에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전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하여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였으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의 성장세 또한 추세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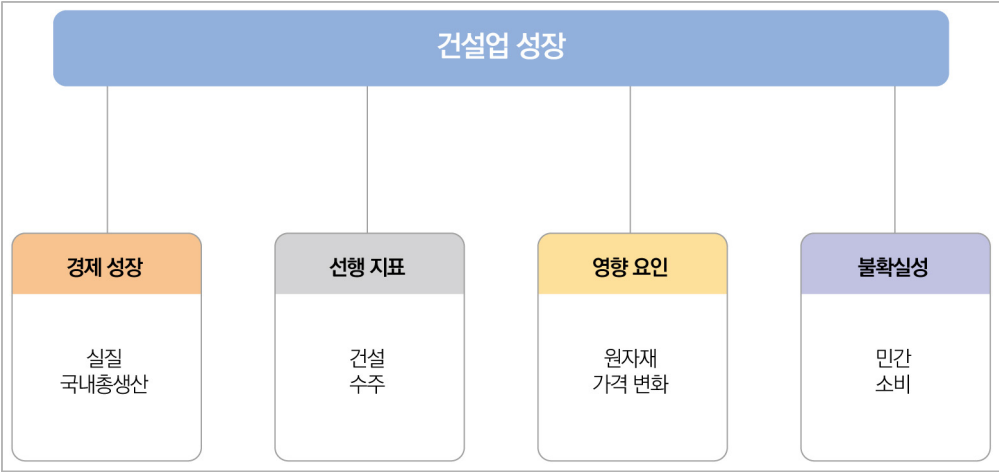
[그림 II-49] 중기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건설업 실질부가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우리 경제의 경기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 건설업 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건설업 경기에 영향을 미칠 원자재 가격 및 민간소비 등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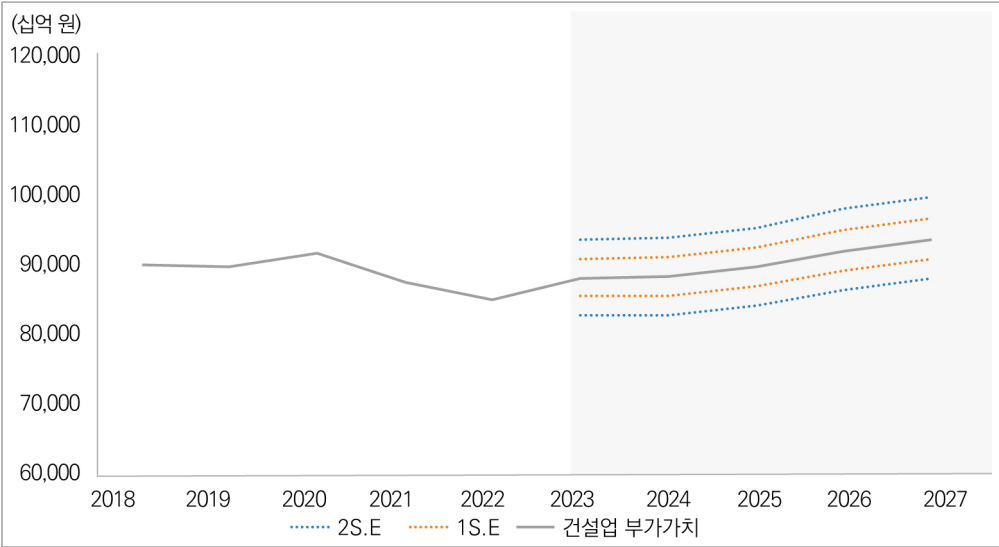
[그림 II-50] 건설업 실질부가가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래 그림은 건설업에 대한 전망모형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51]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제1절 2024년 전망

- 2024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전년(-0.8%)보다 1.5%p 높은 0.7%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1.9	-5.6	4.8	-0.8	0.7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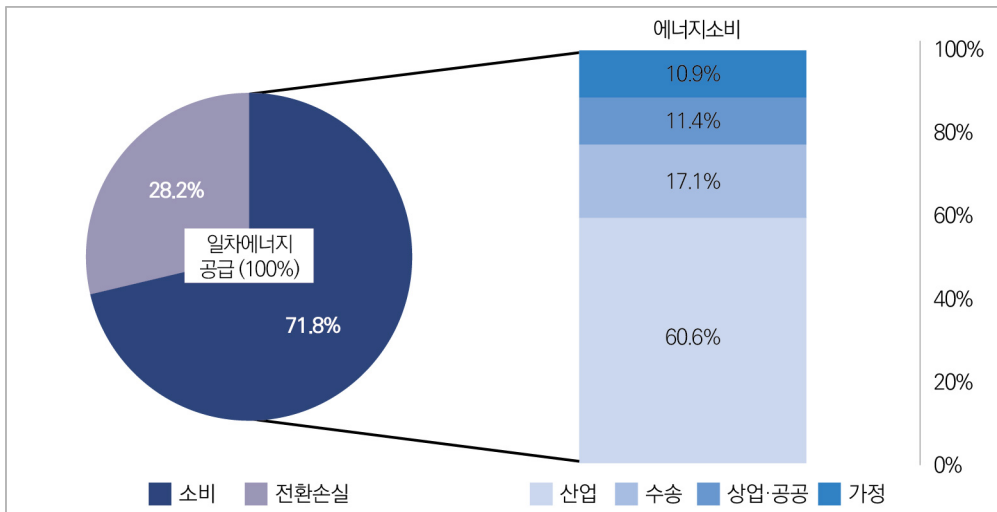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제조업 생산 회복으로 전력 수요 증가 • 원자재·에너지 가격 안정 •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수요 증가 전망	• 경기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산업용 전력수요 둔화 • 에너지 요금 상승분 반영에 따른 물가 상승 •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총평) 2024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가가치는 올해 에너지 요금 상승분 반영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부진한 성장률(-5.6%)을 보였던 상반기에 대한 기저효과와 제조업 생산 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며, 2023년 대비 0.7%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에너지 요금 상승분 반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서비스업의 낮은 성장률 전망,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 폭은 매우 제한적일 전망이다.

1. 동향

전기·가스·수도사업은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내 주력 산업의 생산구조는 에너지 집약적이며, 2022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6%로 가장 크다. 이에 제조업 경기 동향에 영향을 받는다.

[그림 II-52]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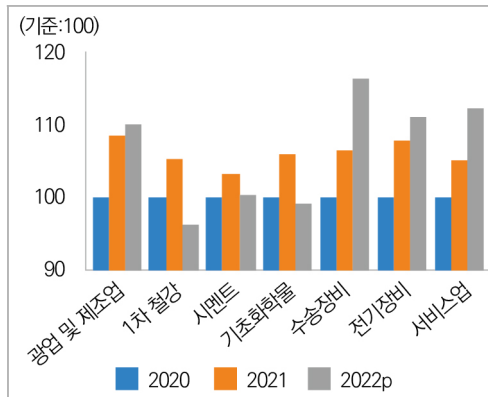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3년간의 업종별 산업생산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광업 및 제조업은 생산지수 증가 폭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 종별 비교 시 1차 철강, 시멘트, 기초화학물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수송장비와 전기장비 부문은 전년대비 산업생산 지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유제품 수입 가격 비교 시, 원유 수입 가격은 2020년 이후 증가하였으나, 휘발유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용도별 판매전력량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의 전력소비 비중이 가장 크고 서비스업, 주거, 공공, 기타(광업, 농림어업) 순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전력 소비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한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전기요금은 1분기에 13.1원/kWh로 전분기 가격 인상폭(7.4원/kWh)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분기에도 8원/kWh를 추가로 인상하였다. 하지만 2023년 전기요금 인상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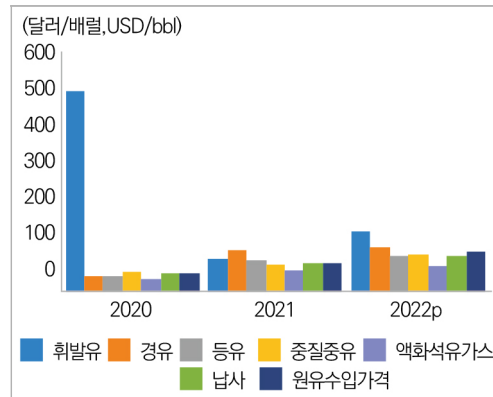
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51.5원/kWh으로 밝힌 만큼,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인상분보다도 더 올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2021년 이후 누적된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인상으로 보인다.¹⁰³⁾

[그림 II-53] 업종별 산업생산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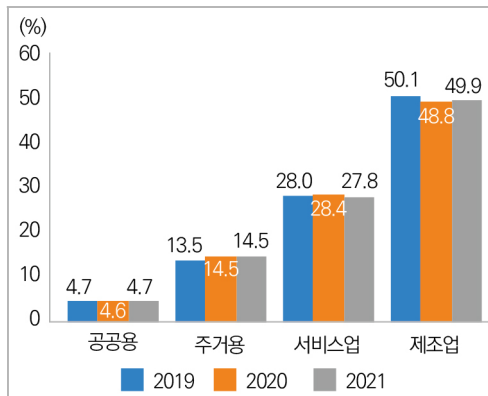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그림 II-54] 석유제품 수입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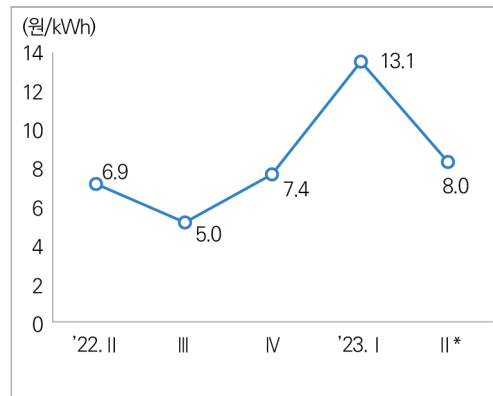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그림 II-55] 용도별 판매전력량



주: (년) 전년동계치를 매년 7월경 갱신
자료: 한국전력통계

[그림 II-56] 전기요금 인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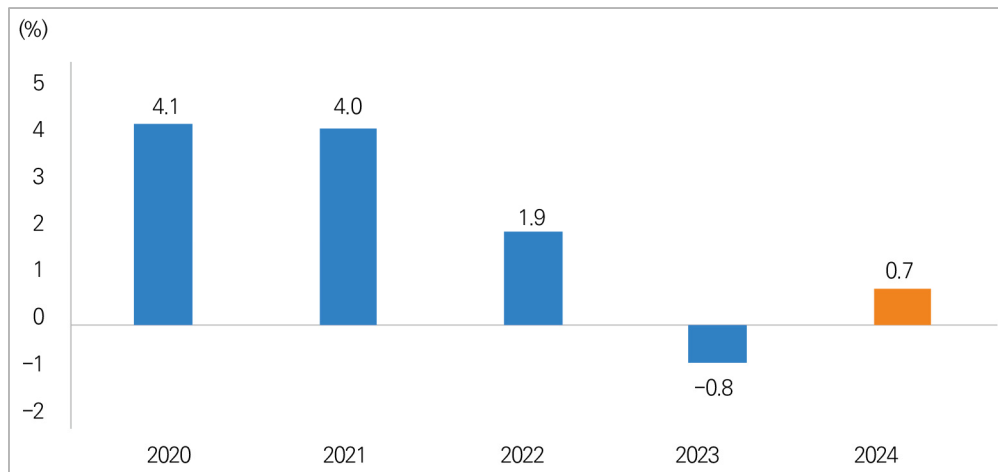
주: *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자료: 한국전력공사

103) 한국전력공사 영업이익 추이: 2021년, -539조원 → 2022년, -32.7조원→2023년 1분기, -6.2조원,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2. 전망

2024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부가가치는¹⁰⁴⁾ 전년대비 1.5%p 상승한 0.7% 증가가 예상된다. 2020년 이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부가가치를 비교해 보면 증감 폭이 작아지는 추이를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변동 폭이 컸던 경기가 둔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II-5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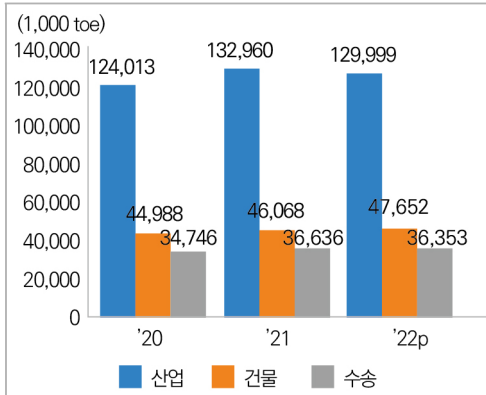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수출부진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활동 감소는 2023년에 더욱 심화되었고 2024년에도 상반기까지는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총에너지 소비도 감소하고 전력수요 증가율도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수송, 산업 부문 중 에너지 수요 감소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부문은 산업 부문이다. 그리고 연초 난방비 대란으로 인해 가구들의 에너지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고 냉난방도일¹⁰⁵⁾도 감소하여 건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기온 변수가 과거 평균치와 차이가 크게 날 때 건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104) 전기·가스·수도사업의 부가가치는 국민계정 상 생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구조는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순생산물세로 구성되는데 이중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약 2%를 차지한다.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기간산업으로서 발전 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모든 생산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기에 그 역할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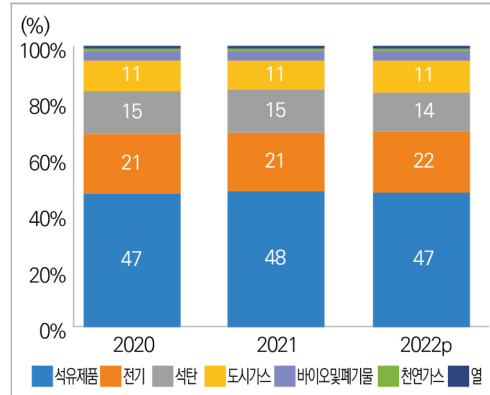
105) 냉난방도일은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연료 소비량에 대한 기후지수이다.

[그림 II-58] 부문별 에너지 최종소비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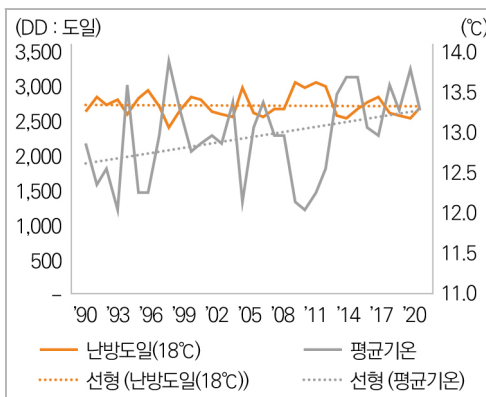
[그림 II-59] 에너지 원별 최종소비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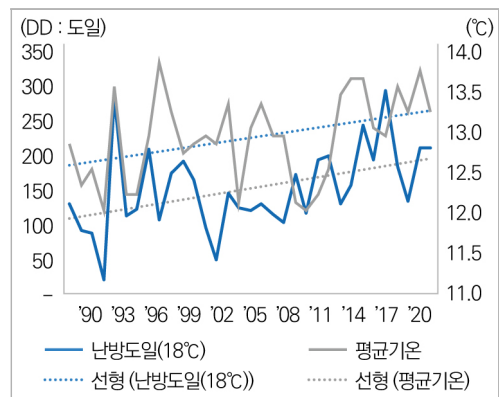
2023년 상반기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원자재·에너지 가격이 소폭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하반기 이후 원자재·에너지 수요에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주요 산유국의 추가 감산 조치로 인해 공급도 축소되면서 원자재·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IT 업종의 회복 등으로 국내기업의 수출 및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냉방수요 및 겨울철 기온하락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와 추가적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또 다른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상고온 및 저온 현상에 따른 냉방수요의 증가는 에너지 사용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APEC 기후센터에 따르면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전 지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림 II-60] 난방도일(18℃)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그림 II-61] 냉방도일(24℃)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제2절 중기 전망

- 2023~2027년 중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연평균 1.2%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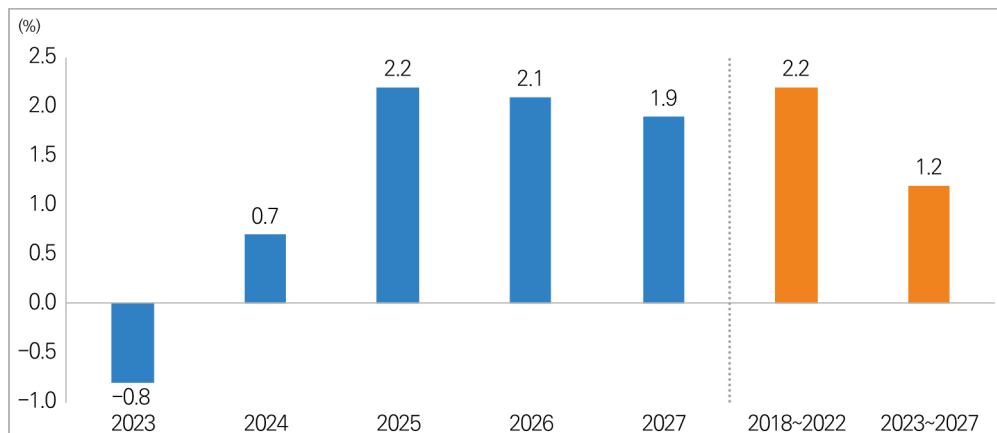
-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2.2% 증가)에 비해 증가폭 감소
- 지난 5년간의 급격한 경제성장률 변화, 에너지 변화 등에 기인

(전년대비, %)

2023	2024	2025	2026	2027	2018~2022	2023~2027
-0.8	0.7	2.2	2.1	1.9	2.2	1.2

2023~2027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연평균 1.2%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의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인 2.2%보다 1.0%p 낮은 수준이다. 과거 5년 평균치 보다 향후 5년의 전망이 낮은 이유는 지난 5년간의 급격한 경기변동, 에너지 가격변동의 영향이 크고 향후 저조한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수요 감소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부문은 산업 부문이기에 제조업의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23년 이후에는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변동성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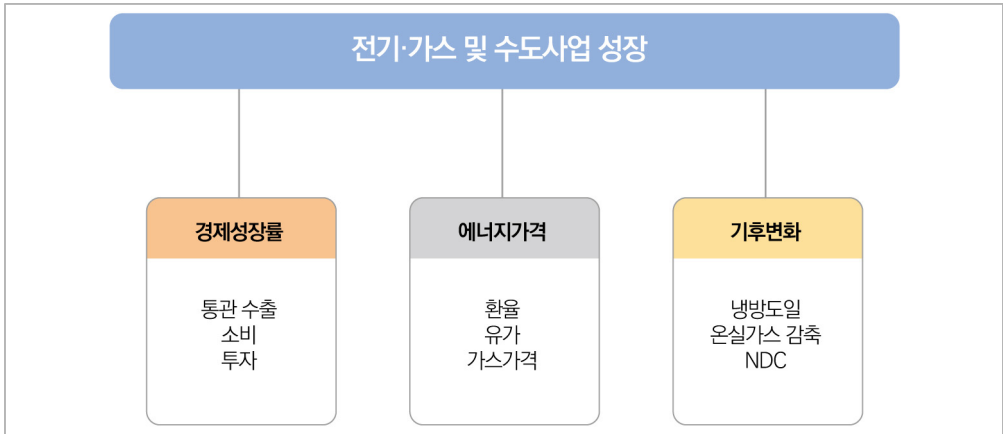
[그림 II-62] 중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적으로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관련된 에너지 수요는 경제성장률, 에너지 가격,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¹⁰⁶⁾ 아래 그림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성장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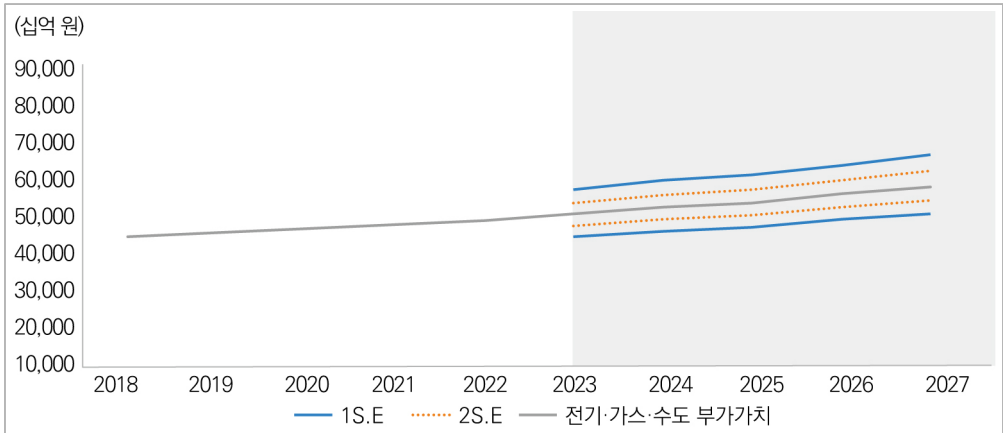
[그림 II-6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부가가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주: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국가결정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래 그림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 대한 전망모형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6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부가가치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6) 강병욱, 2023년 에너지 수요 전망 및 주요 특징, 에너지 브리프, Series No. 10-7,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7.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
- 생산 부문 -
(Economic Outlook for 2024 and the Medium-Term II)

발 간 일 2023년 10월 5일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디자인·인쇄 (주)명문기획 (tel 02·2079·9200)

ISSN 3022-0726
© 국회예산정책처, 2023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8-002043-10
ISSN	3022-0726

